

- (2) 국방사상의 보급 강화
- (3) 황군 위문
- (4) 은진(殷賑) 산업단체에 국민정신총동원운동 정신의 보급
- (5) 생활개선위원회의 설치
- (6) 물자의 애호절약
- (7) 생산의 증가와 한해 영향의 극복
- (8) 저축장려
- (9) 1인 1기념사업의 필행(必行)
- (10) 근로보국작업의 장려

4. 모든 국가적 시설 실행의 추진

그때마다 시책할 것.

5. 도시에서의 운동 강화

- (1) 경성부연맹의 강화 촉진
- (2) 기타 도시연맹에 대한 촉진
 - 가. 도별 도시연맹 진흥타합회 개최
 - 나. 도시에서의 각종 연맹의 운동 강화

6. 운동 능력의 증진

- (1) 조선연맹의 기구 강화
- (2) 위에 준한 지방연맹 기구의 강화
- (3) 애국반의 철저 강화
 - 가. 애국반의 정비
 - 나. 애국반장의 훈련
 - 다. 우량 애국반의 표창
 - 라. 『애국반지도필휴(愛國班指導必携)』의 간행
- (4) 학교연맹의 정비
- (5) 학교교원지방연맹의 애국반 지도
- (6) 청년단에 국민정신총동원운동 보급부 설치
- (7) 각 도연맹 사무담당자 타합회 및 지방연맹 관계자 강습회
- (8) 각 도별 지도자 타합회
- (9) 부군도 이상 연맹 이사장대회
- (10) 추진대원의 훈련강습회

- (11) 만주국 파견 근로보국대의 지도
- (12) 도연맹에 국민정신총동원운동 조사위원회의 설치
- (13) 지방연맹 및 애국반의 시찰지도

7. 국민총훈련으로의 유도

- (1) 여러 행사의 목표를 이 점에 집중할 것
- (2) '국민총훈련'의 표어보급 및 선전
- (3) 매일 아침 행사 및 애국일의 보급 철저
- (4) 라디오 '정동의 시간' 활용
- (5) 영화 제작 및 순회영사
- (6) 연맹가의 보급
- (7) 연맹 및 애국반의 집단훈련

8. 기타

- (1) 사변기념 및 연맹결성대회의 거행
- (2) 부, 읍, 면 또는 정, 동, 리, 부락연맹 마다의 기념식 거행
- (3) 일반 연중행사에 대한 협력
- (4) 국민정신총동원운동 소개책자 및 도표 간행
- (5) 각종 강연록, 강습록의 간행
- (6) 『총동원』 및 『새벽(曉)』의 개선충실

국민총력조선연맹 실천요강(1940년 2월 11일 결정)

- 최고목표 : 고도국방국가체제의 확립
- 실천대강
 - 제1. 사상의 통일
 - 제2. 국민총훈련
 - 제3. 생산력 확충
- 실천요목
 - 제1. 사상의 통일 : 1. 일본정신의 양양, 2. 내선일체의 완성
 - 제2. 국민총훈련 : 1. 직역봉공의 철저, 2. 생활신체제의 확립
 - 제3. 생산력 확충 : 1. 전시경제의 추진, 2. 증산의 수행

■ 중점

· 일본정신의 양양 : 국제 관념의 명징, 경신승조 거국일치, 멸사봉공의 대정신 발양, 황국신민의 신념 철저

· 내선일체의 완성 : 일시동인의 성지 봉체(奉體), 내선일체 이념의 철저, 내선 사실의 재확인 신애협력의 실천

· 직역봉공의 철저 : 고도국방국가체제 확립의 결의, 국가제일주의의 실천, 책임 관념의 철저

· 생활신체제의 확립 : 성전완수의 결의, 인고연마의 철저, 국방사상의 보급, 공덕심의 발양

· 전시경제의 추진 : 경제전 필승의 결의, 통제법령의 엄수, 공익우선 사상의 철저

· 증산의 수행 : 증산 필행의 결의, 건설적 기백의 양양, 유한(流汗) 근로의 실천

■ 실천사항

· 일본정신의 양양

1. 아침의 궁성요배
2. 신사참배
3. 정오의 묵도
4. 국기계양
5. 황국신민의 서사 낭독

· 내선일체의 완성

1. 국어의 보급
2. 내선 풍습의 융화
3. 단결의 강화

· 직역봉공의 철저

1. 책임의 완수
2. 능률증진 직능발휘
3. 의무의 즉결 즉행
4. 무위도식의 배격

· 생활신체제의 확립

1. 간이절약생활의 강행
2. 국민복의 보급
3. 건전오락의 장려
4. 국민체위의 향상
5. 위생사상의 보급
6. 과학정신의 양양
7. 단체훈련의 철저
8. 방공, 방첩, 방공, 방화, 방법

- 9. 총후후원의 강화
- 10. 상회(常會)의 장려
- 전시경제의 추진
 - 1. 매점매석, 암거래 폭리행위의 괴멸
 - 2. 적정 이윤의 엄수
 - 3. 식량대책의 장려
 - 4. 물자배급에의 협력
 - 5. 자원의 절약활용
 - 6. 저축장려 국채응모
- 증산의 수행
 - 1. 계획증산의 강행
 - 2. 근로배가
 - 3. 창의 공부의 장려
 - 4. 잉여 노동력의 활용
 - 5. 노자(勞資) 협조
 - 6. 미간지 공유지 활용

〈실천방책〉

- 1. 실천준비의 철저
 - (1) 실천방법의 개선 주도와 중점 파악
 - (2) 요목(要目) 정신의 보급 철저
 - (3) 주도면밀한 실천준비의 완비
- 2. 지도진영의 강화
 - (1) 조직의 정비확립
 - (2) 강력한 지도망의 충실
 - (3) 지도자의 솔선수범
 - (4) 지도자와 피지도자와의 상호신뢰
 - (5) 지도의 간절(懇切)과 간명
 - (6) 기선(機宣)의 조치를 통한 지휘의 철저
- 3. 실천의 철저
 - (1) 상호제휴와 실천의 장려
 - (2) 실천공부와 창의의 창달
 - (3) 모범적 실천자의 표창
 - (4) 호조적(互助的) 주의(注意)와 반성의 실행

1941년도 사업계획

■ 운동방침

1941년도의 국민총력운동은 조선연맹 실천요강 34항목을 일상의 업무 및 국민생활에서 더욱 철저히 구현하고, 행정기구를 통한 지도와 표리일체를 이루어 사상의 통일, 국민총훈련, 특히 생산력 확충에 매진할 것을 일반방침으로 삼는다.

■ 지도의 중점

1. 시국인식

국제정세의 급박한 변환에 대응하여 시국의 대요를 모든 기회에 주지시켜 사상의 통일과 국민의 결속, 민심의 안정을 도모한다.

2. 하부 조직 및 인적 기구의 쇄신

하부연맹 조직은 실천운동에 편리하도록 정비하고, 정과 리연맹 이사장 등의 인적 기구를 쇄신 개선하여 운동의 진전을 도모한다.

3. 상회(常會)의 운영

상회는 총력운동 실천의 원천이다. 각 도의 각 연맹은 일관된 날자와 정각에 상회를 개최하고, 운영도 적절하도록 그 지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4. 각 연맹 지도자의 강습

지도자의 지도능력 여부는 운동의 성과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 각 도 각 연맹에서 계획적으로 강습회를 개최하고, 추진위원의 연성에 의지를 지녀야 한다.

5. 실행 감독

총력운동은 도시 농촌 모두 그 실정에 따라 실천방책을 정하고, 각 연맹이 시달한 사항은 각각 그 실행을 감독 독려하여 철저한 실천을 도모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중점에 의거한 1941년도 사업은 다음과 같이 예정하고 있다.

1. 사상의 통일

1) 일본정신의 양양

- (1) 아침의 궁성요배, 정오의 묵도, 기타 필행 독려
- (2) 신사(神社)와 신사(神祠)의 참배, 대마(大麻)의 봉사(奉祀) 장려
- (3) 소원식, 소원제의 거행
- (4) 각 도시 순회 시국강연회 개최
- (5) 언론기관 편집 주임자 연락회의 개최
- (6) 신문잡지기사(사상방침 관계) 연구위원 설치
- (7) 준법정신의 보급

- (8) 사법보호에 관한 시설
- (9) 사법보호사상에 관한 선전 보급
- (10) 학술 진흥에 관한 시설
- (11) 교화인, 예술인을 통한 황국신민화운동

2) 내선일체의 완성

- (1) 부여신궁 어조영(御造營) 근로보국 작업
- (2) 국어보급에 관한 시설
- (3) 지원병제도의 취지 보급
- (4) 내선결혼의 장려
- (5) 내선 양풍미속의 조장 용화
- (6) 일본 취미의 고조
- (7) 재외 반도인에 대한 조선사정 선전
- (8) 번역출판의 지도

2. 국민총훈련

1) 직역봉공의 철저

- (1) 공익우선관념의 철저
- (2) 개인주의, 자유사상의 시정
- (3) 업태별 각종 연맹의 기능발휘
- (4) 군수 민수 중요물자 공출 독려
- (5) 할당저금의 완수 강조
- (6) 조세공과의 직납 장려

2) 생활신체제의 확립

- (1) 상회(常會)의 활용(일반연맹, 각종연맹 모두)
- (2) 의식주의 신체제화
- (3) 관혼상제 기타 일반 의례의 신체제화
- (4) 청년단 훈련의 지도
- (5) 부인층 지도의 강화
- (6) 미소기하라이(禊祓)의 장려
- (7) 건전한 국민예술의 진흥
- (8) 농산어촌 오락의 진흥지도
- (9) 국방사상의 보급

- (10) 방공훈련의 철저
- (11) 방공방첩의 철저
- (12) 위생사상의 보급
- (13) 교통도덕의 훈련
- (14) 과학사상의 보급 장려
- (15) 추진대의 양성 및 활동
- (16) 군사후원시설

3. 생산력의 확충

1) 전시경제의 추진

- (1) 저축 장려에 관한 시설
- (2) 국채응모의 장려
- (3) 경제사범 방지의 철저
- (4) 시국 관계 법령의 주지 철저
- (5) 경제통제협력회의 확충 강화
- (6) 공장, 광산, 상업, 공업, 광업, 어업 관계 공로자의 표창
- (7) 생활필수품 배급에 애국반 활용
- (8) 절식, 혼식, 대용식의 독려
- (9) 공정가격의 장려

2) 증산의 수행

- (1) 부락 생산확충 계획의 완수(공동 경작의 장려, 전가 근로의 철저, 부인 활동의 촉진, 추경의 장려)
- (2) 미곡의 증산 장려(건묘 육성, 적기 파종, 병충해의 방제, 적기 수확)
- (3) 밭작물의 증산 장려(이모작의 확충, 면, 대마, 감자, 마령서의 증산, 적기 파종, 적기 수확)
- (4) 유축(有畜) 농업의 보급
- (5) 자급 비료의 증산(퇴비 및 녹비의 증산, 액비의 저장 이용, 풀베기 경기회의 개최)
- (6) 가마니의 증산 장려(가마니 짜기 독려주간의 실시, 가마니 증산 공로자의 표창, 원료 지푸라기의 확보 및 저장)
- (7) 공휴지의 이용(1평 원예의 장려)
- (8) 목탄 및 숲의 증산 장려
- (9) 수산, 광산, 임산물의 증산 장려
- (10) 종업자 훈련 및 능률증진 시책
- (11) 광산연맹의 운영 강화
- (12) 수산연맹의 운영 강화

- (13) 폐품 회수의 철저
- (14) 전가 근로의 장려
- (15) 교화인 예술인의 노무자위안회 개최
- (16) 노무자에 대한 복리시설의 장려
- (17) 농촌 부인의 활동 장려 및 지도원의 양성

4. 운동 능력의 증진 및 연맹정신의 앙양

- (1) 전임직원의 충실
- (2) 지방에서의 운동중견인물의 양성훈련
- (3) 연맹 사무담당자 타합회의 개최
- (4) 지방연맹의 시찰지도 및 감사
- (5) 각종 연맹의 정비 지도
- (6) 연맹 개요의 간행
- (7) 애국반지도필휴(愛國班指導必携)의 간행
- (8) 국민총력독본, 신체제개요의 이용
- (9) 기관지 『국민총력』의 발행
- (10) 제2 기관지 『애국반』의 발행
- (11) 총력운동총서 및 만화신문의 발행
- (12) 우량연맹, 애국반 및 애국반원의 표창
- (13) 연맹기, 애국반기 및 표찰의 보급
- (14) 국민총력의 노래 및 애국반의 노래 보급
- (15) 포스터 및 빠라의 배포
- (16) 전담회의 개최 및 후원
- (17) 종이연극의 이용
- (18) 영화의 제작 및 조성
- (19) 강연회 좌담회 강습회의 개최
- (20) 조선연맹결성 기념대회의 개최
- (21) 지나사변 기념대회의 실시
- (22) 각종 주간의 실시
- (23) 순회 영화회 개최
- (24) 각종 현상모집
- (25) 신문잡지사 및 방송국과의 제휴
- (26) 관민 각종 간행물의 이용

■ 비고

본 사업 중에는 조선연맹이 직접 실시하는 것과 각 도연맹 및 각종 연맹이 실시하는 것을 모두 포함.

1942년도 사업계획

1942년도의 국민총력운동은 조선연맹 실천요강 가운데 철저히 중요 항목을 실천함으로써 정전관철(征戰貫徹)을 위한 국내 태세의 강화에 중점을 둔다. 반도 국민의 총력을 결집하여 어떠한 장기적인 전쟁도 승리할 수 있는 필승체제의 확립을 방침으로 삼는다.

이를 위한 운동의 중점은 다음과 같다.

1. 필승체제 확립에 대한 계도

강연, 좌담회, 연구회, 영화, 방송, 인쇄물의 배부, 기타 선전을 통한 필승불패의 신념을 견지시키고, 국민의 결속, 내선일체의 강화, 민심의 안정 등을 도모하여 최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체제의 강화 확립을 도모해야 한다. 특히 각 종교, 교화, 정신단체를 통제 지도하여 사상을 통일한다.

2. 지도자의 연성

조선연맹 및 각 도연맹에서 계획적으로 강습회 등을 개최하여 지도자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연맹 하 부조직의 인적 구성을 쇄신하여 총력운동의 진전을 도모한다.

3. 국민개로운동

국민개로운동을 조직적으로 철저히 하여 국민의 훈련, 생산력 확충에 노력한다. 또 대동아 건설에 필요한 인적 자원의 배양 및 전국적 수급의 조정을 통해 반도에 유익한 노무자를 산업전사로서 참가시킨다.

4. 부인계발운동

일본 부덕(婦德)의 함양, 자녀의 육성, 생활쇄신 등을 철저히 시행한다. 대일본부인회와 협력하여 부인의 계발을 도모한다.

5. 상회(常會)의 운영

대조봉공일 상회를 비롯해 각 도 각 연맹 및 애국반의 정례 상회를 장려하고 상의하달, 하정상통을 도모하여 총력운동을 철저히 실천한다.

6. 국어생활의 철저

반도인의 황국신민화, 내선일체의 완성에서 국어생활의 철저를 도모하는 것이 오늘날의 급무이다. 모든 시설을 통해 이의 구현을 도모한다.

1942년도 조선연맹 사업계획 (○은 신규계획)

1. 지도자 연성시설

○(1) 총력운동지도자강습회

총력운동 관계 관공리, 경찰관, 학교 교원, 연맹 임직원 등을 부여중견청년수련소 및 기타에 수용하여 지도자로서의 연성을 시행한다. 4회 합계 4,000명 예정.

○(2) 부인지도원강습회

도부군도에서 총력운동의 추진 임무를 맡은 부인 촉탁원 약 220명을 경성에 불러 합숙강습을 실시한다. 또한 부인계발운동은 부인지도위원의 활용, 하급연맹 부인부의 활동, 대일본부인회와 연락을 통해 시설을 충실하게 한다.

○(3) 방위지도강습회

민간 지도자를 1도에서 2명씩 모아 실시한다.

(4) 총력운동 및 계(禊) 강습회

총력운동 지도자를 여러 번으로 나누어 금강산 영지(靈地)나 기타에 모여 목욕재계를 가미한 연성강습을 실시한다.

○(5) 학교연맹 간부학생 강습회

학교연맹의 진흥과 학생층에 대한 실질강건(質實剛健)한 기풍을 함양하기 위해 약 60명을 금강산 영지에 모아 연성강습을 실시한다.

○(6) 수련도장건설

목욕재계 수련을 실시하기에 적당한 곳에 간단한 도장을 건설하여 지도자 연성에 사용한다.

○(7) 지방연맹 임원 성지참배

지방연맹 임원 약 30명을 선발하여 내지의 성지를 순배시켜 일본정신을 체득하도록 한다. 또 익찬운동 및 총후의 상황을 시찰시켜 총력운동의 추진을 도모한다.

○(8) 지방연맹 임원 상호시찰

조선을 여러 개로 나누어 상호의 총력운동 시설을 시찰시켜 연마향상을 도모한다.

○(9) 부인지도원 내지도장 파견

각 군도에서 부인지도원 약 100명을 로쿠하라(六原) 도장에 파견하여 수련을 쌓아 총력운동의 추진력으로 활용한다.

2. 생활쇄신 후생 및 문화시설

○(1) 생활쇄신 조사 및 지도

(2) 생활쇄신강습회

전시생활을 확립하기 위해 경성에서 주로 가정의 주부층을 대상으로 민간의 유력한 부인단체에게 위촉하여 강습회를 개최한다.

○(3) 농촌, 광산, 가정을 향한 건전오락

전시하 증산에 분주한 농촌, 광산 등의 종업자 및 일반 가정에 건전 명량한 오락을 제공하여 위안의 길을 강구한다. 더불어 총후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조사 작성한다.

○(4) 영양사상보급

총후 국민의 체력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영양사상의 고취를 목적으로 한 소책자를 간행 배포한다.

○(5) 건강주간 설정

○(6) 모자(母子)의 후생전람회

○(7) 전시생활규정전람회

○(8) 저축의 장려와 그 성적조사

○(9) 총력문화총서간행

시국인식, 총후국민생활의 긴장 등에 도움이 되도록 대동아전쟁 하의 미담과 가담(佳談) 및 충신, 효자, 열부, 위인 등에 관한 설화를 모집하여 간단한 소책자로 배포한다.

3. 조성 및 보도(輔導)

○(1) 국어보급 및 촉진시설

황국신민화를 위해 국어의 보급과 상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강습용 교본의 배포, 상용 선장(選獎) 등을 실시하여 촉진시킨다.

○(2) 하부연맹 및 참가단체 특수사업조성

하부연맹 및 참가단체인 각종 연맹에서 특수사업을 실시할 경우, 필요에 따라 이를 조성하여 연맹운동을 활발하게 한다.

○(3) 시국관계 법령의 주지 철저

○(4) 준법주간 실시

○(5) 보호기념일 실시

4. 근로보국촉진시설

○(1) 노동력 공출의 지도

○(2) 개로운동 촉진

○(3) 우량 근로보국대 조성

이전부터 그 성적보급을 장려해온 근로보국대 가운데 우량한 보국대 260대를 선정하여 공구 등의 설비를 조성하기 위해 1대당 50원씩 보조한다.

○(4) 국민징용제도의 주지 철저

(5) 부여신궁 어조영(御造營) 근로봉사

전년도에 이어 전 조선적으로 약 2만 명을 봉사시켜 내선일체의 진의를 체득하도록 한다.

5. 연맹기구의 정비지도

○(1) 하부조직 정비

연맹 하부조직의 정비를 도모하고, 부단한 시찰지도 및 인쇄물을 통해 계도한다.

(2) 총력운동 감사

조선연맹의 특설 직원과 총독부 직원과의 연락 제휴를 통해 항상 지방연맹, 애국반 등을 시찰 감사하여 지도 계발을 도모한다.

(3) 상회(常會)의 운영 강화

대조봉공일 상회를 비롯해 도연맹 상회, 하부연맹 임원 상회, 애국반 상회 등을 장려하고 더욱 상의 하달, 하정상통을 도모하여 총력운동 실천의 효과를 올린다.

(4) 각종 연맹의 직능 발휘

학교연맹, 공장, 광산 기타 각종 연맹이 업종별로 그 직능을 발휘하도록 시찰 지도한다.

6. 선전시설

(1) 각종 선전시설

전람회, 영화, 종이연극, 벽화 선전, 만화 선전, 강연회, 좌담회, 신문 선전, 영화 상설 선전, 방송선전, 각종 인쇄물 선전, 기타

(2) 『국민총력』의 발행(매월 2만 2,000부)

(3) 『애국반』(국어 및 언문) 발행(매월 43만부)

(4) 국민총력총서의 간행

(5) 방위 관계 자료간행

○(6) 방위(防衛) 순회강연

(7) 지원병 취지 철저(강연 및 좌담회)

7. 마사(馬事) 장려

말은 국방 및 산업에서 그 수요가 큰 것을 감안하여 우량마의 증산과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조선마사회 사업에 다음과 같은 시설을 통해 후원한다.

(1) 반도 현유마(現有馬)의 유지 보존 및 능력 향상

(2) 사료의 증산 및 건조 채취의 장려

(3) 말의 품평회, 전람회, 강연회 등에 협력

(4) 애마 행사의 주최 또는 후원

(5) 마사사상의 보급

8. 표창

(1) 우량 연맹 및 애국반 표창

(2) 정연맹 임원 애국반장 표창

(3) 산업개발 종업원 표창

○(4) 농림업 증산 공로자 표창

○(5) 부인지도자 표창

9. 각종 기념일 행사

국가적으로 기념하고 경축할 각종 기념일에는 그때마다 적당한 행사를 실시하여 필승신념의 양양, 국민정신의 진작 등을 도모한다.

10. 기타 강조할 실천운동

일본정신의 양양을 위해 실천항목 및 제반 애국행사를 더욱 강화하고, 다음 사항의 실천을 강조한다.

(1) 국민 3수칙의 실천

‘개로, 절약, 저축’은 대동아전쟁 완수를 위한 국민 필수 실천사항이자 총력운동의 기초로 삼는다.

(2) 청소년 훈련의 강화

청소년 지도자에게 연성강습 및 연맹기구를 통해 청소년 훈련의 강화를 도모하고, 청년단의 훈련과 근로보국 등의 시설에 대해 총력운동으로서 긴밀히 협력 지도한다.

(3) 국방사상의 보급

국방사상은 각종 강습회, 상회(常會) 방송, 선전시설을 통해 보급을 도모하고, 이밖에도 군사보급협회, 기계화국방협회, 조선항공단 등을 활용하여 철저히 시행한다.

(4) 방공, 방첩, 방공, 방범

방위 지도는 전시태세의 완비에 긴급한 일이다. 애국반의 가정방공을 비롯해 국민의 각오와 훈련의 향상을 도모한다.

(5) 생산력의 확충

식량증산을 비롯해 각 생산 분야에 걸쳐 관의 시설에 협력하여 생산 확충, 기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취지의 선전과 독려에 힘을 기울인다. 특히 군수자재의 우선 생산 및 공출을 촉진 구현한다.

(6) 전시경제에 적극적 협력

전시통제협력회와 연락하여 상업도덕의 확립, 경제사범의 방지, 구매자의 숙정(肅正), 생활물자 배급의 적정 등 전시경제의 운영에 협력한다.

1943년도 국민총력운동요강

제1. 운동방침

국체 본의를 투철히 하여 도의(道義) 조선의 확립을 도모하고, 2500만 신민의 총력을 결집 연마하여 대동아전쟁 목적의 완수에 매진하면서 다가올 징병제도 실시준비에 유감이 없도록 한다.

제2. 운동의 주목표

1. 도의 조선의 확립

황국 도의의 진수는 숭신(崇神)의 대도(大道)를 다하여 신민의 본분을 다하며 살아가는 데 있다. 지금 자유주의사상에 의거한 공리생활은 그 한계에 도달하였다. 황국 도의에 입각한 새로운 세계질서가 역사의 필연으로 왕성하게 건설되고 있다.

도의 조선을 확립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내선일체가 되어 황국 본래의 모습을 반도에 현현(顯現)함으로써 도의 세계의 건설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황국연성을 통해 황도문화를 양양하고, 발랄(潑刺)한 도의생활운동을 전면적으로 전개하려는 것이다.

2. 황민의 연성

황민연성의 본지는 황국신민으로서의 심혼(心魂)을 양성하고, 과감히 국사(國事)에 참여하는 강건한 심신을 연마함으로써 억조일심(億兆一心) 대화협력(大和協力)하여 도의생활의 실천에 매진하는 것에 있다.

널리 국체 본의의 확립을 도모하고, 특히 청소년의 연성에 힘을 쏟음과 동시에 황민의 어머니인 부인의 자각을 촉구하여 황국가풍의 확립에 노력해야 한다. 직장의 연성을 통해 지역봉공의 국풍을 일으켜야 한다. 각 계층 지도자를 연성하여 술선수범의 내실을 올리고, 행동을 중심으로 한 연성과 더불어 부단히 국민에게 도의실천의 생활훈련을 철저히 하려는 것이다.

3. 결전생활의 확립

대동아전쟁의 결전 단계에서 국내의 조직기구를 정비하여 국민의 생활을 모두 전쟁의 목적에 집중시키는 것이야말로 바로 결전태세 확립의 선결문제이다.

미영적인 폐풍, 그 가운데에서도 자아공리의 관념을 일소하고 나아가 국가의 요청에 응하는 정신봉공(挺身奉公)의 신념을 양성해야 한다. 간소강건(簡素剛健)한 생활을 확립하고 국토방위의 강화, 방첩의 철저, 물자배급의 조정, 소비의 절약, 국민저축의 증강, 전쟁용 자원의 활용 등 긴급한 여러 문제에 전력을 다하려는 것이다.

4. 필승 생산력의 확충

결전 하 병참기지라는 중책을 담당한 조선으로서 생산력 확충에 필승의 태세를 확립하는 것은 시세의 급무이다. 필승 생산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요청하는 전략물자의 증산 공출에 국민의 총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황도정신에 의거한 생산보국운동을 전개하면서 국민의 노력을 동원 활용하여 군수자재 및 식량의 비약적 증산에 집중해야 한다.

5. 징병제도 실시의 준비

징병제도 실시의 성과를 완수하는 것은 실로 지금 조선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다.

본년은 징병제도 실시를 앞둔 해로 그 준비에 완벽을 기해야 한다. 전 조선에 걸쳐 건군의 본의와 군대생활의 실상을 인식시켜 철저히 징병제도 실시의 진정한 정신을 알리고, 더불어 국어의 보급에도 노력하고 호적 정비에 협력하려는 것이다.

제3. 운동요목

1. 도의 조선의 확립

1) 황도문화의 양양

- (1) 국체 본의 투철을 위한 집회 및 강사 파견
- (2) 국체 본의 투철에 관한 인쇄물 간행
- (3) 국체 본의에 의거한 사상문화생활의 지도
- (4) 황도문화에 관한 논문모집, 연구보조
- (5) 성지참배단의 파견 및 장려

2) 내선일체화의 촉진

- (1) 병합의 성지 철저
- (2) 부여신궁 근로봉사
- (3) 국어의 보급 및 상용의 장려
- (4) 징병제 진의의 철저
- (5) 내지식(內地式) 작법(作法) 및 생활양식의 보급
- (6) 내선 상호 경애정신의 보급
- (7) 내선 유식자의 초빙 파견
- (8) 조선사정의 대(對) 내지 선전
- (9) 내선일체에 관한 조사 및 계발 선전
- (10) 신반도문화총서의 간행

3) 도의생활운동의 전개

- (1) 경신승조, 보은감사 생활운동
- (2) 봉사생활운동
- (3) 근로보국운동
- (4) 준법운동
- (5) 규율철저운동
- (6) 예의운동
- (7) 청결운동

- (8) 청소운동
- (9) 친절운동
- (10) 교통도덕 양양운동

2. 황민의 연성

- 1) 지도민족으로서의 연성
 - (1) 황국의 세계적 사명 자각의 철저
 - (2) 지도민족으로서의 자질과 품격의 함양
 - (3) 세계 신질서 건설 관계에 관한 지식의 보급
- 2) 지도자의 연성
 - (1) 지역연맹 지도자의 연성
 - (2) 추진대원의 연성
- 3) 청소년의 연성
 - (1) 무도, 각력(角力), 수영, 등행, 마술, 국방경기 등의 장려
 - (2) 군사 기본기술의 훈련
 - (3) 해양국방의 훈련
 - (4) 내한내서(耐寒耐暑) 단련
 - (5) 음영(吟詠)의 지도
- 4) 부인의 연성
 - (1) 부인의 미 기본요강 작성
 - (2) 부인지도원의 연성
 - (3) 부인지도원의 내지 파견
 - (4) 부인지도원의 지방순회강연
 - (5) 부인연성에 관한 집회 및 인쇄물 간행
- 5) 직역(職域) 연성
 - (1) 각 직역의 연성요강 작성
 - (2) 직역에서의 연성조직 결성의 촉진
 - (3) 직역 지도자의 연성
 - (4) 직원 및 노무자의 연성
 - (5) 직역봉공정신 철저를 위한 계발 선전
- 6) 문화인의 연성
 - (1) 문화인연성강습

- (2) 문화인의 성지 참배, 근로봉사, 농촌 기타 생산지 파견

3. 결전생활의 확립

- 1) 대동아전쟁의 진의 철저
 - (1) 대조(大詔)의 성지(聖旨) 철저
 - (2) 미영격멸 전의(戰意)양양운동
 - (3) 미영적 폐풍의 일소운동
 - (4) 기념행사의 개최
 - (5) 선전문화인의 결전동원체제 확립

- 2) 결전생활운동
 - (1) 의식주의 결전태세 확립
 - (2) 조기(早起)운동
 - (3) 향락생활의 배격
 - (4) 금속회수운동
 - (5) 조선용 목재 공출운동
 - (6) 방공, 방호, 방범, 방화, 방첩의 철저
 - (7) 물자배급의 조정
 - (8) 군인원호운동
 - (9) 연료절약, 저온생활운동
 - (10) 무연탄의 이용 강화
 - (11) 사교의례의 간소화
 - (12) 현미식(玄米食)의 장려
 - (13) 전전오락의 장려
 - (14) 국민개로운동
 - (15) 적령 결혼의 장려, 다자(多子) 가정의 표창

- 3) 국민저축의 증강
 - (1) 12억 저축달성운동
 - (2) 국채소화운동
 - (3) 국민저축조합의 정비확충
 - (4) 우량 저축조합의 표창
 - (5) 간이보험 1호 1구좌 가입 장려

- 4) 건민(健民)운동
 - (1) 건민사상의 보급 철저

- (2) 무도교육 진흥, 보건위생사상의 보급
- (3) 유아 및 모성보건운동
- (4) 무의촌(無醫村)에 의료반 파견
- (5) 보행의 장려
- (6) 결핵예방 및 박멸운동
- (7) 공장, 광산 등의 후생시설의 지도 장려
- (8) 체력관리제도의 보급
- (9) 건민운동 공로자의 표창

4. 필승 생산력의 확충

1) 생산보국운동의 전개

- (1) 생산보국정신의 보급 철저
- (2) 전 조선 공장의 조직 연계
- (3) 황국농도(農道)정신의 함양
- (4) 부인근로 관념의 계배(啓培)
- (5) 유희자(遊休者)의 연성 및 취직알선
- (6) 동기(冬期) 농촌 과잉 노동력의 활용
- (7) 근로보국대의 운동 강화
- (8) 창의 공부의 장려
- (9) 직역봉공의 노래 모집

2) 생산력 증강의 완수

- (1) 증산공출 지도를 위한 집회 및 선전
- (2) 증산공출 공로자의 표창
- (3) 증산 상황의 시찰 독려
- (4) 중점 수송(輸送), 체화(滯貨) 일소에 협력
- (5) 산업전사 결의 선양대회의 개최
- (6) 산업전사에 대한 건전오락의 공급
- (7) 농촌 공동작업의 철저
- (8) 우량 탁아소의 표창
- (9) 각 도 안의 우량 농촌부락의 상호시찰 장려
- (10) 식림(植林)운동

5. 징병제도 실시의 준비

- 1) 건군 본의의 투철, 징병제도 진(眞)정신의 철저
 - (1) 군인직유의 성지 철저
 - (2) '징병제의 밤' 개최
 - (3) 징병제에 관한 영화, 종이연극, 인쇄물 등의 작성 및 지도
 - (4) 징병제도 취지 선전 문예, 연극 등의 지도 조성
- 2) 군대생활의 인식, 군사사상의 보급 철저
 - (1) 육해군에 관한 전람회 및 행사
 - (2) 강연회, 영화회, 인쇄물 등을 통한 선전
 - (3) 군대숙박 연성회
 - (4) 군대생활 및 연습 견학
- 3) 국어의 보급
 - (1) 국어강습의 장려
 - (2) 국어교본의 편찬 및 배포
 - (3) 국어보급 공로자의 표창
 - (4) 문예오락을 통한 국어의 상용 및 순화(醇化)
- 4) 호적 정리 협조
 - (1) 호적사상의 보급
 - (2) 호적 정리 협력에 관한 선전

이상의 각 항의 실시에 즈음하여 중앙에 연성도장의 건설을 서두르고, 연맹 하부조직의 정비 강화와 지도자의 소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연맹추진대원을 재연성한다. 또한 각종 연맹 및 참가단체에 대한 지도 및 연락에 노력하여 그 지역적(職域的) 활동을 조정하고, 사찰 독려의 철저와 함께 운동의 촉진에 유감이 없도록 한다.

한편 내지, 만주, 북지 등에 거주하는 조선인의 연성에 관해서는 각지의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밀접히 하고, 특히 내지 방면의 조선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더욱 심화시킨다.

1944년도 국민총력운동 요강

제1. 운동의 기본방침

국체의 본의에 의거하여 도의 조선을 확립하고 2,600만 신민의 총력을 직접 전력 증강의 한 점으로 결집함으로써 대동아전쟁의 완승을 도모한다.

제2. 운동의 주요목표

1. 국민신앙의 확립
2. 황민연성의 철저
3. 내선일체의 철저
4. 황도문화의 작흥
5. 사봉(仕奉)증산의 강화
6. 결전생활의 철저
7. 징병제도의 완수

1. 국민신앙의 확립

유신(惟神)의 대도를 선양하여 일억 신민을 철저한 경신존황(敬神尊皇)의 대의로 확고한 국민신앙을 수립하는 일이 조국의 이상달성의 근본의이다.

신의 아들로서 신의 나라에 태어나신 현진어신(現津御神) 천황께 모든 생활을 바쳐 천업회홍(天業恢弘)에 봉사정신(奉仕挺身)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신앙의 요체이다. 조선에서는 먼저 1면 1사(一面一祠)를 목표로 봉무자를 양성하고, 이들에게 신사 봉무 이외에 지방민심의 교화계발의 임무를 맡긴다. 또 씨자(氏子) 조직의 확립과 더불어 신지(神祇) 중심의 연중행사를 설정하고, 가정에서 철저한 신지봉제(神祇奉齋)를 도모한다. 일상에서의 국민신앙생활의 확립에 전폭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2. 황민연성의 철저

황민연성의 본지는 황국신민으로서의 심혼(心魂)을 양성하고, 과감히 국사(國事)에 참여하는 강건한 심신을 연마함으로써 억조일심(億兆一心) 대화협력(大和協力)하여 도의생활의 실천에 매진하는 것에 있다.

즉 널리 국체 본의의 투철을 도모하고, 특히 청소년의 연성에 역점을 둔과 동시에 각 계층과 각 직역의 지도자를 중점적으로 연성하여 솔선수범의 내실을 올리고, 행동을 중심으로 한 연성과 더불어 부단히 국민에게 봉사생활의 실천적 훈련을 철저히 하려는 것이다.

3. 내선일체의 철저

팔굉위우(八紘爲宇)의 조국(肇國) 이상에 의거한 대동아 민족 공영의 대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기반인 내선의 결합을 단단히 하여 일억일체(一億一體)의 태세를 시급히 확립하는 일이 선결문제이다.

즉 일시동인의 성지를 받들어 야마토 민족의 정신을 더욱 견고히 함과 동시에 동근일본(同根一本)의 사실을 현창하여 내선 동근의 일체감을 심화시키고, 약진 조선의 현상을 널리 일반에게 이해 인식시켜 내외 거주 반도인의 지도 의식을 철저히 하는 등 명실공이 내선 야마토 일체의 완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4. 황도문화의 작흥

폐풍적인 미영문화를 일소하고 문화의 근본적 전환을 도모하여 건전한 황국 민풍을 작흥하는 것이 초미의 급무이다.

즉 먼저 현대문화를 철저히 음미함과 동시에 문화인을 연성하고 황국세계관에 철저한 문화기관의 결전적 동원을 통해 국민의 전의(戰意)를 양양한다. 국어생활운동을 강화하여 더욱이 황도문화의 지방적 지역적 침투를 통해 황도민으로서의 정조(情操)의 도야에 노력함으로써 청신발랄(淸新潑刺)한 국민문화의 배양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5. 사봉(仕奉)증산의 강화

결전 하 병참기지의 중책을 담당한 조선으로서 생산력의 확충에 필승불발(必勝不拔)의 태세를 수립하는 일이 현재의 급무이다. 필승생산력의 확충에는 국가가 요청하는 중요물자의 증산공출에 국민의 충력을 결집 발양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황도에 의거한 사봉정신(仕奉情神)을 보급하고 이를 직역에 철저히 침투시켜 각종 사봉대의 활동을 충실 강화함과 동시에 국민개로운동의 강화를 통해 유희 노동력의 일소를 도모한다. 또 한편으로는 산업전사의 위문 격려와 철저한 노무 원호에 노력하여 책임 생산의 달성에 매진하고, 나아가 결전 수송의 수행에 협력하는 등 군수물자 및 식량증산의 완수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6. 결전생활의 철저

결전생활의 요체는 일상 국민생활의 전부를 물심양면에 걸쳐 직접 전력 증강이라는 한 점에 응집하는 것에 있다.

먼저 미영적인 자아공리의 관념을 일소하여 활발한 도의실천의 생활을 철저히 하게 만들고, 나아가 국가의 요청에 응하는 사봉정신의 기백을 양성해야 한다. 간소강건(簡素剛健)한 생활을 확립함과 동시에 동포를 서로 믿고 의지는 미풍을 기르고, 나아가 국토방위태세의 강화, 소비의 절약, 국민저축의 증강, 전쟁용 자원의 활용, 군인 원호의 강화, 건민운동(健民運動)의 철저 등에 전력을 다하려는 것이다.

7. 징병제도의 완수

황군 건군의 본의는 천황 친솔(親率) 아래 국민개병 만방공영의 대의를 우내(宇內)에 선양함으로써 황운을 무궁히 부익하는 것에 있다.

지금 반도에 징병제도가 시행되어 내선은 똑같이 대군(大君)을 받들어 도의세계 건설의 대업에 정신(挺身)하고 있다.

징병제도 실시의 성과를 완수하는 것이 실로 현재 조선의 긴급한 요무이다. 특히 금년은 처음으로 입영자를 보내는 데에 전력을 기울여 징병제도 실시의 진의를 철저히 보급해야 한다. 또 진충보국의 정신을 양양시키면서 장정에 대한 신심의 연성, 국어력의 향상, 호적 정비 협력 등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이다.

제3. 운동요목

1. 국민신앙의 확립

- (1) 유신(惟神)의 대도 선양운동
- (2) 1면 1사를 목표로 하는 봉무자 양성
- (3) 씨자조직 결성 운용에의 협력
- (4) 신지(神祇)를 중심으로 한 연중행사의 설정
- (5) 가정에서의 신지봉재(神祇奉齋) 지도

2. 황민연성의 철저

- (1) 지도자의 연성
 - 가. 지역연맹 지도자의 연성
 - 나. 직역연맹 지도자의 연성
- (2) 청소년의 연성
 - 가. 무도, 각력(角力), 수영, 등행, 국방경기 등의 장려
 - 나. 해양국방훈련의 보급
 - 다. 청소년 사봉대의 내지 파견
 - 라. 학교 졸업자의 연성

3. 내선일체의 철저

- (1) 일시동인의 성지 철저
- (2) 부여신궁 근로봉사의 실시
- (3) 내지식 작법 및 생활양식의 보급
- (4) 내선인 융화운동의 전개
- (5) 내외 재주 반도인의 지도
- (6) 조선사정 소개 선전의 강화
- (7) 동근(同根) 사실에 관한 조사 및 계발 선전

4. 황도문화의 작흥

- (1) 황도에 의거한 사상문화생활의 지도
- (2) 폐풍적 미영문화의 일소
- (3) 문화기관의 결전체제 강화
- (4) 문화인의 연성 및 성지와 생산현지 등예의 파견
- (5) 국어생활의 강화

- (6) 국어문학, 국어연극의 지도 표창
- (7) 일본적 예능에 의한 정조 도야
- (8) 건전한 지방오락의 육성지도
- (9) 직장 극단, 음악단의 육성지도

5. 사봉증산의 강화

- (1) 사봉정신의 각 직장 철저
- (2) 광산, 공장연맹 사봉대의 활동 강화
- (3) 근로관리의 연습지도
- (4) 증산상황 시찰 격려반 파견
- (5) 개동운동(皆動運動) 진두 지도운동의 실시
- (6) 산업전사 위문격려반 파견
- (7) 사봉증산서의 간행 배포
- (8) 징용제 취지의 보급 철저
- (9) 노무장려운동의 전개
- (10) 농업사봉대의 조직 및 활동 강화
- (11) 생산책임제 완수에 협력
- (12) 농촌에서의 적기(適期) 및 공동작업의 지도 철저
- (13) 상업사봉대의 활동 강화
- (14) 국민개로운동의 강화를 통한 유희 노동력의 일소
- (15) 결전 수송, 하역력(荷役力) 강화에 협조
- (16) 조립운동의 철저

6. 결전생활의 철저

- 1) 도의실천운동의 강화
 - (1) 준법운동
 - (2) 규율예의 철저운동
 - (3) 청소운동
 - (4) 친절운동
 - (5) 가두 도덕양양운동
- 2) 결전생활운동의 강화
 - (1) 생활간소화운동
 - (2) 조기운동

- (3) 공지(空地) 이용운동
- (4) 금속회수운동
- (5) 군수물자 공출운동
- (6) 물자배급에 협력
- (7) 연료 절약운동 및 무연탄 이용의 강화
- (8) 군인원호, 해원(海員) 원호운동의 강화
- (9) 국토방위 태세의 강화
- (10) 하부연맹 및 애국반 시찰 지도의 철저
- (11) 총력상당소의 설치
- (12) 비행기헌납운동의 실시

3) 저축생활의 철저

- (1) 18억 저축 돌파운동
- (2) 국채 소화(消化)의 철저
- (3) 저축조합의 지도
- (4) 신흥 소득계층에 대한 저축지도

4) 건민운동(健民運動)의 철저

- (1) 황민적 건강관의 확립
- (2) 무도, 체육진흥, 위생보건사상의 보급
- (3) 유아 및 모성보건운동
- (4) 무의면(無醫面) 순회 의료반 파견
- (5) 후생보건시설의 보급 및 철저

7. 징병제도의 완수

1) 징병제의 실시 철저

- (1) 입영 장정의 사기 양양
- (2) 갑종 합격운동의 실시
- (3) '군국의 밤'(軍國の夕) 이동 선전
- (4) 군대생활 및 연습 견학
- (5) 육해군에 관한 전람회 등 행사
- (6) 징병제 취지 선전 문예, 영화, 연극, 종이연극 등의 지도 및 작성
- (7) 강연, 방송, 인쇄물 등을 통한 선전

2) 장정 국어력의 철저 향상

3) 청년특별연성소 및 군무예비훈련소에 협력

- 4) 청년훈련소 및 동 별과(別科)에 협력
- 5) 호적 정리에 협력
 - (1) 호적사상의 철저
 - (2) 호적정비에 관한 선전
 - (3) 소재 불명자 조사 및 이동 신고서의 장려

III. 예산의 변천

세입예산

	1938년 (9개월분)	1939	1940	1941	1942	1943	1944
재산수입	-	2,924	6,632	12,152	11,901	11,901	11,901
국고보조금	-	246,000	126,110	303,640	726,218	1,094,600	1,662,813
기관수입	-	-	12,980	23,000	18,000	61,200	37,600
잡수입	1,300	3,092	12,192	20,368	20,681	1,647	1,647
기부금	100,000	38,600	64,188	73,399	76,615	150,000	20,001
이월금	-	20,000	215,000	138,380	183,000	133,000	70,000
조성금	-	-	-	-	-	11,000	-
차입금	-	-	100,000	-	-	-	-
세입 합계	101,300	114,616	568,123	773,339	1,036,415	1,564,148	1,823,964
징병후원사업부	-	-	-	-	-	563,260	772,231

세출예산

	1938년 (9개월분)	1939	1940	1941	1942	1943	1944
회의비	800	1,000	1,000	1,370	2,270	4,390	3,250
제급	-	-	-	-	-	510,176	563,502
□용비	6,880	9,470	10,630	14,400	21,960	32,460	41,100
수선비	-	300	5,300	300	300	300	300
잡비	4,570	2,576	2,360	2,500	4,000	7,300	7,300
수당	-	-	30,854	27,820	27,820	-	-
급료	18,500	32,460	24,720	39,792	40,236	-	-
잡급	8,660	21,807	27,813	33,125	38,614	-	-
여비	9,000	11,040	17,890	27,080	29,430	-	-
기획조사비	-	3,000	-	4,750	5,400	22,400	18,195
행사비	-	6,000	4,000	1,880	1,250	3,250	2,000
연성비	-	-	-	-	-	18,323	70,834

국민신앙운동비	-	-	-	-	-	23,645	146,070
황도문화진흥비	-	-	-	-	-	7,625	6,730
국어보급비	-	-	-	-	26,000	13,920	13,540
사봉운동지도비	-	-	-	-	-	96,930	126,677
생활운동비	-	-	-	-	-	62,420	37,120
선전비	35,000	-	20,300	24,242	23,679	77,629	68,220
나라잡기비	-	13,840	57,920	64,950	74,121	92,088	71,000
표창비	-	-	7,500	12,160	17,030	21,800	41,880
조성비	-	500	2,000	-	10,000	30,000	32,500
건축증산운동비	-	-	-	-	19,300	110,000	-
대정익찬회연락비	-	-	-	-	4,000	-	-
강연회비	-	4,350	5,700	9,600	11,603	-	-
좌담회비	-	6,030	1,000	4,680	4,580	-	-
강습회비	-	-	-	-	34,832	-	-
간행비 (1943년 이후는 선전비에 포함)	-	3,030	19,364	23,833	21,833	-	-
지도관리비	-	-	10,900	120,992	128,805	-	-
청년교양비	-	2,600	20,900	12,381	-	-	-
라디오강좌비	-	1,220	-	-	-	-	-
레코드조제비	-	1,330	-	-	-	-	-
종이연극비	-	7,662	-	-	-	-	-
전람회비	-	9,000	-	-	-	-	-
영화구입비	-	6,970	-	-	-	-	-
대회비	-	4,000	-	-	-	-	-
보조비	13,500	89,890	23,300	157,150	303,728	288,830	387,003
사무소신축개축비	-	-	-	30,000	37,630	10,000	20,000
직원단합비	-	-	-	-	-	-	6,000
수련소시설비	-	34,600	200,000	112,390	63,000	20,000	3,000
재산관리비	-	-	1,000	2,300	2,300	3,000	3,000
잡비	4,390	10,000	22,250	9,737	7,740	13,392	23,820
예비비	-	10,000	10,000	10,300	20,300	30,000	100,000
기본재산조성비	-	-	31,000	-	-	-	-
세출합계	101,300	334,616	568,123	773,339	1,036,415	1,564,348	1,823,964
징병후원사업비	-	-	-	-	-	563,260	772,251

IV. 사무국 기구, 인사의 변천

1. 1938년 12월 6일

[사무국]

- 총재실 : 본 연맹의 운영과 각 하급연맹의 지도감독 및 조장에 관한 모든 기획
- 사무실 : 인사발령, 문서의 기안 수수 발송 정리, 부책(簿冊), 예산안 및 결안표(決案表)의 조제, 예산의 집행, 회계, 여러 회합, 임원회, 일반서무

2. 1940년 5월 13일

[총재-이사장-전무이사]

- 총무과 : 기밀, 임직원의 진퇴 및 신분, 문서의 접수, 발송, 사열, 서류의 편찬 및 보존, 회계, 사무소 취체, 영선(營繕),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 성과의 감사, 타 과가 주관하지 않는 사항
- 기획과 : 연맹운동의 기획, 하급연맹 및 가맹단체의 지도 감독과 조장
- 선전과 : 연맹원의 계발 선전, 편집

총재 가와시마 요시유키(川島義之)

이사장 시오하라 도키사부로(鹽原時三郎)

전무이사 유카미 치사부로(由上治三郎) (1939년 4월 17일~1940년 1월 22일)

전무이사 정교원(鄭喬源) (5월 29일)

전임고문 가와키시 분사부로(川岸文三郎) (7월 15일)

3. 1940년 11월 20일

[총장-사무국]

- 총무부 : 인사, 서무, 회계, 사업성과의 감사, 각 부의 사무연락 및 타 부에 속하지 않는 사항
- 서무과 : 기밀, 임원 및 직원의 진퇴 신분, 문서의 접수 발송 및 보존, 사업성과의 감사, 국민총력운동의 기초사항 조사. 국내 타 과가 주관하지 않는 사항
- 기획과 : 국민총력운동의 기획, 지방연맹 각종연맹 및 가맹단체의 지도 조장, 각 부 사무연락
- 경리과 : 예산 결산 및 출납, 영선, 용인(傭人)의 임면 및 감독, 사무국 취체
- 지방부 : 연맹조직망의 정비 및 지방행정기관과의 연락조정
- 식산부 : 상공광수산업자 및 관계 각종단체의 국책협조
- 농림부 : 농산어민 및 관계 각종단체의 국책협조
- 저축부 : 국민의 저축장려에 관한 사항 및 금융기관의 국책협조
- 보도부(輔導部) : 보호시설에의 협조 및 준법정신의 철저
- 사상부 : 방공방첩 기타 사상선도 시설에 협력
- 훈련부 : 연맹원의 훈련

- 선전부 : 국민총력운동의 취지 선전
- 선전과 : 보도, 강연, 영화 및 전람회 기타 제반 선전에 관한 기획 및 실시
- 편집과 : 기관지의 발행 및 각종 도서 인쇄물의 출판
- 선전위원회 : (선전에 관한 대강의 협의기관으로서 경성거주 각 언론보도기관의 대표자가 위원)

사무국장 겸 선전부장 가와키시 분사부로(川岸文三郎) (1940년 10월 16일)

총무부장 오천교원(烏川僑源)¹²⁾

지방부장 오오다케(大竹十郎)

식산부장 호즈미 신로쿠로(穂積眞六郎)

농림부장 유무라 다츠지로(湯村辰二郎)

저축부장 미즈다(水田直昌)

보도부장 미야모토 하지메(宮本元)

사상부장 미쯔하시 코우이치로(三橋孝一郎)

훈련부장 시오하라(鹽原時三郎)

선전부장 미타라이 타츠오(御手洗辰雄) (1940년 11월 7일)

4. 1940년 12월 27일

문화부가 신설되고 방어지도부가 사상부를 대신하여 신설되었다.

- 방어지도부 : 방공방첩, 방범방호, 재해방지, 위생 등 국민방위
- 문화부 : 학술기예, 신문, 출판물, 영화, 연극홍업, 오락 기타 문화의 진흥

5. 1941년 1월 25일 (보도부에 다음과 같은 과를 설치)

■ 보도부

- 총무과 : 문서 및 회계, 부회(部會)의 개회와 부내 회의 및 타 부의 인사업무, 부 내 타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 준법과 : 준법정신의 보급 기타 제반 준법에 관한 기획 및 실시

- 보호사업과 : 사법보호사업제도의 주지 철저, 사법보호사업에의 협력운동 촉진, 기타 제반 사법보호사업에 관한 기획 및 실시

방어지도부장 미쯔하시 코우이치로 (12월 27일)

문화부장 야나베 에이사부로(矢鍋永三郎)

지방부장 우에 하야세(上瀧基) (1941년 1월 24일)

훈련부장 마사키(眞崎長年) (4월 11일)

12) 정교원(鄭僑源)의 창씨명.

6. 1941년 11월 (후생부 신설)

- 후생부 : 보건위생 사회사업 및 노무국책 협력
후생부장 이시다(石田千太郎)
사무국 총장 하타 시게카즈(波田重一) (1942년 5월 5일)
선전부장 다카미야(高宮太平) (7월 13일)

7. 1942년 11월 4일

[사무국 총장]

■ 총무부

- 총무과 : 서무 문서 인사 및 회계 정리, 회의, 타 부와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 기획과 : 각 부 소관사항의 종합기획 및 연락조정, 자료의 조사 및 모집
- 연락과 : 각급 연맹 조직망의 정비 및 지도, 지방행정기관 및 각종 단체와의 연락조정, 상의하달

하정상통

■ 연성부

- 사상과 : 황도정신의 양양, 국민사상의 통일, 방공 방첩 방법, 준법정신의 철저 및 보호시설에 협력
- 연성과 : 국민의 일반적 연성, 국어보급, 지도자 부인단체 등의 지도 연성, 국민방공훈련
- 청년과 : 청소년의 지도 연성
- 군사보급과 : 군사사상의 보급

■ 정리부

- 저축과 : 저축장려
- 진흥과 : 생산확충, 노무

■ 후생부

- 후생과 : 부인원호, 후생
- 생활과 : 전시생활의 쇄신확립, 생활필수품의 배급, 물자의 절약 및 회수

■ 선전부

- 선전과 : 선전 계발
- 편집과 : 인쇄물의 편집 발행
- 문화과 : 황도문화의 지도 진흥, 문화기구의 정비 강화

총장 하타 시게카즈

총무부장 칸규우(簡牛凡夫)

연성부장 오야(大家虎之助)

후생부장 김연수(金季洙)

선전부장 쓰다 스요시(津田剛)

경제부장 사무취급 하타 시게카즈

경제부장 다나카(田中英) (11월 16일)

후생부장 사무취급 손영목(孫永穆) (1943년 4월 20일)

8. 1943년 11월 15일

[사무국 총장 - 차장]

■ 총무부

- 서무과 : 서무·문서·인사·회계·경리, 타 부와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
- 통무과(統務課) : 회의 및 행사, 각 부 소관사항의 종합기획 및 연락조정, 각급 연맹의 조직정비 및 지도, 행정기관 및 각종 단체와의 연락조정, 상의하달 하의상통, 자료조사 및 모집

■ 연성부

- 국민신앙과 : 국체의 본의 투철, 국민신앙의 지도, 국민사상의 통일,
- 연성과 : 지도자 연성, 기타 일반 연성

■ 실천부 :

- 사봉과 : 사봉대, 애국반의 지도, 기타 근로보국운동,
- 임시생활과 : 전시생활의 확립, 저축장려, 후생, 군인원호

■ 홍보부

- 홍보과 : 선전 계발
- 문화과 : 황도문화의 보급, 문화기구의 정비강화, 출판물의 편집발행

■ 징병후원사업부

- 서무과 : 부 내의 서무 및 회계 경리, 징병후원위원회
- 보급과 : 군사사상의 보급 철저, 조선 징병사정 소개 기획 및 실시
- 사업과 : 징병후원사업의 기획 및 실시
- (징병후원위원회)

총장 한상룡(韓相龍)

차장 겸 총무부장 칸규우(簡牛凡夫)

연성부장 오야(大家虎之助)

실천부장 시게마츠(重松巖修)

홍보부장 쓰다 스요시(津田剛)

징병후원사업부장 손영목(孫永穆)

차장 아마카스(甘粕重太郎) (1944년 8월 18일)

총무부장 이토 켄로우(伊藤憲郎) (10월 26일)

9. 1944년 12월 1일

[사무국 총장 - 차장]

- 총무부
 - 서무과 : 행사, 서무·문서·인사·회계·경리, 타 부와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
 - 기획과 : 회의, 각 부 소관사항의 종합기획 및 연락조정, 각급 연맹 및 애국반의 지도, 행정기관 및 각종 단체와의 연락조정, 상의하달 하의상통, 국민운동에 필요한 자료의 모집 조사 연구
 - 홍보과 : 선전 계발, 문화사상전, 출판물의 편집발행, 국어보급
- 실천부
 - 연성과 : 국민신앙, 연성
 - 전시생활과 : 전시생활의 지도, 저축 장려, 건민운동
- 근로부
 - 사봉과 : 사봉대의 지도, 근로 관리개선의 촉진, 증산운동
 - 근로과 : 근로정신의 계배(啓培) 양양, 근로동원의 협력, 근로원호
- 병참후원부
 - 보급과 : 군사사상의 보급
 - 사업과 : 징병 후원, 군인 후원

총장 한상용

차장 아마카스(甘粕重太郎)

총무부장 이토 켄로우(伊藤憲郎)

실천부장 마즈모토 마코토(松本誠)

근로부장 초본연기(草本然基)¹³⁾

병참후원부장(겸) 아마카스(甘粕重太郎)

V. 연표(국민정신총동원운동 이후)

1938년

- 2월 시국대책준비위원회 결성되어 국민정신총동원의 건 심의
- 4월 도지사회의에서 미나미 총독 ‘국민운동의 통제강화’, 오노 정무총감 ‘국민정신총동원에 대해서’ 훈시
- 6월 내선 유력자 10명을 정신총동원운동 준비위원으로 위촉
 - 발기인준비회 개최
 - 발기인회 개최
- 7월 창립총회 개최
 -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발회식 개최
- 9월 전선 도연맹 조직 완료

13) 정연기(鄭然基)의 창씨명

- 각 도연맹 대표자 및 가맹자 집합, 타합회 개최
- 10월 비상시 국민생활 개선기준 결정
- 12월 가와시마 대장 총재로 부임
 - 시중회(時中會) 해산으로 동 회 소유 경성부 삼청정의 건물 정덕원(正德院)을 연맹에 기부

1939년

- 3월 연맹 사무국을 남미창정으로 이전
 - 연맹의 회장 결정
- 4월 연맹규약과 기구 확충에 대해 미나미 총독과 가와시마 총재가 동시에 담화 발표
- 5월 임원총회 개최
- 7월 국민정신총동원연맹 깃발식 결정
 - 조선연맹 행진가 결정
 - 『총동원』편집위원회 설치
- 8월 한해로 미곡절약운동 개시
 - 정신총동원운동연맹에 추진대 신설
- 9월 가와시마 총재 연합청년단 총재로 부임
 - 조례 제2조에 따라 공익단체로 인정받음

1940년

- 1월 애국반의 기관지 『새벽(曉)』 35만부 발간
- 3월 라디오 정기방송으로서 '정동의 시간' 실시
 - 학교 교직원을 통해 정동운동을 추진
- 5월 청년단에 국민정신총동원 보급부 설치
 - 사무국 내 직제를 개정하여 총무, 기획, 선전의 3과를 설치
- 7월 가와키시 중장 전임고문으로 취임
- 8월 『새벽(曉)』을 『애국반』으로 변경
- 9월 전시국민생활체제가 확립되어 9월부터 그 강조운동 개시
 - 개선훈례기준 제정
- 10월 신체제요강 발표, 국민총력조선연맹 발족
- 11월 학교연맹 조직요강 결정
 - 정오 묵도 실시 철저의 통첩 발표
- 12월 국민총력 농산촌 생산보국운동 실천요강 발표
 - 본부 연맹에 부인부 설치의 건 지시
 - 하부연맹인 정연맹, 부락연맹의 정비 요강 결정. 도 이하 각 연맹에 부와 상회(常會)를 설치하도록 통달

1941년

- 1월 목욕 재계의 점진적 보급의 건 통첩
총력운동 상공업 지도조직 요강 발표
- 2월 가정방호조합을 애국반으로 통합 결정
- 3월 국민총력조선 광산연맹 결성
상회에 라디오를 이용
- 4월 제1회 연맹이사회 개최
국민총력 수산보국운동 지도요강 발표. 국민총력 조선수산연맹 결성
면포, 수건, 고무신 등의 배급에 연맹 애국반을 활용
부여신궁 어조영 근로봉사 실시
- 5월 연맹 하급조직과 기구 범위를 합하여 저축조합을 설치
총력운동총서 발간
- 6월 만화 '밝은 애국반(朗らかな愛國班)' 발간
- 7월 개선의례기준 제정
국어전해(全解)운동 실시
전시 국민생활 체제강화의 건 통달
- 8월 조선신궁 경내에서 중앙지도자층의 강습회 개최
신상업(新商業) 도덕확립운동 전개
- 9월 국민개로강조운동 전개
- 10월 제2회 연맹이사회 개최

1942년

- 1월 대조봉공일 설정
- 2월 부인계발운동요강 결정
금속류의 특별회수운동 실시
- 4월 제3회 연맹이사회 개최
도부군도 부인지도원 강습회 개최
- 6월 제4회 연맹이사회 개최
- 8월 제1회 친절운동 실시
- 9월 우수한 애국반장 및 정동리 부락 연맹 이사장의 상호시찰 실시
- 10월 국어 보급을 위해 『국어(コクゴ)』 400만부 발행
- 11월 민간인에 의한 연맹사무국 신출발
대동아 문학자 만몽화(滿蒙華) 대표환영 강연회 개최
농업생산보국운동 개시

1943년

- 1월 잡지 『국민총력』 월 2회 발행
- 2월 지방연맹 임원을 선발하여 성지참배단을 파견
- 3월 산업전사결의선양대회 개최
- 4월 청소운동 실시
 - 연맹 사무실 총독부 제3별관으로 이전
 - 제5회 연맹이사회 개최
 - 국민개창(皆唱)운동 실시
 - 일찍 일어나기 운동 실시
 - 군사기본기술 및 지도자 연성회 개최
- 5월 금강산도장 건설
- 6월 미영격멸 국민총력기운동 전개
- 7월 결전생활 철저 요강 결정
 - 지방 각 연맹 대표자를 금강산도장에서 연성 개시
 - 무의면(無醫面) 순회의료반 파견
- 8월 징병제 실시 감사결의 선양운동 전개
 - 해양훈련지도자연성회 개최, 장정 개영(皆泳)운동 실시
- 9월 내선만화(內鮮滿華)연락강화간담회 개최
- 10월 학도특별지원병 응모격려
- 11월 사무국 이전
- 12월 전투기 100기 헌납운동 실시
 - 회사은행연맹 사봉대 결성

1944년

- 1월 상업사봉(商業仕奉) 운동추진위원회 개최
 - 홍보정신대 결성
- 2월 미영격멸국민총력기운동 실시
 - 미영격멸 200기 헌납운동 실시
 - 갑종합격운동 실시
 - 광산 공장연맹 사봉대 지도자 지구별 협의회 개최
 - 광산 공장연맹 사봉대 제1회 개근(皆勤)운동 실시
- 3월 라디오 연맹 정보를 중지하고 매일 오후 9시 보도 이후 연맹홍보방송 실시
 - 징병제 적령자 가족 병영 견학 실시
- 4월 조립운동 실시

- 5월 광산 공장연맹 사봉대 간부 진두지휘 강조운동 실시
 - 상업사봉대 오르그 제정
 - 『애국반』 폐간, 각 도별로 『총력』 간행
 - 조선의 사정소개 및 내지 거주 반도출신 병(兵) 위문격려운동 실시
 - 도연맹 기구 개정
- 6월 냉동 명태 820톤을 농가에 수송배급
 - 제6회 연맹이사회 개최
- 7월 적전(敵前) 총궐기 운동 실시
 - 해원(海員) 원호운동 실시
 - 부읍면연맹 총후봉공회 설치
 - 사봉증산의 노래 결정
- 8월 신사 봉무자의 양성 훈련 개시
 - 징병제 실시에 따른 국어상용전해운동 실시
 - 결전복장 착용 철저 운동 실시
- 9월 국민징용 취지 철저 운동 실시
- 10월 여자필승 노동운동 개시
- 12월 사무국 개조

1945년

- 1월 제7회 이사회 개최

6. 자료

(중략)

1945년 4월 25일 인쇄
1945년 4월 30일 발행

출판승인번호 19호
발행부수 2000부
(비매품)

조선의 국민총력운동사

편저자 모리타 요시오(森田芳夫)

경성부 종로구 광화문동 1번지 국민총력조선연맹
발행인 니시아마(西山力)
경성부 종로구 수송정 27번지

인쇄소 선광인쇄주식회사(경성부 종로구 수송동 27번지)
 인쇄인 후지모토(藤本外次)(경성부 종로구 광화문동 1번지)
 발행소 국민총력조선연맹
 계좌번호 경성29994번

〈출전 : 國民總力朝鮮聯盟編 『朝鮮に於ける國民總力運動史』, 1945년〉

3. 우리 연맹원에게 바란다(정교원 윤태빈 이성근 이원보 등)

발랄진검(潑刺眞劍)한 실천을 기대한다

조선군사령관, 나카무라 고타로(中村孝太郎)

사변 제5년 신춘을 맞이하여 동아의 정세는 더욱 중대 전환이 예상된다. 오늘날처럼 크게 총후국민의 총력 발휘가 긴요하다는 것을 통감한 적이 없다. 조선의 국민총력운동은 고도국방체제의 확립을 목표로 사상 통일, 국민총훈련 및 생산력의 확충을 향하여 혼신의 공부와 노력을 다하여 황국의 미증유의 시련에 대해 획기적인 전개를 도모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바라건대 이런 의의 있는 신춘을 기하여 군관민 일체가 되어 각자 총력을 더욱 발휘하겠다는 결의 아래 무용의 논의나 불평을 일소하고, 종래보다 더욱 철저한 방법과 열의로 총력운동에 발랄진검한 실천을 기대해마지 않는다.

국민총력연맹원에게 바란다

조선연맹 부총재, 오노 로쿠이치로(大野綠一郎)

대일본국민은 항상 천황폐하의 조칙을 간명(肝銘)하여 신자(臣子)로서의 길을 다해야 한다.

현재 사변이 발발하여 폐하께서는 누누이 칙어를 내리셔서 우리 국민의 마음자세를 인도해주셨다. 종래 우리가 전력을 다한 정동운동은 물론, 그로부터 탈화(脫化)된 이번의 국민총력운동도 모두 다름 아닌 이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는 단지 입으로만 외쳐서는 안 된다. 각자가 이를 실생활 위에서 체현해야 한다. 여기에 바로 신도(臣道)의 실천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연맹원은 한시라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총력발휘와 상회(常會)

조선연맹 사무국총장, 가와키시 분사부로(川岸文三郎)

빛나는 황기 2600년을 보내고 더욱이 신세기의 첫걸음을 내디딘 1941년이야말로 모든 연맹원이 더욱

강건한 정신력으로 사직역봉공(私職域奉公)의 마음을 더욱 강화시켜 신체제의 확립, 총력의 발휘에 매진해야 한다. 하지만 총력발휘는 각자의 생업과 일상생활에서 직접 실천하고 구현해야 하는 일이다. 국민 개개인의 실천노력의 총화는 국가국민의 총력이 되어 나타난다.

총력운동은 목소리만이 아니라 실천이다. 애국반장과 각 연맹의 임원은 실행을 솔선하여 독려해야 한다. 진정으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각 연맹과 애국반에서는 매월 필히 상회를 개최하여 실천사항을 간담하고 이야기 나누는 일이 긴요하다. 상회를 거듭할 때마다 각 반원은 열심히 1인 1역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본년 중에 모든 연맹과 애국반에서 상회를 개최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를 통해 고도국방국가체제의 확립을 향해 모든 연맹원이 분기하고 반도의 모습이 일신되어 ‘총력’이 훨씬 향상되기를 염원하는 바이다.

의기(意氣)를 새롭게 하여

조선연맹 총무부장, 오천교원(烏川僑源)¹⁴⁾

지나사변 이후 우리 연맹원의 국책에 대한 협력은 물심 모두 경탄할만할 일이었다. 부분적으로는 원래보다 미진하게 느끼는 점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처음의 이상목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한촌벽지에서도 애국행사가 거행되었고, 또 작년은 재작년의 대한해의 여파로 인한 식량의 부족 때문에 경제방면으로도 원활하지 못한 점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도 한사람의 기아자도 없이 무사히 신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성대(聖代)의 혜택에 따른 것이지만, 연맹원 여러분의 국책에 대한 협력에 의지한 바도 정말 크다. 하지만 본년은 더욱 험난한 시련과 임무가 우리 앞에 닥쳐있다. 즉 신동아건설과 세계평화への 공헌이 그것이다. 어떠한 곤란에 조우하더라도 이 성대한 사업은 완수되어야 한다. 커다란 사업에는 먼저 국민의 커다란 의기가 필요하다. 새해와 더불어 서로 의기를 새롭게 하여 불굴불요(不屈不撓)로 손을 맞잡고 매진하고 싶다.

신애협력의 정신

조선연맹 보도부장, 미야모토 하지메(宮本元)

장기전 하에서 황위팔굉(皇威八紘)에 빛나는 기원 2601년의 신년을 맞이하여 우리 국민은 신세기의 단계에 서서 더욱이 결의를 새롭게 하여 총력의 발휘에 전력을 경주하면서 고도국방국가체제의 확립에 매진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민 각자가 성지(聖旨)에 의거한 만세불역(萬世不易)의 통치 지표인 내선일체의 진의에 철저해야 한다. 또 이러한 신념을 견지하여 서로 간의 신애협력을 기조로 삼으면서 이를 근본정신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꿈에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는 실로 반도 국민총력운동의 가장 중요한 지도정신이자 특색이다.

14) 정교원(鄭僑源)의 창씨명.

열심히 일하자

조선연맹 훈련부장, 시오하라 도키사부로(鹽原時三郎)

우리에게 유일무이한 대목표인 고도국방국가를 하루라도 빨리 완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연맹원의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 여기에 언제 어떠한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물심 모두 동요하지 않는 왕성한 국가국민의 연성이 있고 국민총훈련이 개시된다. 이러한 커다란 목표를 향해 한사람이라도 노는 사람이 있어서는 곤란하다. 서로 생활을 절약하면서 열심히 일하자.

밝고 명랑하게

조선연맹 선전부장, 오테아라이 다츠오(御手洗辰雄)

총력운동은 어디까지나 실천이 첫째여야 한다. 아무리 조직이 완비되고 강령과 요목이 훌륭하게 세워져서라도 실제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백 개의 이론이나 천만의 웅변보다 하루에 1전을 저축하는 편이 훨씬 총력운동으로서 유효하다.

동시에 총력운동을 '불가능한 운동'으로 잘못 받아들이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총력을 발휘하는 것은 적극적인 국민의 양발운동(陽發運動)이지, 절대로 도학(道學) 선생의 음울하고 소극적인 억압생활이어서는 안 된다. 쓸데없는 것은 그만두고 사치는 배격해야 하지만, 국민의 생기는 절대적으로 약동시켜야 한다. 색조가 있어 인생은 광채로 충만하고, 환락이 있어 사회는 명랑해진다. 이를 통해 사람에게는 힘이 넘쳐나고 총력은 저절로 양양된다.

제사의 신여(神輿)는 장렬(葬列)하는 사람이 담당하지 않는다.

유래로 일본국민은 밝고 명랑한 민족이다. 그래서 오직 신(神)으로서의 도(道)가 생겨났고, 계속적으로 생동감 있게 발전하는 나라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성격과 도는 유교와 불교에 의해 상당히 왜곡되었지만, 민족 본연의 성격은 역시 상실되지 않았다.

국가총력의 발휘는 어디까지나 인심을 더욱 밝고 명랑하게 만들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총재의 훈시에 나타난 문자에만 빠져 대국을 보지 못한다면 총력운동은 어렵다. 열심히 일하고 노는 것, 중요한 것은 정도를 잃지 않는 것이다.

메이지 천황의 말씀을 삼가 외우기를

경기도연맹 회장, 스즈카와 히사오(鈴川壽男)

승조필근(承詔必謹)은 신민의 길입니다. 황송스럽게도 메이지 천황께서 「일본의 길」을 통해 민초에게 가르쳐주신 많은 말씀과 대조(大詔)는 우리 신민이 각별히 준수해야 할 대장(大章)입니다. 널리 메이지 천황의 말씀을 삼가 외우기 바랍니다.

친황말씀

길 밖에서 찾지 말라. 세상의 진정한 길은 일본의 길이다.

일어나라 연맹원 여러분이여

충청북도연맹 회장, 이등태빈(伊藤泰彬)¹⁵⁾

황기 2600년도 일본정신의 혈통을 더욱이 갈고닦아 국민감격의 속마음에 찬연한 빛을 남기며 당당히 살아있다. 이렇게 의의 깊은 해를 기점으로 발족한 총력연맹의 장래는 이를 점치건대 참으로 충분하다.

이제 2601년의 빛나는 여명이 다가왔다. 연맹원이여 모두 일어나라. 소아(小我)와 대아(大我)가 착종된 집착적인 잡념에 빠지지 말고 결연히 이를 버려라. 깨끗한 순혈로 더욱 총력에 생기를 불어넣어라. 조그마한 힘 하나라도 누락되지 않는 진용을 견고히 만들어라. 모든 것은 오로지 황국을 위해서!

그리고 작년에 이어 2601년에도 백열(白熱)의 광휘(光輝)를 떨쳐라.

기원 2601년

충청남도연맹 회장, 금천성(金川聖)¹⁶⁾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지금 일본은 위정자에게만 기대는 시대가 아니다. 예전부터 일본은 국민 전부가 떠맡아 일으킨 국가이다. 국난에 직면할 때마다 각고정려(刻苦精勵)하고 좋은 지혜와 인재를 내서 국가를 태산(泰山)과 같이 편안하게 만들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이 한가하게 있을 수 없다. 국가의 현상을 직시하고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 과감하게 정신(挺身)해야 한다. 일본국민에게는 이를 해낼 수 있는 소질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어려움을 구슬로 만들겠다.’는 희망이 용솟음친다. 이것이 우리 연맹원이 기원 2601년을 맞이한 연두의 마음자세이다.

먼저 자기혁신으로부터

전라북도연맹 회장, 이가원보(李家源甫)¹⁷⁾

국민총력운동은 현하 시국에 즉응하여 고도국방국가를 완성하려는 국민적 일대 사업이다. 본 운동의 성패의 열쇠는 우리 국민 각자의 두 어깨에 달려있다. 국민 스스로의 열과 힘과 의기를 쌓아올려야 하

15) 윤태빈(尹泰彬)의 창씨명.

16) 이성근(李聖根)의 창씨명.

17) 이원보(李源甫)의 창씨명.

기 때문에 지금까지와 같이 자기의 형편만을 고려하는 사고방식이나 마치 다른 사람의 일처럼 바라보는 방관적인 태도로 비판적으로 논의하는 자유주의적 잔해를 단연코 청산해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의 신체제, 즉 자기혁신으로부터 출발하여 서로의 주변부터 윤리적으로 고찰하면서 본 운동의 목표에 실생활을 결부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총후국민은 한 몸을 바쳐 군국(君國)을 위해 분전하고 있는 제1선의 장병에게 뒤처지지 않는 결의로 한마음으로 본 운동에 매진해야 한다.

현성(賢聖)에 사숙(私淑)하라

경상북도연맹 회장, 가미타키 모토이(上瀧基)

국민총력운동의 핵심은 신도(臣道)의 실천에 있다. 이론이 아니라 실천에 있다. 총재의 말씀처럼 국민 한사람 모두가 황국신민의 서사를 철저히 실행하면 본 운동의 목적과 합치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본 운동의 지도자는 누구라도 솔선하는 실행자이어야 한다. 백 개의 강연의 가치는 하나의 영화에 불과하다. 지도자는 천언만어(千言萬語)를 낭비하는 설화(說話)에 노력하기보다 먼저 어떤 일이라도 하나의 사항부터 이를 몸소 실행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는 지극히 간명하지만 어려운 일이다. 예전부터 ‘말하기는 쉽다……’고 말한다. 우리 모두는 끝없는 수련을 쌓지 않으면 ‘말하기는 쉽고 행동도 쉽다’는 경애(境涯)에는 도달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 수련의 방법은 어떤 것일까. 별도의 명안은 없지만, 나는 선인명사(先人名士)의 언행록을 읽고 그 선행을 진정으로 배우고자 노력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다 이난공(大楠) 공(公)의 심경과 노기(乃木) 장군의 언행은 우리 모두가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그 한 부분이라도 배우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우리 총재는 항상 불언실행(不言實行)의 모범을 보이고 계신다. 우리도 또한 이를 따라 배우며 매진하지 않겠는가.

강력한 실행

경상남도연맹 회장, 야마자와 와사부로(山澤和三郎)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새롭게 각오해야 할 것은 응소 군인이 기꺼이 신명(身命)을 군국에 바쳐 각자에게 부여된 국방의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신년과 더불어 만민익찬(萬民翼贊), 직역봉공(職域奉公)을 강력히 실행하는 것이다. 말만의 신체제로는 아무 것도 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하기 이전에 스스로를 꾸짖어 묵묵히 실천하는 것에 있다. 공익우선이라는 것도 국가가 있고나서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단지 각자가 이를 피와 몸으로 실행하면 된다. 강력한 실행이야말로 우리 연맹원에게 부여된 신년의 요청이다.

총후에서 산화(散華)하는 기개

황해도연맹 회장, □□□□

빛나는 황기 2601년의 신춘을 맞이하여 삼가 황군의 미영(彌榮)을 기리 받든다. 대동아공영권 확립의 성업은 지난 일화조약(日華條約)의 체결을 통해 일선을 그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금년의 구아(歐亞)에서의 전쟁은 그 결정적 양상을 드러내었고, 이에 대처하는 길은 다름 아닌 국민적 반성과 직역봉공의 실천에 있을 뿐이다. 이 양자를 규결(糾結)하려는 노력이야말로 성전완수의 유일한 열쇠이다. 이를 위해서는 포말적(泡沫的)인 언사의 개재를 허용하지 않는다. 독선을 버리고 공행(躬行)으로 지도해야 하고, 실천을 통해 상하가 하나가 되어 모두 정진해나가야 한다. 진정으로 만나기 어려운 시대에 삶을 바치며 국방의 제1선에 선 반도의 연맹원은 총후에서 산화하겠다는 기개로 국책선상에 누골조심(鏤骨彫心)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바로 이렇게 함으로써 천우(天佑)는 찬연히 신펙(神風)을 비출 것이다.

우리 연맹원에 대한 희망

평안남도연맹 회장, □□□□

1. 대동아건설과 이른바 광고(曠古)의 성업 관철에 매진하는 제국에 때마침 삶을 바칠 수 있는 우리는 행복과 감사의 마음을 정말로 맛보고 싶다.
2. 이러한 감사와 감격을 그대로 멸사봉공으로 나아가고 싶다. 즉 각자 모두가 황운을 부익하겠다는 숭고한 마음으로 각자의 직장에 전심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 노력은 결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폐하를 위해, 국가를 위해, 대동아건설을 위해서라는 고매(高邁)한 마음자세여야 한다. 이는 마치 황군용사가 전장에서 집을 잊고 몸을 버리겠다는 일사보국(一死報國)의 마음으로 불타오르는 마음자세와 같지 않으면 안 된다.
3. 애국반의 활동이야말로 연맹운동의 생명이다.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더욱 상회(常會)의 활용에 힘써야 한다.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며, 서로 돕고 타이르면서 함께 나라를 위해 노력하는 강력한 결속에 의거한 왕성한 실천 활동의 전개를 바라마지 않는다.
4. 본 운동의 완수는 국민 전체의 책무이다. 최근의 무책임한 파괴적 비판이나 방관적 태도를 단연코 배격하고, 모든 도민이 서로 제휴하여 본 운동을 완수하고 싶다.

네 개의 목표

평안북도연맹 회장, 타카야츠 히코(高安彦)

1. 고도국방국가 건설이라는 거국적인 태도를 확립할 것.
2. 최저한도의 생활을 구현할 것.
3. 사치 안일을 배제하고 생산의 확충 업무에 매진할 것.

4. 상주좌와(常住坐臥), 동아 여러 민족의 맹주로서의 긍지를 견지하고, 스스로를 비워 국가의 의사(意思)에 하나가 되겠다는 신념을 파악할 것.

대군(大君)에게 귀일하여 받들자

강원도연맹 회장, 다카오 진조(高尾甚造)

지금 우리 황국은 조국(肇國)의 커다란 이상인 팔굉일우의 이념에 의거하여 세계 신질서의 일환으로서의 동아공영권의 확립이라는 커다란 사명의 수행을 위해 굳세게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성업 완수를 위해서는 국가국민의 총력을 최고도로 결집하여 어떠한 사태에도 신속하고 적확히 대처할 수 있는 고도국방국가체제의 정비, 즉 국민조직의 신체제 확립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 국민총력연맹이 발족되기에 이르렀고, 반도 2,300만의 모든 민중이 전부 그 세포인 애국반으로서 영광스러운 천업익찬(天業翼贊)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사명을 짊어진 우리 애국반원은 자기를 버리고 대군에게 귀일해야 한다.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 국가에 봉사하겠다는 황국정신의 본질에 철저히 하고, 각자의 직역에서 봉공의 지성을 다함으로써 신도(臣道)의 완수에 뜨거운 적성을 모두 바치겠다는 자세를 새해에 굳건히 맹세하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

반성, 극기, 노력

함경남도연맹 회장, □□□

성전 제5년, 빛나는 1941년을 맞이하여 연맹원 여러분과 더불어 삼가 성수(聖壽)의 만세를 바라고 흥아의 성업완수를 기원하는 바이다. 바라보건대 저번에 개조 확충된 국민총력연맹의 기구조직은 하부말단에 이르기까지 정비되었고, 각지에서 연맹대회를 개최하여 국민총력의 사기를 크게 양양시켰다. 하지만 금년은 더욱 철저한 실천을 도모하여 연맹원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철저히 신도(臣道)를 실천해야 한다. 신도의 실천이라는 것은 우리의 비근한 일상에서 시행해야 할 것이 많다. 이를 위해서는 반성과 극기 그리고 노력을 통해 누구라도 가능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연맹 임직원은 물론 우국의 지사가 모두 솔선하여 모범을 보이고 실천운동의 추진력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출전 : 鄭僑源(烏川僑源, 朝鮮聯盟 總務部長), 尹泰彬(伊藤泰彬, 忠清北道 聯盟會長), 李聖根(金川聖, 忠清南道 聯盟會長), 李源甫(李家源甫, 全羅北道 聯盟會長) 等, 「我が聯盟員に望む」, 『國民總力』 第3卷 第1號, 9~16쪽〉

4. 정교원, 쓱쓱 자란다 - 애국반 강화육성 좌담회

정교원(鳥川僑源)

우리 조선의 애국반은 결성 이래 아직 기간은 짧지만 최근 눈부시게 강화 진전되었다. 정말로 무언가가 있다. 더욱이 화룡점정(畫龍點睛)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 조선연맹에서는 모범적인 경성부내의 정연맹 이사장, 구장, 애국반장을 초대하여 애국반 강화육성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기록은 그날의 수확이다. 앞으로 이를 계기로 이러한 모임을 누차 개최하고 싶다.

- 일자 : 1941년 5월 10일 오후 1시
- 장소 : 국민총력조선연맹 누상(樓上)총장실
- 참가자(모임 순)
 - 나카지마(長島龜熙, 三坂 6구 85반)
 - 히라누마(平沼林, □生町)
 - 가네야마(金山武夫, 昭□町 13반)
 - 김재철(金在喆, 中學町 동4구반)
 - 신카이(新開明雄, 太平通 1)
 - 가츠라(桂基準, 三坂 2구 2반)
 - 가미자키(神崎此助, 旭町 1)
 - 사이가(雜賀としえ, 三坂 3구 18반)
 - 나카무라(中村たき子, 三坂 1구 128반)
 - 다케다(武田朝子, 三坂 2구 182반)
 - 요시무라(吉村あさよ, 옥정 1구 7반)
 - 부치카미(淵上種子, 옥정 2구 12반)
 - 오카자키(岡崎たかの, 옥정 2구 6반)
 - 황혜숙(黃慧淑, 장사정 24반)
 - 도미하라(富原□兵衛, 본정 2정목)
 - (사회) 선전부장 오테아라이(御手洗辰雄)
 - (번외) 사무국 총장 가와키시(川岸文三郎)
 - 총무부장 도리카와(鳥川僑源)
 - 경성부연맹 사무이사 고에츠카(肥塚正太)
 - 선전과장 니시아마(西山力)
 - 기타 당 연맹 수 명

애국반이 용화의 가교

【오테아라이 선전부장】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연맹의 업무로 무리한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 또 다시 이렇게 부탁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 좌담회의 목적은 애국반장에게 정연맹의 실제적인 지도를 담당하는 여러분에게 그 실정을 있는 그대로 말하고, 또 당 연맹과 부연맹 혹은 정연맹에 대한 희망을 듣고자 합니다. 또 이를 속기로 남겨 『국민총력』 6월호에 게재하여 모든 조선의 애국반의 참고로 제공하고자 하니 이 점도 포함해 숨기지 말고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애국반이 결성된 이후의 정 내의 상황, 요컨대 주변의 이웃이라든가 관혼상제 혹은 다른 것에 대해 아주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해주십시오. 먼저 가츠라 씨부터……

【가츠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아무튼 옆에 어떤 사람이 왔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것이 거의 없어졌다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용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상회(常會)의 덕분입니다. 저의 희망사항은 반장이나 구장으로서의 희망사항입니다. 매월 반 혹은 구 상회와의 토의사항이 연맹으로부터 내려오지만, 다만 그것을 읽는 것만으로는 확실히 침투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따라서는 마음에 드는 것을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 경우 어디에 중점을 두고 설명해야 하는지 지도원의 해설서를 받을 수 있다면 통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테아라이】 가츠라 씨가 말한 것처럼 모두 그렇습니까?

【히라누마】 역시 그렇습니다.

【가네야마】 우리도 이전에 그런 몇 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화목하고 단결할 수 있을지를 고려한 결과, 그 반 내에 어린아이가 생기면 반원 모두가 저금을 합니다. 조선의 재래의 관습은 첫 번째 돌에는 떡을 만들어 주변에 나누어주거나 또는 이에 대해 돈을 주는 예가 있습니다. 이를 바꾸어 어린아이가 생기면 애국반장이 반원으로부터 얼마씩 돈을 거두어 저금통장을 만들고 부모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를 실행하고 있습니다만, 일석삼조라고 생각합니다. 2~3개월 전부터 실행하고 있습니다만, 이후 부모는 매월 얼마씩 저금하면서 아이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테아라이】 부인들에게 한마디 묻고 싶습니다. 정말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로 실례입니다만, 종래 어떤든 여성들은 남성과는 달리 비교적 이웃과 잘 지냅니다. 우물가 회의라고 욕을 하는 것처럼 미묘한 평가를 하거나 혹은 상대방에게 욕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여기저기에서 자주 들었습니다. 최근에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았나요?

【나카무리】 반 내에 즐거운 일이 생겼을 때는 무언가 주어야 한다고 모두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에 대해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여 좀 더 주어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어 곤란할 때도 가끔 있습니다. 이 점에서 좀 더 철저히 애국반에서 결정한 것을 개인 관계에서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합의사항은 실행해야한다

【오테아라이】 한편으로는 낭비가 줄었지만, 쓸데없는 일이 의외로 생긴 경우도 있네요.

【나카무라】 그런 것은 합의사항 중의 실천사항으로서 분명히 밝혀두면 모든 사람들에게 말할 경우 아주 편리할 것입니다.

【다케다】 우리 반은 6집입니다만, 2집만이 보통 주택이고 4집은 사택(社宅)입니다. 사택에서는 자주 만나고 연락도 잘 이루어집니다. 또 사택이라는 풍조도 있어 사택에서 일이 생겨 무언가 줄 경우, 우리로서는 사택은 사택에서 별도로 주기 때문에 이중인 경우가 있습니다.

【오테아라이】 이에 대해서는 고에츠키 씨가 잘 연구했으면 합니다.

【고에츠키】 아무튼 애국반이 만들어져 이웃과의 만남이 깊어지거나 새로 생기게 된 것은 하나의 진보입니다. 예전에는 타인처럼 지내던 것이 이제 사이 좋게 되었기 때문에 아직 낭비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 잘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카무라】 여성들이기 때문에 우물가 회의가 시작되면 이런저런 소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만, 최근에는 관계가 밀접해져 무심코 한 말이 여기저기로 알려지기 때문에 명랑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서로의 기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억측과 오해가 생겨서……

【오테아라이】 화제를 바꾸어 중앙연맹 혹은 상급 연맹에 대해 이렇게 해달라는 희망하는 점이 있으면 말해주십시오. 먼저 히라누마 씨부터……

【히라누마】 최근 총력연맹이 결성된 이후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애국반의 결성에서도 아주 커다란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町)의 상회(常會)나 애국반의 상회를 개최할 경우, 주로 정신적 지도만을 해왔습니다. 지금 여러 사람이 불평하는 것은 결국 경제문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모처럼 만들어낸 애국반을 앞으로 계속하여 지도해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경제생활과 결부시켜 지도해나가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맹 기구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기구는 거의 관청 중심입니다만, 애국반의 업무가 현저한 실적을 내지 못하는 것은 일부 관리가 각성하지 못한 것도 한 원인입니다. 목소리만 높이고 실행력이 따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인텔리 계급이 각성하고 있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당히 낮은 계급이 각성되어 있습니다. 도연맹은 그렇다 치더라도 제일선의 실행체인 부군면의 연맹에는 유위(有爲)한 인물과 실행력이 있는 인간을 선정하여 별동체가 되어 일하지 않는다면 영속할 수 있을지 어떨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연맹 기구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테아라이】 좋습니다. 히라누마 씨의 이야기에 대체적으로 찬성합니다만, 연맹운동은 아주 큰 정치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문제로서는 현재 조직을 그대로 활용합니다. 왜 주로 관청 사람들이 중심에 섰는지 말하면, 이 운동은 민간의 조직으로 시작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관청 조직을 통해 조직을 만들고, 그래서 점점 민간의 고에츠키 씨와 같은 분 혹은 제2, 제3의 고에츠키 씨가 들어와 민간인이 실제 중심이 되어나아가야 합니다. 처음부터 민간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히라누마】 총력운동은 시골에서는 철저하고, 도회지에서는 그다지 철저하지 못합니다. 경제 위범(違

犯)의 건수를 보더라도 이를 지도하지 않고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법률로 억누르는 것은 늦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지도기관이 필요합니다.

【오테아라이】 원칙적으로 찬성입니다.

아름다운 내선일체의 구현

【신카이】 저는 지금 히라누마 씨의 의견이 정말로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만, 정연맹과 애국반이 관청의 명령에 대해 이것저것 말하는 것은 아주 이전에 지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정연맹과 애국반 그 자체가 살아있는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런 훌륭한 지도자를 두고, 요컨대 실행력 있는 정연맹 이사장 혹은 애국반장을 얻는 것에 큰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에서 현재 아주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내선일체입니다.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내지인만 살고 있는 마을이나 혹은 반도인만 살고 있는 마을 혹은 애국반은 언제라도 곧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을은 3,600명으로 세대수는 600호, 그 가운데 내지인이 242세대, 조선인이 280세대, 기타 지나인이 82세대로 지나인은 애국반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내지인과 반도인은 약 반수 정도 되는데, 이 마을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선일체의 결실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행에 힘쓰고 있습니다만,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금년 2월입니다만, 우리 제7반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7반에 하청자(河淸子)라는 부인이 있습니다. 작년 6월에 남편을 잃고, 2월에는 그 사람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은 가장 큰 20살과 16살 그리고 6살짜리 아이들이 남겨졌습니다. 그 집은 아주 어려웠는데 죽고 난 다음에 알았습니다만, 거주신고도 호적도 알 수 없어서 수속을 하는데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때 제7반의 27세대는 각 세대가 동정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이 반은 내지인과 반도인이 반수로 그다지 유복하지도 않은 반입니다만, 내지인이 중심이 되어 돈만이 아니라 쌀과 간장, 사탕 등 먹을 것을 모두 모아 그들의 뒤를 돌보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당장 먹을 것이 없어 쌀 1두, 장작 1꾸러미, 목탄 1가마, 연탄 1상자, 그리고 현금 몇 원을 보태 당장 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20살 먹은 아들은 자전거집에서 봉공하고 있었지만, 16살 짜리 딸은 아직 직업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난하고 부모도 없고 친척도 없기 때문에 고용해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는 내지인이 보증인이 되어 금천대회관(金千代會館) 안의 식당에서 배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살짜리 딸아이는 아직 어려서 같은 반 사람들이 2개월간 자기 집에서 교대로 밥을 먹여주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하여 남은 밥이 생기면 먹이거나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가지고 가서 먹이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내선일체의 결실을 발휘한 아름다운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3월에 들어와 이번에는 제4반의 다케치(武智)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남편이 죽고 10년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판독불능) 정말로 불쌍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4반의 반장이 앞에 나서 이때야말로 반원이 돌보아야한다고 주장하여 모두가 조금씩 현금을 모아 장례식을 무사히 마쳤다. 2월에는 반도인의 불행이 있고, 3월에

는 내지인의 불행이 생겼는데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내선일체의 결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는지 그저 감격할 뿐이다. 마을 안에 개인 소유인 공지가 있는데, 그 공지를 아이들의 놀이터로 쓰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어떤 반원이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아이들의 놀이터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내선일체의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어릴 적부터 서로 친구가 되도록 내지인과 반도인 아이들을 함께 모여서 놀도록 했습니다. 이것 또한 매우 바람직한 일로 반도에서의 ○○운동의 주안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2반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50여 부락이 있는데, 그 가운데 2곳에 그 부락 사람이 아닌 자들이 출입하고 있었습니다. 조사해보니 도박을 하는 자들이 출입하고 있었는데, 반 안에 그런 옳지 못한 자들이 출입하여서는 곤란함으로 정연맹이 확실히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경찰에 부탁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반도인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반도인 서로는 그런 나쁜 일을 하더라도 결코 이를 말하지 않는 관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나쁜 자가 출입하는 것은 정말로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쫓아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내선의 틈이 조금씩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모두 25개 반이 있습니다만, 상회의 출석률은 80~100%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피치 못할 일이 아니라면 결석하지 않습니다. 그 밖에도 시간을 잘 지키는 것도 실행하고 있습니다. 5분이라도 늦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이처럼 지도자인 반장과 이사, '이사장은 자 나를 따르라'는 의지로 나아가고, 반원도 불평불만을 말하지 않고 서로 격려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테아라이】 부치가미 씨, 부인의 입장에서 정연맹 혹은 경성부연맹에 대해 무언가 바라는 점이 있으면 말하시죠.

아직도 각성하지 못한 사람들

【부치가미】 굳이 다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앞에서도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매월 상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모두 하층에게까지 내려가는 것이 아직 충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의 지도원이 애국반의 상회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셔서 그 달의 결정사항이나 마을에서의 결정사항을 철저히 시행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오테아라이】 요시무라 씨는 어떻습니까?

【요시무라】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오테아라이】 가미자키 씨는 어떻습니까? 부연맹이나 조선연맹에 대해 바라는 것이 있다면……

【가미자키】 부연맹이 결성되고 나서의 정황은 방금 히라누마 씨나 가츠라 씨가 말씀하신 것에 찬성하고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와키시 총장 출석】

【가와키시】 아침부터 회합이 있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가미자키】 우리 반은 50개가 있고, 인구는 4천명을 조금 넘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일반적으로 화류계

에 관계하는 자들이 많고, 관리나 회사원도 있습니다만 상인은 적습니다. 이처럼 정말로 복잡하고 다양한 생화상태로 미사카(三坂) 주변과 같은 단일적인 마을과는 달리 잘 통일되지 않습니다. 요리점과 음식점은 늦게까지 열고, 관리나 회사원은 빨리 자고 빨리 일어나는 극단에서 극단에 걸쳐 있어 실로 어렵습니다. 그래도 연맹이 결성될 당시부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깊이 하여 노력하고 잇기 때문에 즐거울 뿐입니다. 하지만 종래부터 살펴보면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관리는 보통 사람보다 감각이 더디다고나 할까 열심히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애국반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관리야말로 출선하여 공행하겠다는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관리라 하더라도 상층부는 비교적 잘 합니다만, 오히려 하급관리가 확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희망은 정오의 묵도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사이렌으로는 1분간, 라디오에서는 20초입니다만, 이를 통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1분간이라는 것은 너무 길다고 생각합니다. 묵도하더라도 과연 무엇을 목표로 묵도하는지 잘 모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전지(戰地)에 나가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무운장구를 기원하고 전몰장병의 영령에 감사를 드린 다음에는 달리 말할 것도 없고 무의식중에 단지 머리를 숙이고 있으면 1분간이 지겨워집니다. 그리고 라디오의 사이렌 소리도 없는 편이 잡념에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히라누마】 어제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만, 평안남도에서 하고 있는 묵도 시에 외우는 말, 그 염사(念詞)를 실제로 해보면 20초도 걸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요시무라】 우리도 1분은 길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오테아라이】 1분이 길다는 의견이 많습디다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1분간의 묵도는 길지 않다

【오테아라이】 이는 연맹의 지도위원회 석상에서도 문제가 되어 30초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기술적으로 30초로 한정하면 사이렌이 잘 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1분간 정도 하지 않으면 그 커다란 소리가 나오지 않는 듯합니다.

【히라누마】 아침의 궁성요배는 30초 정도가 아닙니까?

【오테아라이】 같을 것입니다. 라디오와 통일하는 것이 좋겠네요.

【나가시마】 단지 형식적으로 한다면 15초라도 좋겠습니다만, 정말로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이 전지에 서 싸우고 있거나 혹은 전사했다고 생각하면 1분간이 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테아라이】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황혜숙 씨에게 묻겠습니다만, 연맹을 지도하시는 사람은 가와키시 각하를 비롯해 내지의 노련하다고 말하면 어폐가 있겠습니다만, 요컨대 남성들은 부인에 대해 그다지 알지 못합니다. 반도인 측의 생활이나 풍습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여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거나 바꾸었으면 하는 희망이 있습니까?

【황】 그렇네요. 저는 저의 반에 대해 약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테아라이】 그러시죠.

【황】 제가 반장으로 위촉받은 것은 작년 12월로 정동의 구조개혁 이후 얼마 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 무렵은 출석자가 아주 적었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은 집을 일일이 방문하여 남편이 여의치 않으면 필히 부인이 출석하도록 이야기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정회의 통지가 가면, 반원으로부터 자진해서 ‘시간은 몇 시인가’라는 말을 묻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매일 한 번씩 동지가 즐겁게 모여 이런저런 일을 상담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오테아라이】 그래요. 즐겁게 하네요.

【황】 저의 반은 그다지 유복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만, 다른 반의 세 배 정도 애국저금을 하고 있습니다. 2월에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조금씩 모아 7원 50전의 국방헌금도 냈습니다. 희망사항이라면 별로 말씀드릴게 없습니다만 최근 물자의 부족으로 부 및 연맹은 대용품을 장려하고 있습니다만, 대용식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강사를 각 마을에 보내 월 1회 정도 강습하든가 혹은 몸빼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테아라이】 어떻습니까? 반 내의 부인들은 취지를 잘 알고 있습니까?

【황】 처음에는 알지 못해 곤란했습니다. 특히 술집에서는 잘 알지 못하여 곤란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모임도 잘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쌀의 매출표에 반장의 도장이 없으면 쌀집에서 쌀을 건네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이동(異動)도 조사하고 있고, 그 밖에도 다양한 배급이 있기 때문에 꼭 모입니다.

【오테아라이】 그렇군요. 상회에 나오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이네요.

【히라누마】 제가 있는 곳에서는 그러한 인쇄물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상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주지 않겠다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오면 반원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실물을 보여줌)

【황】 내선일제라는 것도 잘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인력거를 끄는 불량청년이 있어 늙은 부친도 돌보지 않고 술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부친이 죽어도 장례식에 나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에 내지인들이 앞장서서 어떻게 해야 한다면 기부금을 모아 여러모로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손 놓고 있을 수 없어 기부금을 모으고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이후 그 청년은 몰라볼 정도로 착해져 최근에는 술을 마시지 않고 열심히 일하게 되었습니다.

【오테아라이】 좋은 이야기네요. 그리고 애국반의 상회에서는 주로 무엇을 말합니까? 예를 들면 2~3일 전의 상회에서는……

【황】 부에서 결정한 사항과 정으로부터의 사항을 잘 알 수 있도록 말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결혼한 사람들은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낭비가 생기기도 합니다. 약간의 주의로 물건을 낭비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반의 상회에서 이야기합니다. 조선의 가정에서는 가을이 되면 김장을 담급니다만, 여기에 소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조금 담그면 소금물을 버리고 맵니다만, 최근에는 버리지 않고 다음에 담그는 집에 주고 있습니다.

상회의 개최방식과 그 방법

【오테아라이】 감사합니다. 좋네요. 다음으로 오카자키 씨에게 한마디 부탁하고 싶습니다만, 상회를

개최하는 방법, 출석자의 권유라던가 상회를 어떻게 열면 좋을지 사는 곳이 아사히쵸(旭町)이니까 잘 되지요?

【오카자키】 저의 반은 여행이나 병이 들지 않은 이상 전부 출석합니다.

【오테아라이】 경우에 따라서는 부인만 별도로 하는 곳은 없습니까?

【황】 우리는 부인만입니다.

【오테아라이】 별도로 말입니까?

【황】 아닙니다. 별도로 아닙니다만……

【오테아라이】 남성은 나오지 않습니까?

【황】 그렇습니다.

【김】 남성은 아침에 일이 있을 때는 밖에 나가 일해야 하기 때문에 여성이 집안일을 한다는 의미에서 여성이 하고 있습니다.

【오테아라이】 어떤 순서로 하고 있습니까?

【오카자키】 우리는 먼저 궁성요배를 하고 이어서 묵도 그리고 황국신민의 서사를 합니다. 이어서 결정사항에 들어가 대체적으로 한꺼번에 말하고 모두로부터 이런저런 의견을 들은 다음, 마지막으로 다음 상회 날짜를 정한 다음 헤어집니다.

【오테아라이】 회합의 경우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오카자키】 우리는 단지 차만 마시기 때문에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오테아라이】 차 값으로서 5전씩 가져오는 곳은 없습니까?

【황】 우리는 정회로부터 전부 폐지하라는 것 때문에 차도 마시지 않습니다.

【사이가】 우리 반에서는 작년 1월부터입니다만, 20전씩 가지고 와서 그 가운데 10전은 그날의 당번 집에 과자 값으로 내서 전병을 사고, 나머지 10전은 저금으로서 적립하여 마을 내의 경사나 불행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구별 없이 일률적으로 3원으로 결정하였고, 이에 대한 답례는 전혀 없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보통 병에는 아무 것도 주지 않습니다만, 입원했을 경우는 역시 3원을 위문금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오테아라이】 고에츠키 씨, 상회 비용은 아무 것도 정하지 않았나요?

【고에츠키】 정하지 않았습니다. 방석부터 차까지 가지고 가는 곳도 있습니다. 비용은 쓰지 않는다는 것이 명분입니다.

상회 회장(會場)은 교대로

【오테아라이】 회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이가】 우리는 처음에는 우리 집에서 했습니다만, 그러면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최근에는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요시무라】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일 때마다 30전씩 가져옵니다만, 이를 모두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필요한 자재를 사거나 경사나 불행한 일이 생기면 지출하고 있습니다.

병이 들면 어느 정도의 병에 지출할 것인가가 문제이고, 입원이 정해져도 가벼운 것도 있고 입원하지 않더라도 무거운 환자도 있기 때문에 모든 병에 지불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오테아라이】 출석 시간은 엄수하고 있습니까?

【요시무리】 아주 심하게 말하기 때문에 잘 지키고 있습니다. 모임 때는 모두 모임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 정도 전에 모두 모이고 있습니다. 상회가 끝나면 좌담회를 엽니다. 일이 있는 사람은 그대로 돌아갑니다만, 다른 사람들은 남아 좌담회를 엽니다.

【황】 지난 달까지는 7시 반에 개최했습니다만, 8시까지 오지 않는 사람에게는 10전씩 벌금을 받아 그것으로 방공연습에 사용할 사다리를 사고 있습니다. (웃음)

【가네야마】 이전에는 지각하는 자가 있었습니다만, 저번 달부터 라디오 방송으로 개최하게 되어 모두 모이게 되었습니다.

【오테아라이】 그렇네요.

【황】 너무 빨리 모여도 당번 집에서 곤란함으로 개최 5분 전에 모이게 하였습니다. 상회는 라디오에 맞추어 개최합니다.

【오테아라이】 가와키시 각하, 라디오 상회의 운용에 대해서 라디오에 맞추는 편이 어떤가라는 이야기입니다마.

【오테아라이】 상회는 국민총동원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라디오를 이용할 수 있는 곳에서는 꼭 라디오를 이용했으면 합니다. 방송의 방식도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청결히 하고 싶은 뒷골목

【황】 그리고 이는 부에 대한 희망입니다만, 종로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뒷골목 부근은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아무튼 빨리 인부를 독려하여 깨끗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오테아라이】 (고에츠카 씨에게)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황】 변소도 잘 치우지 않습니다. 돈이라도 주면 잘 치웁니다만, 말로는 잘 듣지 않습니다. (‘정말 나쁜 버릇이 생겼다’ ‘곤란하구나’라는 소리가 터져나옴)

【오테아라이】 상회의 운동, 애국반의 강화라는 것에 대해서 특히 주의할 점을 듣고 싶습니다. 누구부터라도 좋습니다.

【가네야마】 라디오 상회는 제1방송과 제2방송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만, 이를 제1방송으로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어제도 국어로 총독부 사무관이 말한 다음 또 조선어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하나로 통합하여 조선어 통역을 붙여서 시행하면 어떨까요? 이전에는 제2방송에서는 제일 처음 궁성요배의 호령만으로 최경례(最敬禮)라는 호령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 언제까지나 그대로 서있었습니다. 그러면 묵도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 점을 주의하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가와키시】 애국일의 상회 방송은 제1방송, 제2방송 모두 동시에 같은 것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2방송에서는 강화가 끝나고 나서 조선어 통역도 방송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어가 필요한 사람

은 처음부터 제2방송에 맞추어두면 되겠습니다.

【오테아라이】 다음으로 애국반의 강화법에 대한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김】 애국반 상회가 과연 어느 정도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관혼상제 시에 어느 정도 절약을 실행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제가 있는 곳에서는 쌀의 매출표에는 7일의 상회에 애국반장이 검사하여 검사인을 찍고 있습니다. 만약 그 검사 도장이 없다면 쌀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국반 상회에 나오지 않으면 검사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쌀을 살 수 없습니다. 반장 집에 가서 도장을 찍어달라고 부탁해도 너는 상회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대용식을 먹이라며 도장을 찍어주지 않습니다. 너무 가혹하지 않게 하루 정도 지나면 쌀을 내줍니다만, 그런 일이 있는 다음부터는 잘 모입니다. 그리고 마을이 더러우면 마을 청소도 애국반원이 공동으로 합니다.

【오테아라이】 신가이 씨, 어떻습니까?

애국반의 강화, 출석이 제일

【신가이】 저는 애국반의 강화라는 것에는 먼저 출석을 잘 하는 것이 첫째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제가 있는 태평통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그러한 인쇄물을 발행하여 여기에 상회의 통지, 황국국민의 서사, 임원의 씨명, 뒤에는 국위선양, 신궁신사참배, 금주금연, 정오의 묵도와 같은 것을 쓰고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이를 갖도록 했습니다만, 그 이전은 250~280명이 출석했던 것이 이후는 430~490명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를 애국반장이 가지고 다니면서 개회 하루 전날 혹은 전전날에 반원에게 배포합니다. 그래서 애국반의 상회도 80~100% 출석률로 변했습니다. 애국반은 8구까지 있습니다만, 각 구에서는 애국반 상회의 기록을 남기고 결정사항 등도 쓰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를 마지막으로 이사인 저나 이사장이 검열하여 단지 도장을 찍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하나 감상을 써둡니다. 만약 결정이나 요구가 있다면 회답을 씁니다. 예를 들면 ‘열심히 감사한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기 바란다’든가 ‘출석자가 반수에 달하지 않는다. 매우 유감이다’고 씁니다. 조선의 모든 애국반에도 이러한 방법을 쓴다면 더욱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테아라이】 미야하라 씨는 어떻습니까?

【미야하라】 저는 본정 5정목입니다만, 우리 마을에서는 2개월 이전의 애국반 상회부터 부인에게 맡겨두면 안 되겠다는 이야기가 나와 반장은 꼭 남성이 맡고 상회에도 가능하면 남성이 출석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인들은 별도로 부인부를 만들어 그 다음 날이라도 연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부인들에게 맡겨두었기 때문에 부인의 세력이 강하여 아무래도 남성으로 바꾸는 일이 아주 어렵습니다. 지금 1~2명의 반장만을 남성이 맡고 있고, 나머지는 그대로인 상태입니다. 오늘과 같이 반의 업무가 바쁘고 복잡해지면 아무래도 남성이 주가 되어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가정방호가 부인의 손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애국반의 업무가 이에 덧붙여진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인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지만, 그렇다면 철저히 일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남성이 맡는다 하여도 내용을 잘 모릅니다. 부인들이 사정을 잘 알고 있고, 일에도 익숙해있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남성이 하도록 하지 않으면 결국 철저히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츠라】 반의 상회에는 아직 아무래도 가정방호조합의 특성이 남아있습니다. 미사카에서도 처음에는 부인들만의 회합이었습니다만, 꼭 남편들이 나와 주었으면 합니다. 가능하면 부인과 동반하여 출석하도록 합시다만, 잘 되지 않습니다.

【오테아라이】 좀더 여러분의 자량을 부탁드립니다. 다케다 씨, 부착합니다. 미사카는 조선에서도 유명합니다만……

【다케다】 특별히 신기축이라고 말할 것은 아닙니다만, 마을 안에 집도 들어서지 않은 초원이 있습니다. 야채도 최근 새로운 것을 먹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그 공지를 제공받았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지주도 공감하여 한사람의 인부도 쓰지 않고 모두 손으로 개간하여 자신들의 손으로 공동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 등을 재배한다고 분주합니다만, 취미와 실익을 함께 얻을 수 있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부(府)는 1평이라도 공지가 있는 자는 신고하라, 토마토나 가지를 심겠다는 통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힘을 얻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파종기가 되어 올 것이 왔습니다만 단(段)에 하나 정도의 비율밖에 되지 않습니다. (웃음) 이는 경성부에서도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남은 것을 주었을 것입니다. (웃음) 그렇게 해서는 맞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이 여러모로 분주하게 심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상급연맹은 명령만 내릴 뿐 결말을 내리지 않습니다. 목소리뿐 결실은 없습니다. (웃음) 아무래도 상급연맹에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하의상달의 의미에서 이는 꼭 생각해주기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아무튼 심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비료가 손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어 부역의 잔반으로 어떻게 했습니다만, 그러한 상태로 1평의 원예의 장려도 좋지만, 비료가 하나도 없이는 곤란합니다. 어떻게든 싼 가격의 비료가 손에 들어올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무리한 부탁일지도 모르지만……

【오테아라이】 이는 꼭 주의해야겠네요. 목소리만 내서는 안되겠습니다. 또 누군가 하실 말씀은?

이웃은 같은 집안

【고에츠키】 사이가 씨, 한마디 덧붙일 말씀……

【사이가】 저의 반에서는 과수의 봉투를 붙이고 있습니다. 15집입니다만 모두가 일치하여 공동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과수협회로부터 얼마든지 받아준다는 하기 때문에 집을 볼 사람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사람 이외는 모두 나와서 공동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집을 볼 사람이 없다는 사람에게는 집에서 가능한 종이접기 등을 하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주 능률도 올라 저번에는 3만개를 출하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학교가 아동의 신사참배를 장려하고 있습니다만, 반원 아이들의 참배에는 필히 반원의 누군가가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제1 일요일과 제3 일요일에 참배하고 있습니다. 종이붙이기는 모두가 가정경제를 이야기하면서 가능하기 때문에 서로 아주 계몽하기 좋은 것이고, 서로 마음에 있는 것을 숨기지 않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모든 이웃이 한집안과 같은 기분이 되어 즐겁습니다.

【고에츠키】 천 매가 1원 30전입니다. 이를 방공호의 자금으로 사용합니다.

【부치카미】 저도 견본을 받아 반의 상회에서 상담한 다음 뿌리고 있습니다. 1일 3천매를 만들고 있습니다. 누가 사줄 것인가가 문제인데, 오늘 좌담회에 출석하여 미시카의 관계자에게 물어보았습니까만, 과수협회를 소개해주시면 안 될까요?

【사이가】 과수협회에 전화를 걸면 그 쪽에서 받으려옵시다만, 3천매 정도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3만매를 기준으로 삼아 3만매가 만들어지면 통지합니다. 그러면 운송업자가 와서 두 박스로 만들어 가져갑니다.

【부치카미】 하루 밤에 3천매이니까……이는 다른 반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3만매 정도는 곧바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에츠키】 하지만 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구멍이 나서는 안 되니까……

【부치카미】 잘 하고 있습니다.

【가츠라】 우리도 종자가 오지 않기 때문에 애국부인회로부터 종자를 5알 배급받아 심었습니다. (웃음)

【가미자키】 아무튼 목소리뿐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테아라이】 그러면 이쯤에서 고에츠키 씨의 한 말씀을 듣지요.

신사참배표를 출석표로

【고에츠키】 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오늘은 아주 즐겁습니다. 새로 만난 분도 계시지만, 실지를 방문하고 만난 분도 있습니다. 각 방면을 저 혼자 돌아다니면서 한 두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세검정 정회에 갔습니다만, 3백호 정도인데 모두가 모여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곳에는 산 속의 부락도 있기 때문에 아직 충분히 정비되어 있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아주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보면서 이것만은 다른 곳에 유례가 없는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매월 1일의 출석표, 이것이 신사참배표가 되고 있었습니다. 5월의 출석표는 4월 초에 건네고, 집안의 누군가가 필히 4월 중에 신사를 참배하여 참배 도장을 받습니다. 그것이 5월 1일의 출석표가 됩니다. 그 산에 올라가 내려와도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출석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출석표는 여러모로 중시되는 좀 다른 방식입니다. 이런 것을 하고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전원이 출석하는 것 같습니다. 내지인은 불과 2호밖에 없습니다만, 이밖에도 7,5,3의 상회도 상당히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언가 하나가 분명히 정돈되면 앞으로의 일도 잘 이루어지는 것 같고, 부락의 기분도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아사히초(旭町) 23정목의 상황입니다만, 매월 구회, 반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써서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또 결석한 사람들의 이유를 아주 상세하고 쓰고 있습니다. 또 행사가 각 반마다 아주 면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용산구는 다른 곳과는 달리 그곳의 출장소에서 고안하여 각 정에서 부로 보내는 호적부와 동일한 것을 마을사람 전부에게 하나하나 상세히 신고하도록 하여 이를 인쇄하고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없이 출입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조선인도 내지인도 원적부터 무엇이든지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마을의 기초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다른 것도 아주 엄격히 이루어져 하루의 출석표가 있습니다만, 그날의 출결을 조사하

여 곧바로 복사판을 만들어 각 반에 통지합니다. 당신의 반에서는 누가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로써 출석도 아주 좋습니다. 오카자지초(岡崎町)는 그러한 호적부를 2책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부에서 하는 업무와 동일한 것입시다만, 이것이 완성되면 마을의 기초가 만들어 집니다. 대체적으로 이와 같습니다만, 지금 경성부에서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경성부의 주변 부락이 지금까지 정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정비하기 위해 작년 가을 무렵부터 주로 이 방면에 손을 쓰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정비되었지만, 모두 정비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성부의 중앙부는 그다지 손을 쓰지 않고 때때로 나가는 정도입니다. 오늘날의 운동의 기초는 아무래도 액구반에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실천의 도장이고, 일역일심의 도장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커다란 운동의 진정한 성과를 올릴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애국반의 강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경험도 축적되었고 지금부터 더욱 앞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위 성상운동(盛上運動)으로 매월 결정사항을 논의하는 것만이 아니고, 친한 사이와도 의견을 나누어가고 싶습니다.

또 하나 이전에 후루이치초(古市町)에서 고구마를 팔아 한 달에 110원 90전의 이익을 올려 국방 현금을 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반인지 궁금하여 나가서 조사해보았습시다만, 가이드를 낸 곳의 반은 8호밖에 없어 원래는 조금도 통제가 되지 않았습시다. 곤란하다고 생각하여 반장을 바꾸었습니다만, 이번 반장은 아주 열심히 하면서 군고구마 가제도 부인들의 발기로 가이드 밑에 가게를 내서 그 정도의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라도 잘 되어간다면 기뻐하고 있었습시다.

【오테아라이】 그럼 총장 각하, 말씀하십시오.

【가와키시】 오늘은 여러모로 유익한 이야기를 들어 아주 고맙습시다. 제 이야기의 속기는 필요 없습니다. (속기중지)

여러 가지 배운 것

【다케다】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시다만, 아이들의 상회를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의 반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미사카에서는 다른 반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듯합니다. 아이들도 어릴 적부터 훈련해두지 않으면 정말로 철저해지지 않습니다.

【오테아라이】 좋습니다.

【황】 저도 한 두 마디 덧붙이겠습니다. 상식을 가진 자는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조선의 풍습으로서 여성은 결혼하면 '좋은 집 며느리가 밖에 나가는 것은 창피한 일이다'고 생각하여 생각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저도 작년 초 무렵에는 이런저런 말을 들었습시다만, 잘 시어머니께 말씀드려 시국을 인식시켜 허락을 받았습시다. 이런 점을 잘 말하여 조선의 부인 모두가 일하기를 바랍니다.

【오테아라이】 고맙습시다. 여러분 장시간 열심히 말씀해주셔서 고맙습시다. 조선의 모든 애국반의 참고가 될 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아주 도움이 되었습시다. 정말로 많은 용기를 얻었습시다. 저는 과연 연맹의 파수꾼으로써 지금까지 정말로 잘 하고 있는지 몰랐습시다만, 오늘 이야기를 듣고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전 : 烏川橋源, 「스스스育つ愛國班強化育成座談會-1941년 5월 10일 午後1時,
國民總力朝鮮聯盟 樓上總長室, 『國民總力』第3卷 第6號, 4~22쪽〉

5. 동민회를 접수하다

국민총력조선연맹으로

내선용화, 대동아주의의 구현을 목표로 1923년 4월 15일 창립 이후 민간단체로서 한 길로 목표달성에 매진해 온 동민회에서는 이번 시대의 대세에 즉응하여 반도에서의 일대 국민운동인 총력운동을 더욱 강대히 하고자 자진해서 발전적으로 해소할 것을 본부의 방침으로 결정하였다. 이의 접수에 관해서는 국민총력조선연맹 당국과 진중히 절충 증인바 최근 원만히 협정이 성립하여 동 회에서는 지난 4월 23일 오전 10시 반부터 금천대회관(金千代會館)에서 히라바야시(平林) 회장 이하 회원이 출석하여 해산총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출전: 「同民會な接收す-國民總力朝鮮聯盟へ」, 『國民總力』第3卷 第6號, 92쪽〉

Ⅲ. 조선임전보국단

1. 흥아보국단

1) 흥아보국단 설립준비회 개최에 관한 건

경고검비(京高檢秘) 제2372호

사상계검사 차석검사 검사정(檢事正)

1941년 8월 25일

경기도경찰국장

경무국장 앞

경성지방법원검사정 앞

각도경찰부장 앞

관하각서장 앞

흥아보국단 설립준비회 개최에 관한 건

(8월 21일부 경고비제 2155호에 대하여(시국에 대한 반도인 유력자의 동정에 관한 건))

수제(首題) 준비회를 지난 8월 24일 오후 3시부터 관하 경성부 장곡천정 조선히텔에서 개최되었는데 전선 반도인 유지 51명의 참회자(參會者)가 있었고, 오후 9시 15분 무사히 종료하여 산회하였는데, 그 상황은 다음과 같다.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기(記)

24일 오후 3시 주최 측 이동치호(伊東致昊)¹⁾, 한상룡(韓相龍), 하산무(夏山茂)²⁾ 등 전선(全鮮) 반도인 유지 51명이 회장(會場)인 조선히텔에 모였다. 내빈으로 국민총력조선연맹사무국총장 가와키시 분사부로(川岸文三郎)의 임석이 있고, 개최에 앞서 조선신공에 참배하고 이동치호가 일동을 대표하여 옥곶봉존(玉串奉尊) 참배를 바치고 다시 회장에 돌아왔다. 오후 4시 35분 설립준비회를 하산무의 사회로 개최하고 국민의례 후 고원훈이 좌장에 이동치호(伊東致昊) 추천하여 일동이 찬성하였다. 이동치호가 의장석에 도착하여 인사로 “우리들은 반도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시국하에 적성(赤誠)을 피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그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므로 대표 각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엇인가의 방법을 결정하고자 하므로 내임(來臨)을 원하는 상황”이라는 취지를 말하였다. 이어서 고원훈이 경과 보고로,

1) 윤치호(尹致昊)의 창씨명.

2) 조병상(曹秉相)의 창씨명.

“현재 우리나라는 초비상시에 있다. 사변 이래 우리 조선인은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봉공의 성의를 다하여 왔지만 제1선 장사(將士)의 분투에 생각을 경주해야할 때이며, 또한 성전(聖戰) 5년에도 불구하고 반도인이 어떠한 부자유없이 생업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충성스럽고 용감한 장병들과 국운의 융성에 감사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이러한 때 우리 조선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진충(盡忠)의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어떠한 것을 해야할 것인가. □□□□ 석상에서 시국에 활력 및 무엇보다도 현재 상황으로는 중단할 수 없다고 말하고 그 후 가끔 회담하여 연구한 결과를 총독부 지시를 받기로 하고, 이후 지금까지의 경과를 상세하고 설명하여 참석자의 양해를 구한 후에 의사(議事)에 들어갔다.” 요항 별첨한 제1호를 김용린(金庸麟, 박흥식 비서)가 낭독하고 박흥식이 설명하고 좌장이 그것을 일동에게 발표하였다.

현준호(玄俊鎬, 전남) : “흥아봉공단(興亞奉公團)의 명칭은 동아(東亞)를 하나의 단체로 한 감이 있는데 조선 또는 반도라는 자구를 사용하면 어떠한가.”

임창수(林昌洙, 충남) : “본 훈련소 입소자격자 가운데 사상이 불건전한 자를 입소시키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데, 자구(字句)에 한정하지 말고 넓은 의미로 변경하는 것은 어떠한가.”라고 질문하자,

고원훈(高元勳) : “명칭은 생각해보고자 한다. 사상이 불건전한 사람을 입소시킬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데 본단(本團)은 소수의 지도자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사상관계는 별도의 기관이 있다고 생각한다.”

김명학(金明學, 함남) : “본 사업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는 반도인 상층계급의 신용문제에 있다. 중앙 집중주의보다도 지방 분산주의로 하는 것은 어떠한가. 경찰순사교습소 같은 것은 적어도 2,3개월에 인물이 만들어지는데, 초등학교졸업자 150만명 전부를 훈련시키려면 어떻게 1인당 백원의 예산으로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지방 건물 등을 이용하라. 청년에게는 혹 희망을 갖게 하지 않으면 지도는 불가능하며, 청년대와 마찰이 일어나는 일은 없겠지만, 만일 마찰이 있다면 청년층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고원훈 : “먼저 1기만은 중앙에 두기로 하고, 서서히 지방의 적당한 장소에 설치할 예정이다.”

평거희적(平居熙迪³⁾, 평북) : “내 체험으로는 일시적으로 훈련을 받아도 표리가 일체되지 못하고 부족한 감이 있다. 이것들에 의거하여 50만 원으로 하더라도 효과가 염려된다. 중앙단체만으로 하지 않고 보육제도와 같이 지방분산하라, 국민학교 교원이나 배속장교를 이용하여 전선의 청년 전부를 황국신민화하라. 3개년에 3만인 정도의 청년을 훈련하여 어떤 효과가 있는가.”

고원훈 : “총독부의 청년훈련소와는 취지가 다르므로 먼저 중앙에 설치하는 것이다.”

강원기양(江原基陽⁴⁾, 강원) : “본 취지에는 찬성한다. 지방분산은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중앙에서 오직 지도자를 양성해야할 것이다. 일본정신을 체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년정도 입소시키자.”

3) 이희적(李熙迪)의 창씨명.

4) 박보양(朴普陽)의 창씨명.

등등의 의견이 많아서 정리하기가 어려우므로, 좌장이 요항(要項) 및 예산 등은 준비위원회에 위임함이 어떠한가라고 자문하니 일동이 찬성하였다. 다음으로 취의서(별지 제2호)를 김용린이 낭독하니 만장일치로 원안에 찬성 가결하여 준비위원 선임에 들어갔다. 좌장의 명에 따라 하산무로부터 목산봉진(木川鳳鎭)⁵⁾ 등 60명(별지 제3호)를 지명함에 역원수가 많으므로 소수로 하여 실천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등의 논의가 있어 갑론을박하다가 결국 좌장의 지명대로 승인하였다.

발기인의 선정은 준비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으로 하고, 황국신민의 서사를 제창하고 한상룡의 선창으로 '천황폐하만세'를 봉창하고 오후 6시 40분 폐회하여 만찬을 하였다. 같은 날 8시 10분부터 같은 곳에서 제1회 준비위원회를 이동치호를 좌장으로 하여 개최하였다. 하산무의 동의로 좌장을 위원장으로 만장일치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방의석(方義錫) 등 20명을 상임의원으로 지명하고 강령 및 예산규약 등의 심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자문하였는데, 만장일치로 원안을 찬성 가결하여 결정하였다. 이어 박홍식으로부터 경비거출방법으로 각각 재산에 따라 2천 엔이상 2만 엔까지 거출하여 200만 엔을 모을 예정이라는 말이 있었다.

하산무가 발기인은 각도에서 공직자 중등학교교장 등(반도인)을 선임하여 본월 말일까지 사무소로 보고할 것과 발회식은 다음달 중순경 거행할 예정이라는 취지를 말하였다. 내일 지원병훈련소를 견학하는 것에 대해 자문했는데 찬성자가 극히 소수였기 때문에 발회식 당일 견학하기로 했다. 동 8시 15분 위원회를 종료하고 영화(일본뉴스, 조선뉴스, 문화영화)를 감상하고 동 9시 15분 무사히 종료하여 산회하였다.

〈참고사항〉

지방 참회자(參會者)는 중앙 재주자의 행동에 어떤 야심이 있는 것 같은 의혹을 잠재적으로 품고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2천 원 이상의 거출은 상당히 곤란할 것 같아 내심 불평이 있었지만 공개석상에서는 이것을 발표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것 같고, 상당히 불만을 품은 자가 있는 것 같이 생각되었다. 한편 준비회에서는 갑론을박 발기인 측을 신용할 수 없는 듯한 태도가 있지만 만찬석상에서 가와키시 총장이, “협력일치로 모두 찬성하여 본단을 결성하고 다음날이라도 사업을 개시하자”라는 충고적인 격려인사가 있었으므로 일동의 심경은 조금 누그러져서 급속하게 모든 원안에 찬성하게 되었다. 요컨대 민간만의 사업이라고 하면 이것의 수행에 종종 의혹을 잠재적으로 품는 자가 있을 우려도 있으므로 총독부 및 총력연맹 등의 적극적인 지도를 더하지 않으면 방도가 다난(多難)하고 혹은 생각지도 않은 방면으로 이행할 우려도 있어서 소기의 목적달성은 곤란하다고 생각된다.

5) 박봉진(朴鳳鎭)의 창씨명.

〈별지 제1호〉

흥아보국단(가칭)의 운동요강안

제1 목적과 조직

1. 시국하의 황국신민으로서 적성을 가지고 그 본분을 다하여 임전체제에 대비할 목적으로 하며, 그 운동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황국정신의 양양
- (2) 강력한 실천력의 발휘
- (3) 시국인식의 철저와 그 대응결의
- (4) 근로보국의 실행

2. 본 운동은 민간의 자발적인 애국운동으로 동지를 규합하여 행할 것.

3. 본 운동은 먼저 3개년을 제1차로 하여 계획하고 이후는 정세에 따라 이것을 결정할 것

4. 본 단은 국민총력조선연맹에 참가하고 동연맹의 □□을 받을 것.

5. 본 단에 단장, 부단장 및 이사를 둘 것

6. 본 단에 총무, 훈련, 사업의 3부를 둘 것.

본단의 본부는 경성에 두고 각도에 소요의 역원을 배치한다.

역원의 원수는 별도로 이것을 정하다.

제2 사업

1. 본단은 전향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할 것

- (1) 훈련소의 설치
- (2) 계도장(稷道場)의 설치
- (3) 필요한 애국사업

2. 훈련실시 요령

훈련소는 동경에 설치하고 흥아보국훈련소라고 명명하고 본과, 특과, 별과의 훈련을 다음 사항에 의거하여 실시할 것.

다만 입소자의 결장, 훈련방법에 대해서는 총독부 당국의 지도를 받을 것.

■ 본과 : 근로보국대원 양성

자격: 사상건실, 신체 강건하고 국민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

연령: 18세에서 30세

인원: 1회 300명

기간: 30일

회수: 연 10회(연 3,000명 예정)

■ 특과 : 지도자연성

자격: 사상 건실, 국민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지방에서 중견지도적 인물로서 정신(挺身) 활동 가능한 사람.

연령: 25세에서 45세까지(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는 사람은 예외로 입소를 인정한다.)

인원: 1회 100명

기간: 2개월

회수: 년 5회(년 500명 예정)

■ 별과 : 특별훈련자의 연성

자격: 특히 본 훈련소에 입소를 희망하는 자

연령: 제한 없음

인원: 1회 50명 이내

기간: 20일

회수: 연 10회 이내(년 500명 이내)

3. 계(稷)의 수업

위치: 경성 남산 부근에 설치

수업 인원: 1회 약 100명 이내

기간: 2일 내지 5일

회수: 항시적으로 실시 예정

4. 필요한 애국운동

국민총력실천운동의 촉진에 기여하기 위해 특별히 다음의 사업에 중점을 둘 것.

- (1) 국방자재 및 자원의 공출 및 헌납운동
- (2) 청소년학생, 부녀자의 노무총동원운동
- (3) 저축의 실행
- (4) 기타 애국적 운동

〈별지 제2호〉

흥아보국단 설립취의서

아국은 지금이야말로 유사 이래 미증유의 가장 중대한 시국에 직면하고 있는데 동시에 또한 가장 숭고존엄한 동아공영권 확립의 성업 완수의 한창 때이다. 이때 생(生)을 황국에 누린자는 자는 그 어떠한 사람을 막론하고 그 본분에 따라 그 최선을 다하여 국운의 진전에 기여해야할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가을을 맞이하여 우리 반도민은 과연 이대로의 태세(態勢)에서 좋을 것인가. 물론 우리들은 사변 이래 물심 모두 국가에 바치고 굳이 남에게 뒤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온 것은 중외가 모두 인정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 초비상시를 만나 안온(安穩)하게 이 생을 영위할 수 있는 국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한편으로 제일선에서 황군의 장병이 폐하의 만세를 계속 높이 제창하면서 조용히 죽음에 나가는 자 몇 만이 되는지를 생각하면 우리들은 아직 국가에 보답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도저히 이 대로는 있을 수 없고 무엇인가 마음의 근저로부터 강하게 느끼는 바가 있다. 이것이 바로 2천 4백만 반도인이 공통으로 느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강하게 믿는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가령 우리들은 특별지원병 외에 일반적으로 병역에 복무하는 명예스러운 기회를 갖지 못했지만, 모두 적성으로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체력이 다할 때까지 바쳐 충후봉공에 한층 철저함으로써 충렬(忠烈)한 장병의 분투에 대신하는 것만이 황은의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는 길이 될 것이다. 즉 이 실천이행(實踐履行)에 따라서 우리들은 진중보국의 적성을 피력하고 황국신민의 실(實)을 현현(顯現)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이렇게 하여 반도가 물심양면으로 제일선에 대한 병참기지라는 진가를 발휘하는 것은 이 기회를 빼고는 다시없다고 믿는다. 이에 우리들 발기인은 결코 쉽지 않은 한 기구로서 흥아보국단의 설립을 기도하니, 넓게는 반도 2천4백만 제군에게 미충(微衷)을 호소하기 위함이다.

우리의 취지를 찬성하고 근심을 같이 할 뜻을 함께 하도록 하는 강호의 제사(諸士)는 신속하게 참여하고, 이 애국운동의 발전조성에 전폭적인 힘을 다할 것을 간절히 바라마지 않는다.

1941년 8월 24일
발기인 일동

〈별지 제3호〉

준비위원명부(경칭은 생략함)

경기도		이름
	상임	이동치호(伊東致昊)
	상임	한상룡(韓相龍)
	상임	고원훈(高元勳)
	상임	민규식(閔奎植)
	상임	김연수(金季洙)
	상임	박흥식(朴興植)
	상임	하산무(夏山武)
	상임	오천교원(烏川僑源) ⁶⁾
	상임	가산린(佳山麟) ⁷⁾
	상임	금천성(金川聖) ⁸⁾
		박택상준(朴澤相駿) ⁹⁾
		이가진호(李家軫鎬) ¹⁰⁾
		원촌조(元村肇) ¹¹⁾
	상임	김사연(金思演)
	상임	오촌승우(梧村升雨) ¹²⁾
		김성수(金性洙)
		오궁선(吳兢善)
		유억겸(俞億兼)
	상임	양원주삼(梁原柱三) ¹³⁾
	상임	이병길(李丙吉)
	상임	대산광설(大山光高) ¹⁴⁾

		임명재(任明宰)
		최남선(崔南善)
		서원종린(瑞原鍾麟) ¹⁵⁾
	상임	금전명(金田明) ¹⁶⁾
		백산청수(白山靑樹, 시라야마) ¹⁷⁾
		목하영근(木下永根) ¹⁸⁾
		정원규복(井垣圭復) ¹⁹⁾
	상임	금원방광(金原邦光) ²⁰⁾
		국산시권(菊山時權) ²¹⁾
		손영목(孫永穆)
		이규원(李圭元)
		옥천진순(玉川鎭淳) ²²⁾
		유만겸(俞萬兼)
		목산봉진(木山鳳鎭) ²³⁾
		금영태훈(金永泰勳) ²⁴⁾
충북		이명구(李明求)
		남헌(南憲) ²⁵⁾
충남		임창수(林昌洙)
		금정갑순(金井甲淳) ²⁶⁾
전북		금전영무(金田英武) ²⁷⁾
		최승렬(崔承烈)
전남	상임	현준호(玄俊鎬)
		문재철(文在喆)
경북		장원직상(張元稷相) ²⁸⁾
		대봉병조(大峯丙朝) ²⁹⁾
경남		금자전간(金子典幹) ³⁰⁾
		이은우(李恩雨)
강원		강원기양(江原基陽) ³¹⁾
		환산용준(丸山隆準) ³²⁾
황해		발산병덕(鉢山丙德) ³³⁾
		금전기수(金田基秀) ³⁴⁾
평남	상임	안성기(安城基) ³⁵⁾
		김건영(金健永)
평북		평거희적(平居熙迪) ³⁶⁾
		이영찬(李永贊)
함남		방의석(方義錫)
		김명학(金明學)

합북		장간헌사랑(張間憲四郎) ³⁷⁾
		금산소능(金山韶能) ³⁸⁾

〈출전: 「興亞報國團設立準備會 開催ニ 關スル件(京高秘 第2372號)」, 1941년 8월 25일
『思想ニ關スル情報綴』(13)〉

-
- 6) 정교원(鄭僑源)의 창씨명.
 - 7) 최린(崔麟)의 창씨명.
 - 8) 이성근(李聖根)의 창씨명.
 - 9) 박상준(朴相駿)의 창씨명.
 - 10) 이진호(李軫鎬)의 창씨명.
 - 11) 원진상(元憲常)의 창씨명.
 - 12) 이승우(李升雨)의 창씨명.
 - 13) 양주삼(梁柱三)의 창씨명.
 - 14) 서광설(徐光堯)의 창씨명.
 - 15) 이종린(李鍾麟)의 창씨명.
 - 16) 김명준(金明濬)의 창씨명.
 - 17) 김동환(金東煥)의 창씨명.
 - 18) 방영근(朴永根)의 창씨명.
 - 19) 한규복(韓圭復)의 창씨명.
 - 20) 김동훈(金東勳)의 창씨명.
 - 21) 김시권(金時權)의 창씨명.
 - 22) 유진순(劉鎭淳)의 창씨명.
 - 23) 박봉진(朴鳳鎭)의 창씨명.
 - 24) 김태훈(金泰勳)의 창씨명.
 - 25) 남상철(南相喆)의 창씨명.
 - 26) 김갑순(金甲淳)의 창씨명.
 - 27) 김영무(金英武)의 창씨명.
 - 28) 장직상(張稷相)의 창씨명.
 - 29) 서병조(徐丙朝)의 창씨명.
 - 30) 김경진(金慶鎭)의 창씨명.
 - 31) 박보양(朴普陽)의 창씨명.
 - 32) 최준집(崔準集)의 창씨명.
 - 33) 민병덕(閔丙德)의 창씨명.
 - 34) 김기수(金基秀)의 창씨명.
 - 35) 이기찬(李基燦)의 창씨명.
 - 36) 이희적(李熙迪)의 창씨명.
 - 37) 장헌근(張憲根)의 창씨명.
 - 38) 김정석(金定錫)의 창씨명.

2) 구체화하는 우국애민운동(기사)

구체화하는 우국애민운동, 명칭은 흥아보국단 작일(昨日), 본부 연맹 관계자와 발기인 측 원안(原案)을 협의

우국애민(憂國愛民)의 크나큰 생각을 가지고 경성의 유지들이 께기하여 총후애국운동을 전개시키기로 되어 이동치호(伊東致昊)옹의 관계자들이 그동안 자주 구체적 방침을 협의하였다함은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은데 어제 19일에는 다시 이 관계자 일곱 사람과 총독부 국민총력연맹 측의 관계자들이 모여 발기인측의 원안(原案)을 중심으로 의논하여 이를 구체화하기로 하였다. 아직 결정까지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대체로 명칭은 흥아보국단으로 하고 취지는 황국정신의 함양과 시국인식을 철저히 시킴과 동시에 근로훈련을 적극적으로 하여 자발적 애국운동으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하였다.

어제 총독부에서 회의를 열고 발기인회로부터 애국운동의 내용을 제출하고 총독부와 국민총력연맹의 후원을 힘입기로 되었는데 이 애국운동을 지도해나가는 단체로서 흥아보국단을 조직하여 훈련연맹에 가입하며 자발적인 애국운동으로서

1. 황국정신을 드러내어 총후봉공에 매진하고
 2. 강력한 실천을 위하여
 3. 시국인식을 철저히 해서 멸사봉공의 정신을 가지고
 4. 근로보국에 총후의 의기를 보일 것을
- 을 취지로 하였다.

그리고 이 보국단에는 단장과 부단장을 두고 사업기구로는 총무부(總務部), 훈련부(訓練部), 사업부(事業部)와 3부를 두고 사업으로서는 흥아보국훈련소(興亞報國訓練所)를 신역(神域)인 남산 부근에 신설하고 청소년과 장년층의 훈련과 '미소기'와 시기에 적당한 애국사업을 널리 하기로 하고 우선 앞으로 3년간을 제1차 사업 기간으로 정하였다.

〈출전: 「具體化하는 憂國愛民運動, 名稱은 興亞報國團 - 昨日, 本府, 聯盟關係者와 發起人側 原案을 協議」, 『매일신보』, 1941년 8월 20일〉

3) 총후조선의 열의를 반영(기사)

총후조선의 열의를 반영, 2천만이 협심육력(協心戮力) 흥아보국단의 역사적 발족 불원(不遠)

중일전쟁이 일어난 당초에 나타났던 반도인들의 열렬한 애국심은 긴박한 현 시국하에 다시금 나타나 지금 저 반도에는 우리나라는 애국의 열정에 불타서 병기의 헌납, 헌금, 폐품의 회수 등 여러 가지 총

후 미담과 기□가 나타나고 있는 바인데 이러한 민심에 따라 지난 5일 이동치호(伊東致昊) 씨 이하 민간 유력자가 솔선하여서 민중의 임전체제 강화를 제창하고 미나미(南) 총독, 오노(大野) 정무총감을 방문하고자 그 열의를 피력하였는바 여기에 대하여 총독과 총감은 전폭의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않겠다는 격려가 있어 드디어 근근 흥아보국단(興亞報國團)이 탄생되기로 되었다. 그리고 이 보국단의 결성준비는 국민총력연맹과 긴밀한 연락을 다하여 가면서 지난 23일에 조선히otel에서 전선의 유력자가 모인 다음 구체적 검토가 있었으며 이어서 25일에는 경성 부민관에서 각 방면 각층의 지도자를 망라한 임전체제협의회(臨戰體制協議會)가 개최되는 등 참으로 반도 민중의 자발적 협력실천의 총력 태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보국단 탄생으로 씩씩한 건설적 진진을 애국의 대목적을 목표로 하고 있느니만치 강력한 □□□이 나타나가지고 □□적은 물론이며 총독부 당국으로서도 이 보국단의 □□하고도 원만한 탄생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절대적인 지원의 태도를 가지게 되었고 총력연맹에서 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천명하고 있으므로 보국단의 참된 사명이 될수록 천리 전선(全鮮)의 방방곡곡에 미쳐가므로 반도 백성이 시국인식을 깊이하여 끓어오르는 황국신민으로서의 열의 아래 탄생이 실현되기를 요망하고 있다. 오늘날까지의 준비경과는 이 요망에 의하여 순조로운 진척을 보이고 있으므로 반도인들이 바라고 있는 보국단의 탄생도 드디어 멀지 않아 힘찬 출발을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임전대책협력의 설전대선(舌戰大鮮)에 동원, 오는 9월 4일은 경성에서 제일성(第一聲)

날로 중대화하여가는 시국에 대응하여 반도 2천 4백만 민중을 총후전사로 총동원시켜야겠다고 지난 25일 밤 부민관에서 경성의 각계 인사 백여 명이 모여 임전대책협의회(臨戰對策協議會)를 열었다는 것은 기묘한 바이어니와 이 자리에서 선정된 위원 35명은 다시 28일 오후 6시부터 경성 호텔에서 제1회 위원회를 열고 장차 순서적으로 일으켜 나갈 여러 가지 운동방침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임전대책협의회를 '임전대책협력회'로 이름을 고쳐서 이를 상설기관으로 만드는 동시에 반도 민중들의 결의를 □□질 하기 위하여 전선 각지에 유세(誘說)행각을 하되 그 힘찬 제1성으로 9월 4일의 부민관에서 임전대책연설회를 열기로 되었으며 역시 9월 초순에는 백여 명 위원이 가두로 나가서 '꼬마' 채권을 파는 등 각계 명사들이 일선에 서서 반도의 총후운동을 지도하여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이날 위원회는 이동치호(伊東致昊) 가산린(佳山麟) 이가진호(李家軫鎬) 서원종린(瑞原鍾麟) 씨 등 20여 명이 모인 중에서 처음 국민의례가 있던 다음 이동치호 씨 사회를 맡아 의사를 진행하였는데

“반도 민중의 총후 운동을 일으켜 나갈 대책의 방침과 방향은 여러 번 협의한 결과 이미 결성된 터이라, 이로써 이미 임전대책협의회의 목적은 달성하게 되었으니 회의 명칭을 고치자”

는 제의에 따라 '임전대책협력회'라고 이름을 고치는 동시에 이것을 상설기관으로 하여 장래 민중운동을 지도하여 나갈 기초를 완성하였다. 다음 위원회 진행을 정비하기 위하여 만장일치로써 위원장에는 가산린(佳山麟) 씨를 추대하고 동씨를 보좌하여 책임지고 일해 나갈 상무위원장의 지명으로써

(중략)

이들 11씨가 피선되었다. 다음 일반 민중을 총후 전사로 동원시키기 위하여 전선 각지에 연설회를 열기로 되었는데 그 제 일정으로 9월 4일 오후 6시부터는 부민관 대강당에서 □□과 가□□□로 임전대

책 강연회를 열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민중을 지도하자면 지도층에서 솔선 실천하므로써 일반에게 모범을 보여야겠다고 9월 초순에는 이등치호, 가산린(佳山麟), 이가진호 씨 등 전회원이 가두로 총 출동 하여가지고 1원짜리 ‘꼬마’ 채권을 □□민에게 팔아 저축보국의 지성을 다하기로 결정하고 오후 9시경에 산회하였는데 본 회의 선언(宣言), 강령(綱領), 규약 등은 상무위원회에서 추후 결정 발표하기로 되었다.

□□□□

- 극동(極東)의 결전(決戰)과 오인(吾人)의 열정(熱情) - 이등치호
- 우리는 □□□하였는가 - 가산린(佳山麟)
- 태평양 풍운의 전망 - 신흥우
- 동경(東京) 대판(大阪)은 이렇다.- 신태약
- 승전(勝戰)의 길은 여기에 있다 - 박인덕
- □□□□□을 보라-□□□
- 30년 전의 회상-서원종린
- □□□□이 말하라 - □□□□

〈출전: 「統後朝鮮의熱意를 反映 二天萬이協心戮力-興亞報國團의歷史的發足不遠 臨戰對策協力の 舌戰隊全鮮에動員 來九月四日은 京城에서 第1聲」, 『매일신보』, 1941년 8월 30일〉

4) 총력의 임전보국단 합동위원회서 결성 결의(기사)

총력의 임전보국단 합동위원회서 결성 결의, 민(閔) 김(金) 박(朴) 3씨는 기금 20만 원 제공

지난 3일 흥아보국단(興亞報國團)과 임전대책협의회(臨戰對策協議會)의 두 단체가 천안(川岸) 조선 연맹 총장의 알선으로 반드시 2천 4백만 민중이 일심일체가 되어서 같은 국가 목적을 향하여 더욱 실천적이며 강력한 애국운동을 일으키자면 합동하여서 조선임전보국단(朝鮮臨戰報國團)을 결성하여 발을 맞추어 비상시국에 봉공하겠다고 굳게 결의한 바 있었는데 그동안 준비 위원 13인이 열심히 준비하여 오던 중 작년 11일 오후 4시부터 부내 경성 호텔에 이등치호(伊東致昊), 가산린(佳山麟), 금천성(金川聖) 씨 등 33인이 모여서 최초로 쌍방연합위원회를 열었다. 청산백수(靑山白樹) 씨 외 사회로 이가진호(李家軫鎬) 씨가 회장이 되어서 회의 원만히 진행되었는데 전번 두 단체가 회의에서 결정된 활동안이 이날 두 단체에서 전원이 모인 뒤 원안의 승인을 얻어 내일 결정하게 두 단체가 발을 맞추어 걸어 나가게 된 것은 시국을 위하여 진실로 경하스러운 사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쌍방 연합위원으로는 재래의 두 단체의 위원이 결단식을 낭게 될 때까지 그대로 유임하고 다시 가산린(佳山麟) 고원훈(高元勳) 김연수(金季秀) □□□ 민규식(閔奎植) □□□ 박흥식(朴興植) 청산백수(靑山白樹) 금천성(金川聖) 박기효(朴基孝) □□□씨등 12인이 상무위원으로써 모든 일을 맡아보기로 되었는데 위원장으로서는 이등치호, 부위원장으로서는 가산린(佳山麟) 씨가 선발 되었다. 더욱 □기할 것은 이날 모임에 있어서 김연수

(金季秀), 박흥식(朴興植), 민규식(閔奎植) 씨는 자발적으로 조선임전보국단의 사업을 위하여 운동자금 20만 원을 제공하였다 한다.

미성(微誠)에 불과할 뿐! 20만 원을 제공하고 겸손한 3씨

이날 회의석상에서 대금을 제공할 것을 언명하여 일동에게 큰 감동을 준 김연수, 민규식 씨 양씨(兩氏)는 “많지 않은 돈을 이 단체의 사업에 쓰도록 내어놓았다는 것은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라.” 고 겸손하면서 더 말을 하지 않고 다시 박흥식씨를 화신(和信)으로 찾으니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늘 두 단체의 위원이 한자리에 모여서 단시일이거나 여러 가지 파란곡절을 돌파하고서 일심단결이 되어서 지극히 원만스럽게 보조를 같이하게 된 것은 최선의 길이였으며, 동시에 우리들로서도 경하스러운 일이다. 머지않아 발회식을 보게 된 이때에 조선임전보국단의 사업이 2천 4백만 반도 민중 전체에 대한 것이니만큼 우리 세 사람이 너무 많은 금액을 내는 것도 어찌할까 싶어서 의논한 결과 적은 돈이나마 내어놓게 된 것이다. 전 조선 유력자들에게 바라건대 권함을 받는 것보다 어디까지라도 스스로 우리나라는 애국의 정성으로서 많은 돈을 국가사업에 기부하여 우리 반도 민중으로서 안하면 안 될 소기의 목적 달성에 매진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동시에 세 사람이 20만 원을 내어 놓았다는 목적도 결국은 여기에 있는 줄 안다. (사진은 대금을 제공한 민, 김, 박 3씨)

〈출전: 『總力의臨戰報國團 合同委員會서 結成決議—閔 金 朴 三氏는 基金二十萬圓提供』, 『매일신보』, 1941년 9월 12일〉

2. 임전대책협의회(협력회)

1) 임전대책협의회 개최에 관한 건

1-1)

임전대책협의회 개최에 관한 건

경고비(京高秘) 제2397호

1941년 8월 27일
경기도 경찰부장
경무국장 귀하
경성지방법원 검사정 귀하
각 도 경찰부장 귀하
관하 각 경찰서장 귀하

임전대책협의회 개최에 관한 건

관하 경성부 종로 2정목 소재 삼천리사(三千里社) 사장 백산청수(白山靑樹, 金東煥³⁹⁾)가 주최한 수제의 협의회는 이미 보고(국장에게만)한 대로 지난 8월 25일 오후 6시 30분부터 경성부민관에서 사장 김동환의 사회로 개최되었다. 여기에는 최린(崔麟, 佳山麟), 윤치호(尹致昊, 伊東致昊), 한상룡(韓相龍), 조병상(曹秉相, 夏山茂) 등 반도인 각 계층의 유력자 12명이 모여 오후 9시 25분 무사히 종료하였다. 이에 그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통첩 '달')한다.

기(記)

1. 개회사

사장 백산청수(白山靑樹, 시라야마)의 사회로 국민의례를 한 다음, 극동의 급격한 풍운으로 초비상시국에 직면함에 즈음하여 경성의 각 계층 유사(有士)의 참가를 촉구하여 임전대책협의회를 개최한 이유를 말하였다. 신흥우(申興雨)를 의장으로 추거하였고, 의장의 간단한 인사가 있었다. 윤치호는 결의문(별첨 제1호)을 낭독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였고, 이어서 장덕수(張德秀)는 황군에 대한 감사 전문(별첨 제2호)을 낭독하여 만장의 찬성으로 이를 가결하고 의사에 들어갔다.

2. 협의사항

의장은 의제인 '임전체제 아래에서의 자발적 황국신민화운동으로의 실천방책에 관한 건'의 내용인

(1) '물자 및 노무공출의 철저강화책'을 의제로 올리자 최린은 자신의 심경을 말하겠다고 전제하면서 내선일체 및 조선인 2,400만의 황국신민화운동은 조선에서 가장 중대한 문제로서 이는 온전히 위정자가 이루어야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위정자는 별도로 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황국신민이 될 것인가를 항상 가슴 깊이 담고 있다. 또 최근 우국동지 등의 이야기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말하길 자기 자신은 진정으로 황국신민이 되었지만 이를 그 누구도 알아주는 자가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어떤 사람이 대답하길 그것은 표면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우리 반도인은 모두 황국신민이 되었다는 것만은 공통적이지만 아직 부족한 점도 상당히 있다. 진정으로 황국신민이 되기 위해서는 현하 시국 하에서 국가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에 따라 순응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당국이 지시하는 사항을 곧바로 실행하면 된다. 내 자신도 일생을 통해 회고해볼 때, 과거의 최린과 현재의 최린은 바뀌어왔다. 과거에는 오로지 권리만을 주장해왔지만, 어떤 동기를 통해 심경이 변하여 낡은 권리 주장을 뒤로 하고 먼저 의무 이행을 통해 살아야겠다고 다짐하였다. 따라서 우리 조선인은 종래의 권리 주장을 전부 포기하고 의무 이행만을 염두에 둔다면 분명히 자타 모두 진정한 황국신민이 될 수 있다. 오늘날과 같은 비상시는 4-5년 전의 비상시와는 내용에서 운니지차(雲泥之差)⁴⁰⁾가 있

39) 원문에는 金東模이나 오류로 보아 수정하였음.

는 점을 충분히 유의하면서 의용봉공에 매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마디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정치를 비판하거나 공리심을 앞세워 계산해서는 안 되고, 또 대립 관념을 버려야 한다고 말하였다.

■ 윤익선(尹益善)

오늘날은 이론을 반복할 때가 아니다. 긴박한 시국이 되면 구체적 사항을 검토하고 단지 실천만이 있을 뿐이라고 말하였다.

■ 조병옥(趙炳玉)

본 문제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일지사변 처리가 한창 중인데 영미소는 여전히 적성(敵性)을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동양인은 대동아공영권을 확립하기 위해 우리 반도인도 내지인에 뒤지지 않는 적성을 피력함으로써 물심양면을 가리지 않고 성전 완수에 한 마음이 되어 봉공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 이광수(李光洙, 香山光郎)

일한병합 30년 성전 5년이 되었다. 우리 조선인은 위정당국에 대해 무언가를 받들어야 한다. 하지만 국채의 소화(消化)라는 한 예를 보더라도 아직 너무나도 부족하다. 앞으로는 충분히 황국신민으로서의 각오를 견고히 하고 적성의 피력에 아낌없이 무언이라도 바쳐야 한다고 말하였다.

(2) 국민생활의 최저표준화운동방책

■ 이각중(李覺鍾)

앞에서 권리의무에 관한 논의가 있었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는 권리 주장을 하는 데에는 그 수단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요컨대 우리는 도의를 본받아 일본정신으로 귀의하여 살아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황국신민으로서의 의무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문제는 면밀한 조사가 없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수 없지만, 연맹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훈의례준칙에 따라 실시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 함상훈(咸尙勳)

평소에 느낀 점을 두 가지로 나누어 말하면 (1) 국가가 어떤 방침으로 나오는가, (2) 국민 자체가 어떻게 하는가의 문제인데, 주로 국민 자체가 자숙자계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 이극로(李克魯)

정부가 임전대책으로서 어떠한 방침을 정하더라도 당국의 방침에 순응해야 한다. 본 문제를 여기에서 단시간에 이야기한다 해서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전제 위에서 말한다면, 선결문제는 유민(遊民), 부유계급, 여자의 박약한 경제적 지식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들의 사회적인 맹성(猛省)을 촉구하고 최저표준에 도달하는 것 이외에는 없다고 말하였다.

(3) 전시봉공의 의용화 방책

■ 주요한(朱耀翰)

오늘날의 시국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실행이라는 것을 통감하였다. 오늘날의 전쟁은 사상, 경제, 무력 등을 통한 소위 총력전이다. 전쟁은 바로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다. 의용봉공은 논의보다도 실행에 있

40) 사정이 크게 다를 수 있음.

다. 또한 본 기관을 상설기관으로 삼아 전시봉공의 의용화 운동으로 매진해야 한다. 오늘밤 임전대책협 의회를 개최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이상으로 각 제안사항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이어서 의장은 본 협의회를 상설적인 것으로 할 것인지 일시적인 것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상설과 일시적 양론이 나왔는데 결국 거수로 결정하기로 하여 만장일치로 상설로 결정하였다. 이어서 준비위원을 선거하여 의장은 전형위원으로서 이종린(李鍾麟), 김동환(金東煥), 장덕수, 이용신(李容愼), 주요한 5명을 지명 선정하였다. 이들은 위원 별실에서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35명을 준비위원으로 천거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사연(金思演)의 선창으로 황국신민의 서사를 제창하고 이진호(李軫鎬)의 발성으로 성수만세를 봉창한 다음, 오후 9시 25분에 무사히 산회하였다.

기(記)

가산린(佳山麟), 신흥우(申興雨), 이가진호(李家軫鎬)⁴¹⁾, 한상룡(韓相龍), 이동치호(伊東致昊),⁴²⁾ 오촌승우(梧村升雨),⁴³⁾ 김사연(金思演), 조기간(趙基槩), 서원중린(瑞原鍾麟, 이종린), 이극로(李克魯), 하산무(夏山茂),⁴⁴⁾ 유억겸(俞億兼), 이성환(李晟煥), 김약수(金若水), 윤치영(尹致映), 임명재(任明宰),⁴⁵⁾ 원덕상(元惠常), 박인득(朴仁得), 김활란(金活蘭), 박흥식(朴興植), 이병길(李丙吉), 신태악(辛泰嶽), 최두선(崔斗善), 오천교원(烏川僑源),⁴⁶⁾ 방응모(方應模), 최남(崔楠), 장우식(張友植), 백산청수(白山靑樹),⁴⁷⁾ 박기효(朴基孝), 이용신(李容愼), 이용설(李容高), 이종욱(李鍾郁), 한규복(韓圭復), 국산시권(菊山時權),⁴⁸⁾ 금천성(金川聖)⁴⁹⁾

〈별지 제1호〉

결의문

우리는 황국신민으로서 일사보국(一死報國)의 정성을 맹세하고 임전국책에 전력을 다하여 협력할 것을 결의한다.

41) 이진호(李軫鎬)의 창씨명.
42) 윤치호(尹致昊)의 창씨명.
43) 이승우(李升雨)의 창씨명.
44) 조병상(曹秉相)의 창씨명.
45) 원문에는 '任命宰'로 되어있으나 오기로 보아 수정.
46) 정교원(鄭僑源)의 창씨명.
47) 김동환(金東煥)의 창씨명.
48) 김시권(金時權)의 창씨명.
49) 이성근(李聖根)의 창씨명.

발송처

고노에(近衛) 내각총리대신 각하

척무대신 각하

미나미(南) 총독 각하

이타가키(板垣) 조선군사령관 각하

〈별지 제2호〉

감사전문

시국이 긴박해짐에 즈음하여 조선 2,400만 황국신민으로서 몸과 물질적으로 보국의 정성을 다하고, 그 실천방책을 협의하고자 각 계급 120명이 경성에서 임전대책협의회를 개최함에 즈음하여 삼가 귀관 및 부하 장병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포함과 동시에 무운장구와 국위선양을 기원합니다.

1941년 8월 25일

임전대책협의회

발송처

하타(畑) 지나파견군 사령관 귀하

관동군 사령관 귀하

지나방면함대 사령장관 귀하

불인(佛印) 진주 육군최고부대장 귀하

불인 진주 해군최고부대장 귀하

〈출전: 京畿道 警察部長, 「臨戰對策協議會開催ニ關スル件(京高秘 第2397號)」,

1941년 8월 27일, 『思想ニ關スル情報綴』(13)〉

1-2)

임전대책협의회 개최에 관한 건

(8월 27일자 경고비 제2397호에 대해서)

경고비(京高秘) 제2397호의 1

1941년 8월 29일

경기도 경찰부장

경무국장 귀하

경성지방법원 검사장 귀하

각 도 경찰부장 귀하

관하 경찰서장 귀하

임전대책협의회 개최에 관한 건

(8월 27일자 경고비 제2397호에 대해서)

요지

최린(崔麟, 佳山麟) 외 20명은 8월 28일 임전대책협의회 위원회를 경성호텔에서 개최하였다. 최린을 위원장으로 추대하여 앞으로의 운동방침에 관해 협의한 다음, 위원장은 상임위원으로 김동환(金東煥) 외 11명을 지명 선정하고, 이어서 같은 곳에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지난번에 경성의 반도인 측 유력자 등이 모여 임전체제 아래에서의 자발적인 황국신민화운동의 실천방책에 관해 협의한 결과, 준비위원으로서 최린 외 34명을 선거하였다. 이들 위원은 이미 보고한 바와 같이 구체적인 실천운동 방법의 계획에 대해 토의하였는데, 지난 8월 28일 오후 6시 50분부터 관하 경성부 남산정 3정목 소재 경성호텔에서 수제(首題)의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그 상황은 다음과 같고 오후 9시 20분 무사히 산회하였다. 이에 그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통첩 '달')한다.

기(記)

오후 6시 50분 준비위원 가산린(佳山麟), 윤치호(伊東致昊), 신흥우(申興雨), 김시권(金時權), 이종린(李鍾麟), 신태악(辛泰嶽), 김동환(金東煥), 조기간(趙基堧), 박인득(朴仁得), 김활란(金活蘭), 이가진호(李家軫鎬), 이용설(李容高) 외 9명(이들 외에 총독부의 한승린(韓承麟)과 이(李) 방송국원이 출석)이 모였다. 윤치호의 개회사에 이어 김동환은 출석상황에 대해 위원 35명 가운데 21명이 출석하였고, 기타 사고로 결석한 김약수(金若水)는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을 사임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김동환의 제의로 위원장으로 윤치호를 추천하였고, 일동은 만찬을 가졌다. 여기에서 김동환은

1. 상임위원 선정의 건

2. 9월 1일의 애국일에 위원 등이 가두에 진출하여 소위 채권을 판매할 것

3. 강연회 개최의 건

등을 제의하여 협의한바, 모두 찬성하였다. 이어서 위원장은 김동환의 내천(內薦)에 따라 상임위원을 발표하였다. 신흥우, 김동환, 박인득, 박기효(朴基孝), 신태약, 이용신(李容愼), 김사연(金思演), 이성환(李晟煥), 조기간(趙基棨), 임흥순(任興淳), 노창성(盧昌成) 등 11명을 추천 결정하였다. 이 밖에도 협의회의 명칭을 개칭하자는 논의가 있어 이를 상임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였다. 또 이 방송국원은 강연회를 개최할 시는 이를 중계 방송하여 민중이 열렬한 욕성을 잘 듣게 하자고 말하였다. 위원장은 지난 번에 흥아보국단(興亞報國團)이 조직되었는데 오늘 다시 본 협의회가 조직된 것에 대해 일반 민중은 동일한 목적의 두 개의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는 논의가 있지만, 흥아보국단은 주로 청년층을 훈련하고 본 협의회는 전반적으로 국책에 협력하여 혼란이 없도록 하자고 말하며 본 위원회를 마쳤다.

이어서 같은 곳에서 위원장 최린의 사회로 상임위원회를 개최(신흥우, 신태약, 김동환, 조기간, 박인득, 총독부 한승린 등이 출석)하였다.

1. 명칭 개칭의 건에 대해 협의한 결과, 임전대책협력회로 개칭하기로 결정하였다.

2. 선언 강령 규약 제정의 건에 대해서는 기초위원으로서 최린, 신흥우, 신태약, 김동환을 선정하여 기초를 일임하였다.

3. 강연회 개최의 건에 대해서는 9월 4일 오후 6시부터 경성부민관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연사로는 윤치호, 최린, 신흥우, 박인득, 신태약, 김활란, 이종린에게 의탁하고, 연제는 임전대책대강연회로 결정하였다.

4. 부서 결정의 건

김동환의 제안에 따라 총무, 재정, 기획의 3부를 두기로 하였다. 총무부장 신흥우, 부원 신태약·김동환, 재정부장 박기효(朴基孝), 부원 이용신(李容愼)·조기간·임흥순(任興淳), 기획부장 김사연, 부원 박인득·이성환·노창성 등을 각각 추천 결정하였다.

5. 기타

(1) 회원자격 심사는 지난 번 협의회에 출석한 자에게 정식으로 입회신청서를 보낸 다음 결정한다.

(2) 신문 관계자 초대의 건은 앞으로 신문사 간부급을 저녁에 초대하여 후원을 의뢰한다.

이어서 강연회의 연제는 김동환이 작성하여 오는 9월 1일 저녁 연사 등과 경성호텔에 모여 협의한다.

〈출전: 京畿道 警察部長 「臨戰對策協議會開催二關スル件(京高秘 第2397號ノ1)」, 1941년 8월 29일, 『思想二關スル情報綴』(13)〉

2) 임전대책협력회서 가두로 채권봉공대(기사)

임전대책협력회서 가두로 채권봉공대, 내일 70명이 11개소에 동원

지난 4일 밤 부민관 대강당에서 연설회를 열고 총후 반도 민중들에게 애국의 지성으로 국가를 위하여 떨기하라고 부르짖은 임전대책협력회(臨戰對策協力會)에서는 또 다시 7일 오후 1시부터 3시간동안 이동치호(伊東致昊), 이가진호(李家軫鎬), 가산린(佳山麟), 한상룡(韓相龍) 씨와 금천(金川) 본사 사장 등 회원 17명이 경성부내 11개소로 총동원하여가지고 길 위에서 통행인들에게 1원짜리 꼬마 채권을 팔기로 되었다. 이것은 ‘애국운동은 이름보다도 실천이 귀하다’는 협력회의 운동방책을 실천하는 첫걸음으로 친히 가두에 나가서 민중들에게 자발적인 애국지성을 발휘하도록 지도하는 동시에 저축 보국운동에 협력하라는 것으로 뜻 깊은 일이다. 그래서 이날 채권을 팔 때에는 강제로 하지 않고 일반에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자손의 장래를 위하는 마음으로 채권을 사자’는 취지를 철저히 인식시키기로 되었는데 채권 파는 장소와 담당할 회원의 씨명은 다음과 같다.

▲ 종로대(鐘路隊) : 이동치호(伊東致昊) 한상룡(韓相龍) 가산린(佳山麟) 방응모(方應謨) 향산광랑(香山光郎) 백산청수(白山靑樹) 이용신(李容愼) 모윤숙(毛允淑) 영하인덕(永河仁德)

▲ 광화문대(光化門隊) : 박상준(朴相駿) 이성근(李聖根) 민규식(閔奎植) 양주삼(梁柱三) 김성진(金晟鎭) 김동진(金東進) 유억겸(俞億兼) 박영희(朴英熙)

▲ 서대문대(西大門隊) : 신흥우(申興雨) 주요한(朱耀翰) 구자옥(具滋玉) 노창성(盧昌成) 소완규(蘇完奎) 신봉조(辛鳳祚) 고헥경(高凰京)

▲ 황금정대(黃金町隊) : 고원훈(高元勳) 박흥식(朴興植) 장우식(張友植) 이종린(李鍾麟) 부부 박창서(朴彰緒) 김택용(金澤勇)

▲ 남대문대(南大門隊) : 김갑순(金甲淳) 조병상(曹秉相) 원덕상(元惠常) 오금선(吳兢善) 이각중(李覺鐘) 이용설(李容高)

▲ 본정대(本町隊) : 이진호(李軫鎬) 신용옥(愼鏞瑱) 김시권(金時權) 김연수(金季洙) 임흥순(任興淳) 김승복(金昇福) 최정희(崔貞熙) 신태악(辛泰嶽)과 그의 딸

▲ 명치정대(明治町隊) : 김명준(金明濬) 이종만(李鍾萬) 최창학(崔昌學) 이숙중(李淑鍾) 이정섭(李晶變) 이종회(李鍾會)

▲ 경성역대(京城驛隊) : 정교원(鄭僑源) 이돈화(李敦化) 박기효(朴基孝) 송금선(宋今璇) 김사연(金思演) 부녀 손홍원(孫弘遠)

▲ 종로4대(鐘路4隊) : 한규복(韓圭復) 이종욱(李鍾郁) 조인섭(趙寅燮) 이극로(李克魯) 오용택(吳龍鐸) 조대하(趙大河) 외 천도교회 일파

▲ 남대문대(東大門隊) : 윤익선(尹益善) 최원섭(崔元燮) 윤치영(尹致暎) 전부일(全富一) 이정재(李定宰) 함상훈(咸尙勳)

▲ 청량리대(靑涼里隊) : 성의경(成義慶) 정인과(鄭仁果) 홍세뢰(洪世雷) 원익상(元翊常) 조기간(趙基堧) 정광조(鄭廣朝, 가족총동원)

▲ 연락본부(連絡本部) : 이성환(李晟煥) 이규재(李奎載, 화신 사교실내 가족 총동원)⁵⁰⁾

〈출전: 「臨戰對策協力會서 往頭로 債券奉公隊-明日七十名이十一個所에動員」,
『매일신보』, 1941년 9월 7일〉

3) 삼천리사 주최 좌담회, 임전대책협의회, 120인사가 부민관에서 회합 - 임전대책협의회 의사록

금일의 조선인전보국단의 모체인 '임전대책협력회'는 지난 8월 25일에 본사 사장 김동환(金東煥) 씨의 초청으로 사회 각방면 인사 120여 명이 부민관에 회합하여 장시간 토의를 거듭한 뒤 영구적인 상설 기관으로 만장일치 가결, 결성된 것이다. 이제 이날 밤의 의사(議事)를 초록하건대 먼저 초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임전대책’ 협의회 안내장

삼가 아뢰옵니다. 폐사 '삼천리(三千里)'는 이번 귀하를 비롯해 조선의 사상계, 재계, 교육, 종교, 언론, 문화 등 각계 유지 약 200명을 한자리에 모시고 시국이 중대해짐에 따라 '임전대책' 협의회를 개최하여 그 내용을 널리 반도 민중에게 전하여 일대 맹선과 분기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세계대전은 최후적 최대의 장면으로 확대되어 구주 여러 열국은 그야말로 생명을 걸고 사투하고 있고, 우리 일본제국으로서도 언제 어떠한 예측할 수 없는 변국을 극동의 천지에서 맛보게 될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황국 일본의 흥룡은 실로 이러한 난관의 격파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깊이 믿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 반도 민중은 약적(弱敵) 장개석(蔣介石)의 연약함에 너무 길들여져 천하의 대세를 잘못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전 5개년인 지금, 여전히 일부에는 전투적 국민의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지 못하고 준순(淪巡)과 도피 회의(懷疑)의 경향이 있는 것을 정말 통탄해마지 않습니다.

장개석은 약한 적이었지만, 다가오는 적은 결코 약한 적이 아닙니다. 광대한 자원과 멈추지 않는 탄욕(呑慾)을 지니고 있는 이들 적성국가가 만일 일을 벌이는 단계가 되면 이번에는 실로 우리 내선 일역 동포는 철혈의 일단이 되어 문자 그대로 몸과 목숨을 걸고 최후의 결전을 싸워야할 것입니다.

지금 온 나라가 보다 큰 전쟁의 준비를 위해 일역 국민 모두가 일어나 임전체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 스스로는 전력을 모두 발휘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애국공채 소화력의 빈약, 생산확충 사업에 대한 노무봉사의 원만함, 더구나 국민적 충성과 신념, 기개의 부족으로 인해 암거래, 매점 등의 통제 위반, 더군다나 유언(流言)을 살포하여 나라에 화살을 쏘는 등 정말로 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50) 회원 명단은 『민족정기의 심판』(1949)을 참조함.

이러한 사실을 앞에 두고 선각자인 귀하에게 마음으로부터 호소하고자 합니다. 적기가 습래(襲來)하면 ‘학룡산(鶴龍山)’ 주변으로 가서 자기 혼자 난을 피하거나 물자배급의 궁박(窮迫)을 생각해서 1~2년분의 식량을 남몰래 매점하고, 적이 북쪽에서 오면 나서서 격퇴하려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의 남쪽으로 도망가고, 남쪽에서 적이 오면 북쪽으로 도망가려고 계산하는 우매하고 이기주의적인 일부 민중을 귀하의 힘을 통해 맹성시키고 싶습니다. 국가와 더불어 살고, 국가와 더불어 죽겠다는 불퇴전의 용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귀하의 열성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우리 반도 민중 모두가 안으로는 스스로를 깊이 수신하는 자가 되고, 밖으로는 몸과 목숨을 군국에 바치는 충용한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아무쪼록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촌각도 주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도의 완전한 병참기지화를 위해, 또 반도의 무장화를 위해 크게 전진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협의회 개최에 즈음하여 다음 시일, 장소에 꼭 임석하시어 협의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한 당일은 다음 의안의 범위 안에서 이야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준비를 위해 불편하시겠지만 동봉한 엽서에 출결을 회시(回示)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가 아뢰입니다.

의제

1. 임전체제 하에서의 자발적 황국신민화운동을 위한 실천방책에 관한 건
 - (1) 물자 및 노무 공출의 철저강화책
 - (2) 국민생활의 최저표준화운동 방책
 - (3) 전시봉공의 의용화(義勇化) 방책
 (이상)

집회일시

시일 : 8월 25일 오후 6시(시간엄수)

장소 : 부민관 중강당

협의회 출석인사-120명의 씨명 협의회회의 당야 출석인사는 120여씨의 다수로써 그 씨명을 기록하면 아래와 같다. (×는 결석자)		
윤치호(尹致昊)	박흥식(朴興植)	최 린(崔 麟)
한상룡(韓相龍)	송진우(宋鎭禹)×	양주삼(梁柱三)
장덕수(張德秀)	김연수(金季洙)	정춘수(鄭春洙)
신흥우(申興雨)	김사연(金思演)	정인과(鄭仁果)
유억겸(俞億兼)	민규식(閔奎植)	이광수(李光洙)
김성수(金性洙)×	방응모(方應謨)×	최남선(崔南善)×

박희도(朴熙道)	박인덕(朴仁德)	양재하(梁在夏)×
박기효(朴基孝)	홍명희(洪命熹)×	김주익(金周益)
장기식(張驥植)	허 헌(許 憲)×	박영희(朴英熙)
박용운(朴龍雲)	김명하(金明夏)	김약수(金若水)
옥선진(玉璿珍)	윤석필(尹錫弼)	정인보(鄭寅普)×
홍병선(洪秉璇)	이충복(李忠馥)	소완규(蘇完奎)
윤우식(尹宇植)	황청송(黃淸頌)	이승우(李升雨)
백낙준(白樂濬)	김기도(金基道)	유진희(俞鎭熙)
최 남(崔 楠)×	김활란(金活蘭)	김병로(金炳魯)×
윤치영(尹致暎)	김성진(金晟鎭)	이성환(李晟煥)
유광렬(柳光烈)	백인제(白麟濟)	이 인(李 仁)×
심우섭(沈友燮)	정교원(鄭僑源)	신태악(辛泰嶽)
안인식(安寅植)	최창학(崔昌學)	정광조(鄭廣朝)
조인섭(趙寅燮)	여운형(呂運亨)×	전필순(全弼淳)
이정섭(李晶燮)	김명준(金明濬)	김형원(金炯元)
이용설(李容高)	구창조(具昌祖)	김은호(金殷鎬)
이대위(李大偉)	조병학(曹秉學)	조대하(趙大河)
조병옥(趙炳玉)	이영준(李榮俊)×	방규환(方奎煥)
김준연(金俊淵)×	강익하(康益夏)×	장우식(張友植)
김용국(金容國)	유영섭(劉永燮)	임명재(任明宰)
조동식(趙東植)	김우현(金禹鉉)	서정희(徐廷禧)
이종희(李鍾會)	원익상(元翊常)	원세훈(元世勳)
이종욱(李鍾郁)	엄주명(嚴柱明)	김항규(金恒圭)
민석현(閔奭鉉)	노창성(盧昌成)	홍증식(洪增植)
조기간(趙基棐)	이한복(李漢福)	함상훈(咸尙勳)
설의식(薛義植)	허 택(許 澤)	권상로(權相老)
임금순(任兢淳)	한학수(韓學洙)	이훈구(李勳求)
박창서(朴彰緒)	주요한(朱耀翰)	이극로(李克魯)
임흥순(任興淳)	이석구(李錫九)×	손기정(孫基禎)
이승복(李昇馥)×	한상억(韓相億)×	김성권(金星權)
이묘묵(李卯默)×	이서구(李瑞求)	나경석(羅景錫)
장 면(張 勉)	안중화(安鍾和)	박창훈(朴昌薰)
박춘금(朴春琴)×	김승복(金昇福)	손홍원(孫弘遠)
박상준(朴相駿)	최 동(崔 棟)	윤익선(尹益善)
이진호(李軫鎬)	신용옥(愼鏞頊)	정석태(鄭錫泰)
오공선(吳兢善)×	이하원(李夏源)	조준호(趙俊鎬)
고원훈(高元勳)	박승빈(朴勝彬)	이각중(李覺鍾)
이현구(李軒求)	박용균(朴容均)	차재정(車載貞)
서 춘(徐 椿)×	구자옥(具滋玉)	원덕상(元惠常)
한규복(韓圭復)	김여백(金汝伯)	이준렬(李駿烈)
김시권(金時權)	김갑순(金甲淳)×	원효섭(元孝燮)
김기덕(金基德)	김동진(金東進)	정현모(鄭顯模)
현상운(玄相允)	이종린(李鍾麟)	이숙중(李淑鍾)
김동훈(金東勳)	한익교(韓翼教)	송금선(宋今璇)

김성환(金成煥)	전부일(全富一)	조병렬(趙炳烈)
송성진(宋星鎭)	최규동(崔奎東)×	박영근(朴寧根)
이관구(李寬求)×	최두선(崔斗善)×	임병기(林炳基)
이여성(李如星)	정노식(鄭魯湜)	조선용(趙善用)
김인술(金仁述)	이규재(李奎載)	송석하(宋錫夏)
백관수(白寬洙)×	임영신(任永信)	이근택(李根澤)
한용운(韓龍雲)	고황경(高鳳京)	홍세뢰(洪世雷)
이돈화(李敦化)	이갑수(李甲洙)	이춘호(李春昊)
이상협(李相協)	장현식(張鉉植)	이상철(李相喆)
김양수(金良洙)	이보석(李輔錫)	박두영(朴斗榮)
김창제(金昶濟)	전용순(全用淳)	양원모(梁源模)
이병길(李丙吉)×	현제명(玄濟明)	이금중(李肯鍾)
이성근(李聖根)	모윤숙(毛允淑)	김도연(金道淵)
이종만(李鍾萬)	김택용(金澤勇)	임정엽(林正燁)
조병상(曹秉相)	최원섭(崔元燮)	장회근(張晦根)
방태영(方台榮)	황신덕(黃信德)	김희준(金熙俊)
이정재(李定宰)	김종선(金宗善)	오용택(吳龍澤)
이용신(李容愼)	임종상(林宗相)	김동성(金東成)
유진오(俞鎭午)	염경훈(廉璟薰)	성의경(成義慶)

당야(當夜)의 회의

국제정세의 긴박에 호응하여 당야의 공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터질듯이 긴장하고도 엄숙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정각 전부터 우리 사회의 사상계, 교육, 재계(財界), 언론, 종교 등 각 계 인사가 참집(參集)하기 시작하여 총수 20명의 다수를 헤아렸다. 그중에는 윤치호(尹致昊)·최린(崔麟)·신흥우(申興雨)·이광수(李光洙) 씨의 얼굴도 보이고 재계(財界)로는 한상룡(韓相龍)·민규식(閔奎植)·박흥식(朴興植) 씨 등의 얼굴도 보이고 이진호(李軫鎬)·고원훈(高元勳)·김시권(金時權)등 전일(前日)의 고관(高官)들의 얼굴도 보이였다.

6시 30분의 정각에 ‘국민의례(國民儀禮)’가 잇은 뒤 김동환(金東煥) 씨가 등단하여 약 10분간, 금일 회합의 의의에 대하여 개회사를 하고, 이어서 제씨(諸氏)의 동기(動機)로 주최 측에 좌장(座長)의 선(選)을 임함으로 씨(氏)는 다시 신흥우(申興雨)시를 당일 의장으로 추대하고 하단(下壇)하다.

임전대책협의회 의사록

신흥우(申興雨 : 高靈興雨) : 여러 선배가 임석(臨席)하신 이 자리에서 저 같은 적은 사람이 의장으로 추대된 것은 실로 황송(惶悚)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번 이 모임의 취지와 목적에 관해서는 주최측인 삼천리(三千里)사 사장 김동환(金東煥) 씨로부터 이미 말씀이 있었으니 약(略)하기로 합니다마는 지금은 내게 있는 것을 다 내여서 국가에 봉공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요 및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긴박한 제정세(諸情勢)에 감(鑑)하여 임전태세에 즉(則)하므로써, 우리의 이상과 생활을 재편성하자는 뜻 밑에서 피차 좋은 의견을 교환하여 이 회를 원만하게, 그리고 유의의(有意義)하게 진행시켜 주셨

으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윤치호(尹致昊) 씨께서 씨(氏)의 동의(動議)로 된 본 협의회 결의문을 등단하셔서 낭독하시겠습니다.

결의문(決議文) - 윤치호(尹致昊)

윤치호(尹致昊 : 伊東致昊) :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는 황국신민으로서 일사보국(一死報國)의 성을 맹서(盟誓)하며 임전국책(臨戰國策)에 전력을 다하여 협력하기로 결의함’

이상의 결의문을 사통(四通) 작성하여서 고노에(近衛) 내각총리대신 각하에게와 도요타(豊田) 척무대신 각하에게와 미나미(南)조선총독 각하에게 타전(打電)하기로 제의(提議)합니다.

일동 박수로 동의

신(申)의장 : 다음에는 장덕수(張德秀) 씨의 동의(動議)로 된 본 협의회 감사문을 장덕수씨가 등단하셔서 낭독하시겠습니다.

감사문(感謝文) - 장덕수(張德秀)

장덕수(張德秀) : 전지(戰地)에서 분투하는 황군의 노고를 감사하는 뜻 밑에서 감 사문을 작성하여 본 협의회로서 전(畑) 지나파견군(支那遣軍) 총사령관, 관동군사령관, 남지파견함대(南支派遣艦隊) 총사령관, 불인진주(佛印進駐) 육군최고지휘관,⁵¹⁾ 다섯 분에게 타전하기로 하였는데 그 감사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시국의 긴박에 제하여 조선인 2,400만은 황국신민으로서 신(身)과 그 실천방책을 협의하기로 위해 각 계급 120명이 경성에서 임전대책협의회를 개최함에 당하여 삼가 귀관(貴官)과 아울러 부하 장병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의를 표하며, 및 무운장구(武運長久), 국위선양(國威宣揚)을 빌어 마지않음.’

1941년 8월 25일

임전대책협의회

일동 박수로 동의

신(申)의장 : 이제 근본문제인 ‘임전체제하에 있어서 자발적 황국신민화 운동에의 실천방책’에 관하여 협의할 터인데, 최린(崔麟) 씨로부터 이에 관한 총괄적인 연설이 있겠습니다.

극동사태(極東事態)의 긴박과 오인(吾人) - 최린(崔麟)

최린(崔麟 : 佳山麟) : 지금 새삼스러이 특별한 말씀을 드릴 것은 없으나 평소에 심중에 품었던 심경의 일단(一端)을 피력하려 합니다. 즉 내선일체(內鮮一體)구현화, 다시 말하면 조선인 2400만 명이 황민화 한다는 것은 조선인에게 부여된 큰 과제로서 누구에게나 부딪혔던 과거의 일이겠으나 그러나 이 과제를 어떻게 잘 풀어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에 관해

51) 불인(佛印) :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서는 위정자도 상당히 노력하리라고 배참하나, 따라서 우리 민중의 심경을 피력하는 것도 되리라 생각됩니다.

즉, 우리는 ‘어떻게 되었느냐’는 것은 2,400만 민중의 심중에 공통으로 왕래하는 중대문제로서 여러 가지 이론과 비판이 많을 것입니다.

근래 우국동지(憂國同志)들의 말을 듣건대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은 모양인데, 첫째, ‘나는 일본인이 되려고 한다’는 일부의 인사(人士)가 있고, 둘째로는 주로 전향객(轉向客)의 말인데 ‘나는 이미 청산해서 깨끗하니 다 됐다.’고 과거로 돌리는 인사도 있고, 셋째로는 ‘나는 이미 다 되었는데 전(前)대로 보아주니 슬프다.’는 즉 위정자나 제3자가 못 알아준다는 슬픔을 토로하는 인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됐다고 하는 마음 속의 것을 어떻게 하면 알릴 수 있을까. 즉 표현문제인데, 이를테면 어떠한 일이 황국 신민의 일이 될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라 하는데 있어서 위정자가 과제를 제시하면 피를 흘려서라도 일하겠다는 인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심경을 피력함이 각각 다른 모양인데, 나의 의견으로는 일을 우리로서 선택할 것이 아니라 시국이 요구하는 바를 실천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어렵게 구차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힘에 적당하게 힘이 무엇보다 요체(要諦)라 생각합니다. 당국은 하라하면 국민은 합시다 하여서 춤과 장단이 맞아 떨어져야 할 것인데, 종종 춤과 장단이 맞지 않는 그러한 현상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정과 힘을 다해서 시키는 대로만 잘만 해 나아가면 훌륭한 봉공(奉公)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한 여담이지만 나도 일생을 통해서 본다면 다른 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살려면 권리가 있어야 한다. 즉 권리주장이 어느 시기에는 나를 지배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떠한 시기에 이르러 이 사상이 일전(一轉)하였는데, 그것은 사람은 권리로 살 것이 아니라 의무로 살 것이라는 새로운 진리의 파지(把持)에서 권리주장을 청산했습니다. 종래의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는 권리주장을 의미하는 것이요, 국가주의와 전체주의는 의무주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권리의 관념을 포기하고 의무이행으로 내 생활을 재편성해야 하며, 이로써 국가에 충성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충성에는 권리가 없다. 효(孝)에는 의무만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땀과 눈물과 피로써 의무만을 다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국은 매우 절박해왔습니다. 이른바 비상시국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상시국이라는 말의 내용은 1~2년 전과 지금과는 매우 다른 것입니다. 고로 이 초비상시국에 처한 우리에게 책임이행, 즉 요새 유행어로는 직역봉공(職域奉公) 그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하는 것은 천만 돌이 주먹만 못하다는 격으로, 모든 것에 실천과 실행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일반에 충성하자면 ‘기회’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선인에게 있어서 지금이야말로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며, 이 기회에 우리가 충성을 다한다면 실로 사방공배의 커다란 공로가 있을 것이라 믿는 바입니다.

이에 있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약속이 있어야 할 것을 말하려 합니다.

- ① 정치문제를 초월하자. 즉, 정치를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 ② 공리심(功利心)을 청산하자 사람이 공리심이 전혀 없을 수 없으나 그러나 멸사봉공(滅私奉公)이

라는 기장(旗幟) 밑에서 일해야 할 것입니다.

③ 대립관념을 청산하자. 이 대립행동은 특히 조선인에게 많다고 보아지며, 우리의 결함 중의 하나라 하지 않을 수 없는 현상으로 남에게까지 부끄러운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산곡(山谷)의 풀들이 모여서 만리귀해(萬里歸海)하듯이 개인 개인은 한 덩어리가 되어서 국가에 귀착해야 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에게는 오직 단결만이 있을 뿐이요, 상극이나 마찰이 전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단체라든지 어떠한 일에 있어서든지 대립을 청산하고 국가에 귀일하기를 재삼 말합니다. 이상의 삼대 조목을 실행해 나가기를 피차 힘쓰십시오.

(박수)

신(申)의장 : 이제부터 여러분 중에서 의견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이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본제국과 조선인의 진로 - 조병옥(趙炳玉)

조병옥(趙炳玉) : 여러 선배의 현명하신 의견도 많을 줄 압니다마는 제가 잠깐 소감의 일단(一端)을 외람되이 말씀하고자 합니다.

제 생각엔 오늘 협의항목 중에 '물자와 노무공출의 강화책'이라든가, '국민생활의 최저표준화 운동방책' 등은 이 좌석에서 단시간에 협의 결정될 성질의 것이 아니요, 또 제한된 시간에 각각 명안(名案)이 나서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는 위원제를 조직하여 이 협의회로 하여금 영구화시켜서 세밀한 연구와 보고가 있음이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제국의 신민으로서 이 마당에 모였습니다. 전 세계를 통하여 역사적 드라마가 전개되는 현 단계에 있어 유사(有史)이래 처음 위급(危急) 존망지추(存亡之秋)에 입각한 제국의 위정자로서는 조선인이 과연 절대적으로 제국신민으로서 현하 국책에 협동하느냐 않느냐 함에 있어서 조선민중에 대해서 듣고 싶은 대답이 많을 줄로 압니다. 영국(英國)이 대 독일전에 있어서, 인도(印度)민중이 영국의 전쟁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가지고 있음을 매우 주목하여 인도가 과연 영국에 편입되어 참전하느냐가 중대문제의 하나로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영국은 만일 인도가 참가하면 인도에 자유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선민중은 아무 요구도 없이 무조건으로 협동해서 전승해서, 동아공영권 건설에 매진하므로써 위정자에게 안심을 줄 것입니다.

지나사변(支那事變)⁵²⁾은 단지 '지나사변'만이 아니고 세계대전에 연쇄적 관련이 있어서 대는 바야흐로 북태평양 물결과 남태평양 물결이 거칠어지고 있는데, 대성전의 목적이 시베리아(西伯利亞), 만주(滿洲), 중국(支那), 프랑스령 인도차이나(佛印), 태국(泰國), 네덜란드령 인도네시아(蘭印), 호주(濠洲) 등을 포용하여 경제적으로 연방제로 하는 동아공영권 확립에 있다는 것은 역사적 필연적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관철된 뒤의 전쟁은 민족적 투쟁에 있는데, 그것은 세계를 이분하여 백색인종과 유색인종의 투쟁인 것입니다. 요컨대 이 모임의 목적은 조선민중으로 하여금 제국신민으로서 국책에 절대협력할 것, 그리하여 위정자로 하여금 안심하게 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52) 1937년 발발한 중일전쟁을 뜻함.

애국자와 금일(今日) -이광수(李光洙)

이광수(李光洙 : 香山光郎) : 나 같은 일개 서생이 여러분 앞에 나서서 떠드는 것은 외람된 일입니다마는, 지금은 성전(聖戰) 4년이 지났고 이미 5년에 들어섰으며, 이에 다시 영미(英米), 소련이 적이 되어 대동아공영권의 성업의 완수를 협위(脅威)하여서 시국은 한층 더해 긴박해지고, 따라서 임전체제의 산하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때에 우리들은 이미 당국이 일하기를 허하였으니 임금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일할 것뿐입니다. '일한합병' 이후 조선인은 늘 당국을 향하여서 '안 준다'는 불만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념은 서양식 국가 관념인데 즉 세납(稅納)을 얼마나 바쳤으니 그만큼 국가로부터 무엇을 받아야겠다는 것이 서양식 국가 관념이지만, 일본의 국가 관념은 그와 반대로 기쁘게 모든 것을 나라에 바치자는 것입니다. 즉, 바라는 것 없이 그저 즐겨 드리는 것이 일본의 국가정신인 것이외다.

나 같은 인물도 이 일본의 국가 관념을 파악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나 우리는 나라에 바치는 것이 너무 적은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중일전쟁에 전지(戰地)에서 산화(散華)된 전몰장병(戰歿將兵)이 10만 6천이나 된다고 군으로부터 발표가 있었는데, 내선(內鮮)⁵³⁾의 인구비례로 보아 일본인이 10만 6천명이 전몰했다면 그중에 조선인이 3만 명은 같이 전사했어야 옳을 일이고, 또한 공평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조선인이 몇 사람이나 피를 흘려 죽었는가 하니 중위(中尉) 1인, 병졸 2인, 제 합 3인이 전사했다는 것은 실로 부끄럽기가 작이 없는 노릇이외다.

그러나 몸을 나라에 바쳐서 피를 흘릴 수 있는 병역(兵役)의 의무가 조선인에게 아직 허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몸을 나라에 바치는 일에 있어서는 그와 같이 엄청난데 적은 부끄러운 숫자를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채권(債券)을 사는데 있어서 4년간 국채발행에서 조선인이 소화한 것이 9분 6리(厘) 3모(毛)라 하니 이 또한 조선 내에 있는 일본인보다 40배나 되는 인구를 가진 우리로서는 부끄러운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첫째, 우리는 몸을 적게 바쳤고,

둘째, 우리는 물질을 적게 바쳤으며,

셋째, 우리는 마음을 또한 적게 바쳤다고 생각합니다. 임금님과 나라에 마음을 바치는 일은 순서대로 말하고 보면 첫째에 속할 것인데, 이 일조차 적으니 이것은 우리의 정성이 적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주는 것이외다.

때는 바로 긴장을 요구하는 때입니다. 영미가 적이 되고, 소련도 네덜란드령 인도네시아(蘭印)도 적이라 해도 좋으리만큼 적성(敵性)을 띠고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우리는 있는 힘을 다 내어 놓아야 할 시기인줄로 압니다. 마음과 물질과 몸을 바쳐서 국민 전체가 전쟁태세를 취하지 않아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국하에 우리 조선인의 사명이 매우 크다 생각하는데, 그중에서 노역(勞役)의 필요를 절감하는 동시에 이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이라 느낍니다. 오는 1942년도에 있어서 몇 백만의 힘이 필요한지 그 숫자는 알 수 없으나 그리고 그 사용처도 전문가가 아닌 나로서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생산기관이 전보다 더욱 늘어가고, 또 병정의 출정으로 인하여 인원 부족을 느끼는 때 우리 조선인의 힘을 모아서

53) 일본(내지, 內地)과 조선일 함께 일컫는 말. 이하 내지(內地)는 일본으로 고침.

이 부족 되는 것을 충당시켜야 할 것이며, 국채를 사는 등 이 협의를 통하여 실제 운동의 결실이 잇기를 요망하는 바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아직 덜 일본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힘써서 정말 일본인이 됩시다. 총 매는 영광은 아직 못 가졌다 할지라도 참된 일본인이 되어서 이상의 말씀 드린 실제 운동에 발 벗고 나서면 총 매는 영광까지도 가지는 장래는 필히 멀지 않을 것이라 자신하는 바입니다.

황도정신과 총력 -이각종(李覺鍾)

이각종(李覺鍾 : 靑山覺鍾) : 본 문제에 부딪지기 전에 한 마디 말씀을 드리하고자 하는 이러한 모임은 누구나 다 해야 할 줄 알고 있는 이때, 삼천리(三千里)사에서 이와 같이 모이도록 수고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근래 사변 5년 동안 조선에 미완된 점을 염려하여 유지 방면에서 흥아보국단(興亞報國團)을 조직한 일이라든가, 또는 이번 협의회까지 조직된 것은 실로 감사하기 짝이 없으며 이러한 회합은 각각 국책에 선히 순응되어 가다는 증명일 것입니다.

그런데 종래의 조선인의 심경의 방향은 아까 최린(崔麟)군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권리를 주지 않으니까 의무를 다할 수 없다는 말이나 의무를 다하지 않으니까 권리가 없다는 말이나, 또는 이광수(李光洙)군이 말한 나라에 바치는 것이 적다는 말들을 더 한 번 깊이 음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한 말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 일본적으로 해보자는 것입니다.

일본은 도의(道義)의 나라입니다. 건국정신으로부터 그러합니다. 아랫사람은 윗사람의 뜻을 잘 받들고 윗사람은 또한 아랫사람을 잘 살피는 근본적으로 도의의 정신에서 사는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황국신민서사(皇國臣民誓詞)를 읽은 뒤에도 그 생활 표현이 일본식 문화에 익숙하지 못했고 또한 도의가 부족했기 때문에 전자에 이광수 군의 발기(發起)로 황도학회(皇道學會)라는 단체도 조직되었던 것입니다.

모름지기 우리는 일본사상권 내에 돌입해서 일본적으로 살아야 할 것이외다. 그리하여 대립사상에서 돌아서서 구체적 의견협의로 국민총력연맹(國民總力聯盟)을 통해서 총후보국이 커야 할 것입니다. 제1항목에 있어서는 주밀한 조사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후생성(厚生省)에서 하는 일이며, 제2항목에 있어서는 비상시 혼상의례(婚喪儀禮) 같은 것이 총력연맹을 통해서 장려되고 있는 것이니 총력연맹과 제휴하여 이 일에 매진했으면 합니다.

신(申)의장- 물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서 다 말씀하시고 싶은 생각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120여 명의 인사가 운집하신 이 석상에서 한 분이 한 마디 말씀만 하신다 하더라도 하루 이틀 밤으로는 도저히 끝나지 않을 것이므로 이제부터는 협의할 본론에 있어서는 실례일 줄 아나 부득이 지명해서 한 문제에 한 분씩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항목인 '물자와 노무공출의 강화책'에 있어서 함상훈(咸尙勳) 씨가 나오셔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노무공출에 대하여 -함상훈(咸尙勳)

함상훈(咸尙勳) : 이 문제에 있어서 국가는 어떠한 방침을 가져야 하며 국민은 어떠한 일을 해 나가야 할까. 통화(通貨)의 팽창이라든가, 물품의 원활이라든가, 소비의 과세 등은 정부 자신이 취할 일이겠으며, 국민으로서서는 될 수 있는 한에서 물자 절약을 꾀할 일입니다.

물론 정부는 다 방면으로 일하기 때문에 물자 배급의 원활에 있어서도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관리도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소의 차이 되는 점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컨대 사탕배합(砂糖配合)에 있어서도 도시와 시골이 일정하지 못하며, 목탄(木炭)가격에 있어서도 차이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국민은 그러한 것에 불만을 토로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정부의 일에 이해와 동정을 갖고 언제든지 자숙하지 않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자숙은 비단 거기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암취인(暗取引)⁵⁴⁾이 없어도 상품을 판매할 수 있고 또한 구입할 수 있도록 피차의 자숙이 무엇보다도 꼭긴사(喫緊事)⁵⁵⁾라 보는데 이에 있어서는 민간자체에서 이러한 일을 위한 단체조직, 혹은 기관조직이 있기를 요망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사람은 체면과 유행을 따르는 동물이어서, 한두 가지 비근(卑近)한 예를 들어 말한다면 옛날에는 넥타이를 매지 않는 것이 실례이기 때문에 넥타이를 매지 않고는 외출할 수가 없었지만 지금은 '노타이'나 국민복으로도 훌륭히 나타낼 수 있는 의식의 하나로 되었으므로 넥타이를 매지 않았다고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외출 못하는 일이 없는 것이외다. 손님 대접에 있어서도 차나 과물(果物)을 내어 놓는 것이 한 의례와 같이 되어 있어서 내어 놓지 못하게 되는데, 그것 역시 연하장을 폐지하듯 전국적으로 폐지하자는 운동을 일으킨다면 이러한 부류의 것, 혹은 그 이상의 것도 많이 폐지하여 허례, 낭비 등을 방지하고 및 물자절약에 다대한 성과를 보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러한 것은 하자, 저러한 것은 하지 말자는 것을 협의하고 결정하고, 선전하고, 또한 실행에 옮기도록 일하는 민간조직의 기관이 필요하다고 절감합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힘쓰지만 이 비상시에 정부에만 맡기고 가만히 앉아만 있다는 것은 좀 노력할 문제라 생각하며, 민간 역시 정부에 협력하는 견지에서 그러한 민간조직을 통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또한 민간에 여론을 일으키고 장려시켜서 당국의 좋은 협력자가 되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신(申)의장 : 다음 둘째 항목인 '국민생활의 최저표준운동방책'에 관해서 이금중(李肯鍾) 씨가 나오셔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국민생활의 최저화- 이금중(李肯鍾)

이금중(李肯鍾 : 宮村 薰) : 우선 삼천리(三千里)사의 이 주최를 감사합니다. 임전(臨戰)체제하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당국에 잘 순응해 나아갈 수 있을까, 그 방책론에 있어서는 이미 과거에 우리는 거듭 거듭 많은 말을 들었으나 진리는 또 들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응방법의 하나로써 국민생활의 최저표준의 유지는 당면한 문제인데, 전쟁의 여세로 경제가 핍절(乏切)해져서 전에 1개월이면 100원으로 되던 생활비가 지금은 200원이라야 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에 생활의 최저표준화 운동이 대두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에 있어서 당국에서도 상당히 생각하리라 믿는데, 나는 이 문제에 있어서 3대 암(癌)이 있다고 봅니다.

그 첫째는 유민(遊民)인데 이는 3대 암중의 하나로 등한시할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유민이란 직업

54) 암거래를 뜻함.
55) 가장 중요한 일.

이 없기 때문에 놀며, 놀기 때문에 생활이 불규칙하며 따라서 의사가 견고하지 못하고 의지가 견고하지 못하니까 쓸데없는 낭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이지만 다방(茶房)에 쓸데없이 드나들게 되며 심심하니까 영화관에 또한 자주 출입하게 되고 그렇게 출입하고 다방 같은데 돌아다니며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자니까 자연 분에 넘치도록 좋은 양복도 입고 싶은 소위 사치와 허영에 빠지게 되는데 이러한 암은 아무래도 정치의 힘을 바라지 않고는 제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둘째의 암으로는 '부유의 계급'이외다. 옛날에는 부라는 것을 5복의 하나로 매우 추앙(追仰)했었으나 그러한 사상을 예찬하던 시대는 이미 변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도 부를 의뢰하고 안일과 방종의 생활에 침윤되어 있다는 것은 실로 용서 못할 일로 그들에게 사회적 양심의 가책이 있도록 민간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셋째의 암으로는 '여자문제'인데 일본인 여자에 비해서 조선 여자는 경제관념이 매우 박약한 점이외다. 이에 있어선 가정주부의 자각이 무엇보다도 각진(喫緊)히 요망되는데, 그 자각의 방안의 하나로는 여자들로 하여금 강연회 등 모든 일에 참가하게 하며 신문과 잡지에서 주부의 페이지를 확장하여서 주부들에게 가정경제상식 등을 더욱 함양시켜서 가정경제에 주력함이 많아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세 가지의 암 퇴치는 국민생활의 최저화운동에 있어서 시급한 문제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신(申)의장 : 다음은 셋째 항목인 '전시봉공(戰時奉公)의 의용화 방책'에 대해서 주요한(朱耀翰) 씨가 말씀하시겠습니다.

전시봉공(戰時奉公)의 의용화- 주요한(朱耀翰)

주요한(朱耀翰 : 松村耀翰) : 오늘 저녁,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중 두어 가지 감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무엇이나 하면, 이 자리, 이 시국이 서로 말할 때가 아니고 실행할 때라는 것을 통감한 것입니다. 의사 진행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도 역시 어서 실행해야겠다는 데서 출발된 것인 줄로 압니다. 말만 하지 말고 실행하자.

이 시국은 벌써 서로 토론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입니다. 임전대책(臨戰對策)이라고 하면 전쟁이 임박했다는 것이지만 어느 의미에 있어서는 어떤 국가가 이미 적이 되어 가지고 싸움을 시작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근대전은 무력전만을 가리켜 전쟁이라 하지 않고 사상전을 비롯해서 경제전 즉 물자를 주던 것을 안 주는 것이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은 총력전 중에 이미 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임전이 아니고 이미 전쟁 중인 이때에 이것이 이렇다 저것이 저렇다 하고 토론만 할 때가 아니라 전시봉공(戰時奉公)의 의용화(義勇化) 운동을 할 때라 생각합니다.

공채소화라든지, 최저생활운동이라든지, 좀 더 나아가서 황국신민화운동이라든지 혹은 방공훈련 등 제 문제는 벌써 3년 전, 4년 전에 이미 누구나 각오한 일들입니다.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이제 새삼스럽게 시간을 없이하면서 떠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협의회에서 협의할 세 가지의 항목 중에 첫째와 둘째는 집어치우고 셋째 항목이 제일 중대한 문제라 사료(思料)합니다.

아까 누구의 말씀과 같이 황군 장병 10만 6천 중에서 우리 조선인의 전몰자(戰歿者)가 불과 3명이라는 것은 전혀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공채소화에 있어서도 팔푼(八分) 제공이라 하는데 물론 이것

은 사회나 단체에서 조선 사람이 얼마나 샅다는 것을 일본인과 구분해서 명확히 발표하지 못한 이유도 있지만 일본인 총계에 비하면 조선인의 공채소화란 10퍼센트에 불과합니다.

이러고도 이것을 가르쳐 황민화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을까. 이 점에서 우리는 국민의 의무를 실행하지 못한 것을 좀 더 자성해야 할 것이며 의무이행에 팔을 걷고 나서야 할 것이외다.

이 시국에 있어서 우리는 최후의 단계에 임했습니다. 즉, 우리의 피를 요구하는 시기에 임박했습니다. 태평양에 물결이 높은 이때에 실로 우리 조선인의 피를 바라지 않을 수 있을까. 지금 태평양의 물결은 끓고 있습니다.

적도선(赤道線)의 뜨거운 태양에 끓는 것이 아니라 적군의 군함들이 끓고 있습니다. 시베리아(西伯利亞)에도 또한 때 아닌 찬바람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직면한 이때 우리의 피를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지도자의 입장에서 볼 때 10년이나 100년 후에 동양인의 동양, 즉 동양인의 낙원이 건설된 때에 그 건설에 조선인의 피가 얼마나 흘러졌느냐, 만일 거기에 조선인의 피가 적게 흘러졌다면 우리의 자손들은 얼마나 부끄러워 할 것이며, 남과 같이 얼굴을 들 면목이 있을까.

나는 얼마 전에 이인석(李仁錫)군의 죽음에 바치는 시를 지어서 읊은 일이 있습니다. 그 시중에는 이러한 구절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새로운 세계의
터다짐을 위해
동양 민족의 살아남을 위해
흘리는 피다.
이 피를 통해서
형아! 아우야!
너들의
생명을 찾고자 한다.
이 피는 곧
우리의 죽었던 피가
산 피가 되는 피다.
형아! 아우야!
나는 간다.
너보다 앞서
피를 부린다.
앞으로 너들의 피가
백으로 천으로
만으로 십만으로
뿌려질 줄을
나는 안다.

너들의 피가
 대륙에서
 대양에서
 님을 위해
 넘쳐 흐르게 될 줄을
 나는 안다.
 일억(一億)은 일심(一心)이 되고
 대륙은 밝을 것이다.
 그때야 말로 우리는 살 것이다.
 힘차게
 자신있게 기쁘게 살 것이다.⁵⁶⁾

이것은 그 시의 절반도 못되는 일부분인데 전체의 뜻은 이인석의 흘린 피가 이인석의 한 개인의 피만이 아니고 2천 4백만의 피가 이인석의 염통을 통해서 흘러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그 뒤를 이어서 자꾸 자꾸 흘러질 것을 그가 먼저 스타트했다는 것입니다. 그 자꾸 자꾸 흘러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역(勞役)을 내자, 물론 좋은 문제입니다. 밭에, 공장에도 한층 더해 노역을 경주(傾注)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20세 미만, 또는 40세, 50세 이상 혹은 여자도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조선청년에게 부과된 최대의 시급한 문제는 탄환을 지고, 군량을 지고 총을 메고 전장에 나아갈 일이요, 탄환 속을 막 뚫고 나아갈 때가 왔다고 봅니다. 거기엔 기술적 훈련도 필요하지 않고 오직 전진만 있을 따름입니다.

이에 있어서 나는 이 석상에 앉으신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제안을 말하려 합니다.

첫째는 오늘 저녁 120여 명이나 되는 조선의 중심인물이 모인 이 회합을 상설기관으로 조직하여 전 조선 전지구상의 조선인에게 전시봉공의 의용화 운동의 주장과 신념을 철저히 이식하게 하고 고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총력연맹도 있어서 이러한 일을 할 것이라 하겠지만 총력연맹은 총력연맹이고,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기관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조선인의 끓는 열을 전 조선인에게 퍼뜨려서 조선청년의 피 흘릴 것을 약속하는 신체제 훈련, 군사훈련을 해야 할 것이 첫째 제안입니다.

둘째 제안은 의용군을 자발적으로 만드는 훈련을 일으켜야 합니다.

〈출전: 「本社主催大座談會 臨戰對策協議會, 百二十人士가 府民館서에 會合, 臨戰對策協議會 議事錄」, 『三千里』 第13卷 第11號 1941년 11월 1일, 46~61쪽〉

56) 주요한, 「첫피 - 지원병 이인석(李仁錫)에게 준」, 『신시대』 제1권 제3호, 1941년 3월에 전문이 실려있다.

3. 조선임전보국단

1) 『조선임전보국단개요』(1941)

축사

오늘 여기에 조선임전보국단 발회식을 거행하는데 있어서 소감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는 바이다. 지금 제국은 미증유의 대난국에 직면하였다. 이 난국을 돌파하여 동아공영권을 확립하는 것은 황국신민의 중대한 의무인 동시에, 이를 완수하여 팔굉일우(八紘一宇)의 대정신을 선포해야 할 절대적인 영광을 갖고 있다. 이런 때에 조선반도에서 임전태세를 한층 더 강화할 필요를 통감하는 중견 유식계급 600여 명이 결속하여 일어나 황도정신(皇道精神)을 선양하고, 사상을 통일하고, 생활을 쇄신하여 개로(皆勞)운동을 철저히 함으로써 성업 완수에 공헌하고자 한다는 결의 아래 순수 민간국민운동의 강력한 첫걸음을 여기에 내딛게 된 것은, 긴박한 시국 하에 참으로 시의적절한 것으로서 높이 사지 않을 수 없는 바이다. 바라건대 담담한 그 □심(心) 조선반도 전체에 투철히 하여 이천사백만이 하나가 되어 본 단체 설립의 목적을 달성하기를 바란다.

1941년 10월 22일

조선군 사령관 이타가키 세이시로(板垣征四郎)

조선임전보국단 설립취지서

우리나라는 지금 유사 이래 미증유의 가장 중대한 시국에 직면한 동시에, 또 가장 숭고하고 존엄한 동아공영권 확립의 성업(聖業) 완수의 한 가운데에 있다. 이런 때, 삶을 황국에서 누리고 있는 자는 그 누구를 불문하고 그 직분에 따라 정성을 다하여 국운의 전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은 논의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런 때를 맞이하여 우리 조선반도 사람들은 과연 지금과 같은 태세 이대로 있어도 좋은 것일까? 설령 우리는 특별 지원병 외에 일반적으로 병역에 복무할 수 있는 명예를 얻을 기회가 없다 하더라도, 적성(赤誠)으로서 정신적·물질적으로, 또 노무적(勞務的)으로 있는 힘을 다해 총후(銃後)의 봉공(奉公)에 한층 더 철저를 기함으로써 충렬한 장병들의 분투에 대해, 한없는 황은(皇恩)의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게다가 그와 같이 조선반도가 물심양면으로 병참기지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는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억누르기 힘든 애국의 지극한 마음에서 감히 여기에 국민운동의 강력한 한 기관으로서 '조선임전보국단'의 설립을 기도(企圖)하고, 널리 조선반도 이천사백만 제군들에게 □□를 호소하고자 하는 바이다. 우리 취지에 찬성하고 나라를 걱정하고 뜻을 같이 하는 강호의 지사들은 속히 달려와 참여하여, 이 애국운동의 발전 조성에 전폭적인 힘을 실어줄 것을 바라 마지않는다.

1941년 9월 11일

발기인 일동

강령

하나. 우리는 황국신민(皇道臣民)으로서 황도정신을 선양하고 사상의 통일을 기한다.

하나. 우리는 전시체제에 임해 국민생활의 쇄신을 기한다.

하나. 우리는 근로보국(勤勞報國)의 정신에 입각해 국민개로(國民皆勞)의 결실을 맺을 것을 기한다.

하나. 우리는 국가우선의 정신에 입각해 국채의 소화, 저축의 장려, 물자의 공출, 생산의 확충에 매진할 것을 기한다.

선서문

우리는 임전체제 하에서 일체의 사심을 버리고 과거에 구애받지 않고 개개의 입장에 사로잡히지 않고 2400만 반도의 민중 전체가 일치 결속하여 성전 완수를 통해 황국의 융흥을 기하고, 성은의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할 것을 맹세한다.

1941년 12월 13일
(조선신궁 앞에서)

조선임전보국단 규약

제1조 본 단체는 조선임전보국단(朝鮮臨戰報國團)이라 칭한다.

제2조 본 단체는 본부를 경성에 두고 각 도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지부에 관한 규약은 별도로 정한다.

제3조 본 단체는 임전체제 하에서 국민총력조선연맹의 취지에 입각해 본 단체의 강령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행한다.

- (1) 국민개로(國民皆勞) 실천 운동
- (2) 물자의 공출 및 공납 운동
- (3) 국민생활 쇄신 운동
- (4) 저축 장려, 국채 소화 운동
- (5) 근로보국 도장 설치
- (6) *도장 설치
- (7) 지도자 단기 이동 강좌 개최
- (8) 기타 필요한 애국 운동

제5조 본 단체는 단원 조직을 본 단체의 취지, 강령에 찬동하는 동지로 조직한다.

제6조 본 단체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단장 1명
- 부단장 1명

이사 약간 명(그중 1명을 이사장, 야간 명을 상무이사로 한다)

감사 약간 명

평의원 약간 명

제7조 단장 및 부단장은 이사회에서 이를 천거한다.

단장은 본 단체를 통괄한다.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사고를 당했을 때는 그 사무를 대리한다.

제8조 본 단체에 고문 약간 명을 두고, 단장이 이를 위촉한다.

고문은 본 단체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해 단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또는 의견을 개진한다.

제9조 임원은 단장이 이를 위촉한다.

제10조 이사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본 단체의 사무를 관리한다.

단장 및 부단장이 사고를 당했을 때는 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1조 단장, 부단장 및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여 본 단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한다.

상무이사는 단장 및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이 사고를 당했을 때는 이사장이 지명한 상무 이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2조 평의원은 평의회회를 조직하고 그 회에 부의(附議)된 사항을 심의한다.

제13조 임원에 수당을 지급하거나 또는 실비 변상을 할 수 있다.

제14조 존 단체에 총무, 사업, 전시생활이라는 세 부서를 둔다.

부에 부장을 두고 단장이 이를 위촉한다.

부장은 이사장의 지휘를 받고 부서 업무를 처리한다.

제15조 감사는 본 단체의 경리를 감사한다.

제16조 이사회 및 평의회는 단장이 이를 소집하고 단장을 의장으로 한다.

제17조 본 단체에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

위의 직원은 이사장이 이를 임면(任免)한다.

제18조 본 단체의 경비는 유지들의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제19조 본 단체의 회계연도는 4월 1일에 시작되어 이듬해 3월 31일 끝나는 것으로 한다.

단, 설립 첫해에는 설립한 날부터 이듬해 3월 31일에 끝나는 것으로 한다.

제20조 본 단체의 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이를 정한다.

제21조 본 단체 설립 당초의 임원은 발기인 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조선임전보국단 지부 규약 준칙

제1조 본 지부는 조선임전보국단 '모'도지부라 칭한다.

본 지부의 사무소는 '모'(부읍) 내에 설치한다.

제2조 본 지부는 조선임전보국단의 취지 강령을 실천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 지부는 조선임전보국단의 단원을 해당 도내에 거주하는 자로 조직한다.

제4조 본 지부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지부장 1명
- 고문 약간 명
- 이사장 1명
- 이사 약간 명(그중 약간 명을 상무이사로 한다)
- 감사 약간 명
- 평의원 약간 명

제5조 지부장 및 이사장은 조선임전보국단 단장이 지명한다.

지부장은 본 지부를 통괄한다.

이사장은 지부장을 보좌하고 지부장이 사고를 당했을 때에는 이를 대리한다.

제6조 고문은 지부장이 이를 위촉한다.

고문은 지부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또는 중요 사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한다.

제7조 이사 및 감사는 지부장이 이를 위촉한다.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본 지부의 실천 사항을 심의하고 이를 처리한다.

감사는 본 지부의 경리를 감사한다.

제8조 평의원은 지부장이 이를 위촉한다.

평의원은 평의원회를 조직하고 그 회에서 부의된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 이사회, 평의원회는 지부장이 이를 소집하고 지부장을 의장으로 한다.

제10조 본 지부에 총무, 사업, 전시생활이라는 각 부서를 둔다.

제11조 각 도에 부장을 두고 이사 중에서 지부장이 이를 선임한다.

부장은 지부장의 명을 받아 부서 업무를 처리하고, 부원들을 지도 감독한다.

제12조 본 지부에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

위의 직원은 지부장이 이를 임면(任免)한다.

제13조 본 지부의 경비는 유지들의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제14조 본 지부의 회계연도는 4월 1일에 시작되어 이듬해 3월 31일에 끝난다.

단, 설립 첫해에는 설립한 날부터 이듬해 3월 31일에 끝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 본 지부의 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 명부

◎경성(無順)

〈성명/주소〉

이동치호(伊東致昊)⁵⁷⁾/경성부 견지정 68

가산린(佳山麟)(佳山麟)⁵⁸⁾/동 명륜동 1정목 45

57) 윤치호(尹致昊)의 창씨명.

한상용(韓相龍)/동 가회정 178
 민규식(閔奎植)/동 삼청정 145-6
 김연수(金季洙)/동 성북정 41
 고원동(高元動)/동 신고정 6
 박흥식(朴興植)/동 가회정 6
 이종만(李鍾萬)/동 청운정 108-5
 장우식(張友植)/동 필운정 183
 장기식(張驥植)/동 신당정 366
 박용운(朴龍雲)/동 혜화정 10
 김시권(金時權)/동 청운정 52-58
 김동훈(金東勳)/동 사직정 285
 하산무(夏山茂)⁵⁹⁾/동 청운정 108
 방태영(方台榮)/동 종로 6정목 121
 장현식(張鉉植)/동 명륜정 1정목 81
 이보석(李輔錫)/동 가회정 11-101
 원효섭(元孝燮)/동 돈암정 308
 조준호(趙俊鎬)/동 명치정 동아증권주식회사
 손영목(孫永穆)/동 북미창정 선만척식주식회사
 김태석(金泰錫)/동 조선광업진흥주식회사
 최남(崔楠)/동 계동정 67
 박기효(朴基孝)/동 동사현정 100
 이용신(李容愼)/동 사직정 311
 임흥순(任興淳)/동 신당정 60
 허택(許澤)/동 다옥정 60
 이준렬(李駿烈)/동 견지정 대동출판사
 정현모(鄭顯模)/동 대동농촌사
 방규환(方奎煥)/동 신당정 47
 민석현(閔奭鉉)/동 관훈정 4
 금산성환(金山成煥)⁶⁰⁾/동 죽침정 3정목 517
 전형필(金鑿弼)/동 종로 4정목 121
 오용탁(吳龍鐸)/동 명륜정 1정목 44
 김성권(金星權)/동 명륜정 2정목 8

58) 최린(崔麟)의 창씨명.

59) 조병상(曹秉相)의 창씨명.

60) 김성환(金成煥)의 창씨명.

장원준(張元俊)/동 종로 4정목 조선연료상회
 윤호병(尹皞炳)/동 조선상업은행 종로지점
 청교형(靑橋亨)/동 한성은행 남대문지점
 유마정우(有馬正祐)/동 한성은행 봉점 영업부
 유천우천(柳川又春)/동 한성은행 동대문지점
 송하동준(松河東濬)/동 한성은행 용산지점
 설의식(薛義植)/동 통의정 35
 김규면(金圭冕)/동 장곡천정 상공회의소
 이동선(李東善)/동
 박영근(朴永根)/동 봉래정(경성고무공업조합)
 홍창유(洪昶裕)/동 종로 2정목 24
 김기덕(金基德)/동 죽점정 3정목 3
 김승복(金昇福)/동 명륜정 4정목 10
 이종회(李鍾會)/동 사직정 311
 박창서(朴彰緒)/동 가회정 79
 전부일(全富一)/동 다옥정 183
 한학수(韓學洙)/동 계동정 146
 이석구(李錫九)/동 창신정 동덕고등여학교
 조인섭(趙寅燮)/동 황금정 2정목 197 천일제약주식회사
 홍세뢰(洪世雷)/동 장사정 32-1
 이정재(李定宰)/동 종로 2정목 영보빌딩 내 영보합자회사
 최두선(崔斗善)/동 성북정 177
 이강현(李康賢)/동 경성방적주식회사
 이규재(李奎載)/동 주식회사 화신상회
 이기형(李基珩)/동 동
 주종훈(朱鍾勳)/동 조선생명보험주식회사
 한익교(韓翼敎)/동 조선실업구락부
 정운용(鄭雲用)/동 한성은행 본점
 이봉종(李鳳鍾)/동 동일은행 관훈동 지점
 김교철(金敎哲)/동 남대문 지점
 이항중(李恒鍾)/동 동대문 지점
 이연용(李淵鎔)/동 서대문 지점
 정학진(丁學鎭)/동 영등포 지점
 이하원(李夏源)/동 수송정 46
 안정원(安錠遠)/동 신당정 422

김희준(金熙俊)/동 신교정 6
 조병학(曹秉學)/동 장교정 13
 이상옥(李相玉)/동 무교정 13
 임종상(林宗相)/동 창신정 649
 임병기(林炳基)/동 안국정 26
 문승탁(文承卓)/동 합동정
 조대하(趙大河)/동 명륜정 1정목 33-99
 김사연(金思演)/조선국자주식회사
 조병갑(趙炳甲)/동 성북정 260
 원진상(元眞常)/동 팔판정 52
 전용순(全用淳)/동 가회정 1
 금강영일(金岡榮一)/동 조선국자주식회사
 이근택(李根澤)/동 견지정 백보환주식회사
 강익하(康益夏)/동 이화정 2
 황청송(黃淸頌)/동 조선기업주식회사
 김기도(金基道)/동 남대문통 2정목 1
 나경석(羅景錫)/동 종로 2정목 예수빌딩 내
 배정기(裴貞基)/동 종로 2정목 영보빌딩 내 삼용합명회사
 김광수(金光洙)/동 아현정 대동산업주식회사
 김종선(金鍾善)/동 권농정 187
 염경훈(廉璟薰)/동 명륜정 1정목 33
 신용옥(慎鏞頊)/동 청운정 52
 김세평(金世平)/동 명륜정 4정목 206
 김명하(金明夏)/동 삼용합명회사
 신양극(辛良極)/동 신교정 6
 이필상(李弼商)/동 무교정 동양공작회사
 박승기(朴承基)/동 동
 유영섭(劉永燮)/동 화동정 126
 김성호(金聖浩)/동 이화정 25 박춘금 집
 이충복(李忠馥)/동 인사정 59(신라옥)
 최선익(崔善益)/동 돈암정 391
 김영배(金映拜)/동 주식회사 화신상회
 문석준(文錫俊)/동 성북정 195-23
 강제동(姜濟東)/동 돈암정 299-11
 송봉우(宋琤禹)/동 흑석정

김성수(金性洙)/동 보성전문학교
 장덕수(張德秀)/동 동
 옥선진(玉璿珍)/동 동
 김영주(金泳柱)/동 동
 유진오(俞鎭午)/동 동
 안호상(安浩相)/동 동
 유억겸(俞億兼)/동 연희전문학교
 이묘묵(李卯默)/동 동
 이운용(李沄鎔)/동 동
 이순탁(李淳鐸)/동 동
 백남운(白南雲)/동 동
 정인섭(鄭寅燮)/동 동
 강낙원(姜樂遠)/동 동
 천성활란(天城活蘭)⁶¹⁾/동 이화여자전문학교
 김상용(金尙鎔)/동 동
 고헥경(高鳳京)/동 동
 이갑수(李甲洙)/동 동
 이갑수(李甲秀)/동 여자의학전문학교
 정구충(鄭求忠)/동 동
 신숙재(辛淑宰)/동 숙명여자전문학교
 오공선(吳兢善)/동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동
 이영준(李榮俊)/동 동
 윤일선(尹日善)/동 동
 윤치왕(尹致旺)/동 동
 최동(崔棟)/동 동
 현상윤(玄相允)/동 중앙중학교동
 한진희(韓軫熙)/동 동
 최규동(崔奎東)/동 중동중학교
 김주익(金周益)/동 한성상업학교
 이원찬(李源讚)/동 대동상업학교
 신흥우(申興雨)/동 배재중학교
 이병규(李炳奎)/동 휘문중학교
 김도태(金道泰)/동 동

61) 김활란(金活蘭)의 창씨명.

이헌구(李軒求)/동 보성중학교
 박격흠(朴格欽)/동 협성상업학교동
 백남훈(白南薰)/동 동
 장면(張勉)/동 동성상업학교
 최태영(崔泰永)/동 경신학교
 대산봉훈(大山鳳勳)/동 양정중학교
 진헌식(陳憲植)/동 동
 임천동식(林川東植)⁶²⁾/동 동덕고등여학교
 금천관(琴川寬)⁶³⁾/경기고등여학교
 신봉조(辛鳳祚)/동 이화고등여학교
 이세정(李世楨)/동 진명고등여학교
 엄주명(嚴柱明)/동 동
 한양호(韓亮鎬)/동 여자상업학교
 김용국(金容國)/동 동
 복택영자(福澤瑤子)⁶⁴⁾/동 안국정 37 덕성여자실업학교
 배상명(裴祥明)/동 상명실천여학교
 궁촌숙중(宮村淑鍾)⁶⁵⁾/동 견지정 74 성신여학교
 황신덕(黃信德)/동 죽첨정 1941 가정여숙
 박인덕(朴仁德)/동 덕화여숙
 임영신(任永信)/동 흑성정 중앙보육학교
 독고선(獨孤璇)/동 청진정 경성보육학교
 금천성(金川聖)⁶⁶⁾/동 매일신보사
 금본동진(金本東進)⁶⁷⁾/동 동
 서춘(徐椿)/동 동
 정인익(鄭貞翼)/동 동
 심우섭(沈友燮)/동 동
 김갑순(金甲淳)/동 조선신문사
 김동환(金東煥)/동 삼천리사
 방응모(方應模)/동 조광사

62) 조동식(趙東植)의 창씨명.
 63) 박관수(朴寬洙)의 창씨명.
 64) 송금선(宋今璇)의 창씨명.
 65) 이숙중(李淑鍾)의 창씨명.
 66) 이성근(李聖根)의 창씨명.
 67) 김동진(金東進)의 창씨명.

함상훈(咸尙勳)/동 가회정 1-33
 양재하(梁在夏)/동 춘추사
 박희도(朴熙道)/동 동양지광사
 노성식(盧聖錫)/동 종로 1정목 인문사
 최재서(崔載瑞)/동 종로 1정목 인문사
 고재욱(高在旭)/동 창신정 671
 향산광랑(香山光郎, 카야마 미츠로)⁶⁸⁾/동 효자정 175
 박영희(朴英熙)/동 천연정 69
 이석훈(李石薰)/동 남미창정
 홍명희(洪命熹)/경원선 창동역전
 최남선(崔南善)/부내 연지정
 박승빈(朴勝彬)/동 관훈정 197-10
 이극로(李克魯)/동 화동정 129 조선어학회
 이궁중(李肯鍾)/동 명륜정 1정목 304
 선우전(鮮于全)/동 냉천정
 이상협(李相協)/동 송인정 72
 김양수(金良洙)/동 사직정 262-21
 주요한(朱耀翰)/동 당수정 72
 이능화(李能和)/동 수송정 불교중앙총본산
 오억(吳億)/동 다옥정 보여관내 국민생활연구소
 유광열(柳光烈)/동 내수정 70-97
 김형원(金炯元)/동 신교정 6
 김인이(金麟伊)/동 내수정 197
 정인보(鄭寅普)/동 내수정 94
 이태준(李泰俊)/동 이화여자전문학교
 김인술(金仁述)/동 종로 3정목 예수빌딩 내 기독교신문사
 한용운(韓龍雲)/동 성북정 222
 권상로(權相老)/동 명륜정 2정목 195-9
 이종욱(李鍾郁)/동 수송정 44 불교대본산 태도사
 박택상준(朴澤相駿)⁶⁹⁾/동 혜화정 10-7
 유진찬(俞鎭贊)/동
 안인식(安寅植)/동 명륜정 명륜학원

68) 이광수(李光洙)의 창씨명.

69) 박상준(朴相駿)의 창씨명.